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제29회 2021년 여름 학술대회

팬데믹과 어린이

- 포스트코로나와 포스트휴먼

■ 일시 : 2021년 8월 14일 (토) 14:00 ~ 17:30
■ 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
■ 주최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 후원 : 창비어린이 · 역락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제29회 2021년 8월 학술대회 일정표>

팬데믹과 어린이

- 포스트코로나와 포스트휴먼

(후원 : 창비어린이, 역락)

1. 대회 개최일 및 장소

○ 개최일: 2021. 8. 14. 토요일 14:00~17:30

○ 장 소: 온라인 학술대회

2. 학술대회 실시 방식

①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로 실시할 예정임.

②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대해 종합 토론 실시

③ 실시 프로그램: ZOOM 화상 회의실

④ ZOOM 접속 링크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

<줌 접속링크 안내>

■ 줌 접속링크

<https://us02web.zoom.us/j/8345156407?pwd=ekdYMnJqeWJZWWJCWTVMUWZmZTFHZz09>

■ 줌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 회의 ID : 834 515 6407
- 암호 : 1234

3. 대회 주제 및 일정별 세부 계획

1부: 기조 강연 및 주제발표, 2부: 개인 발표

일정		발표 및 내용
접수	13:30~14:00	zoom 회의실 안내 및 회원 접속
1부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사회: 김지은 (서울예대)	14:00~14:10	• **개회사** - 조은숙(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회장, 춘천교대)
	14:10~14:40	• **[기조발제]** - 주제 : 몸과 생명에 대한 문학의 재현 방식 - 발표 : 이지유(과학논픽션작가)
	14:40~15:10	• **[기획발표1]** - 주제 : 그림책과 포스트 휴먼 - 가능성의 미래를 위한 상(환)상 연습으로써 읽기/보기 - 발표 : 한윤아(한국예술종합학교) - 토론 : 김시아(김순녀,경기대)
	15:10~15:40	• **[기획발표2]** - 주제 : 아동문학과 포스트 휴먼 - 포스트 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 발표 : 김민령(인하대) - 토론 : 최미경(건국대)
	15:40~16:00	종합토론
	16:00~16:10	휴식
2부 자유발표 사회 : 김경희 (서울대)	16:10~16:40	• **[자유발표1]** - 주제 :『어린이』에 나타난 근대의 문예창작 -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를 다룬 과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 발표 : 서희경(숭실대) - 토론 : 정재은(동화작가)
	16:40~17:10	• **[자유발표2]** - 주제 : 1960~1970년대 공상과학만화와 어린이의'과학자'꿈-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중심으로 - 발표 : 최애순(계명대) - 토론 : 장수경(목원대)
연구윤리특강 및 폐회 사회: 이향근 (서울교대)	17:10~17:20	연구윤리특강
	17:20~17:30	폐회사

목 차

기조발제 및 기획발표 ○●

【기조발제】 몸과 생명에 대한 문학의 재현 방식 - 6
발표 : 이지유(과학논픽션작가)

【기획발표1】 그림책과 포스트 휴먼 - 24

- 가능성의 미래를 위한 상(환)상 연습으로써 읽기/보기
발표 : 한윤아(한국예술종합학교)
토론 : 김시아(김순녀,경기대)

【기획발표2】 아동문학과 포스트 휴먼 - 40

- 포스트 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발표 : 김민령(인하대)
토론 : 최미경(건국대)

자유발표 ○●

【자유발표1】『어린이』에 나타난 근대의 문예창작 - 55

-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를 다룬 과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발표 : 서희경(숭실대)
토론 : 정재은(서울대)

【자유발표2】 1960~1970년대 공상과학만화와 어린이의 '과학자' 꿈

-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중심으로 - 84
발표 : 최애순(계명대)
토론 : 장수경(목원대)

연구 윤리 특강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여름 학술대회

몸과 생명에 대한 문학의 재현 방식

기조발제 : 이지유(과학논픽션작가)

몸과 생명에 대한 문학의 재현 방식

이 지 유

휴머니즘

. 인간 중심
. 인간의 능력 성품 존재 행복 중시
. 인간 사회의 존엄, 가치 중시

. 정신/물질, 생명/기계, 자연/인공 :이원법적 구분
. 다른 생명체와 자연은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

. 신본주의, 애니미즘, 샤마니즘, 자연환원주의에 반대.

신흥기술 emerging technologies의 발달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메타버스
. 기술생태 환경 변화
. 인간: 인간, 인간: 비인간, 타자, 타세계와의 상호작용방식 변화
. 인간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 변화
. 인간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변화

트랜스휴머니즘

. 건강수명을 연장하거나 노화 멈춤
. 지적,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의 개선 혹은 강화
. 인간 본성의 향상enhancement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 지적·문화적 운동

. 기계공학(로봇, 외골격), 뇌과학, 생명공학, 각종 약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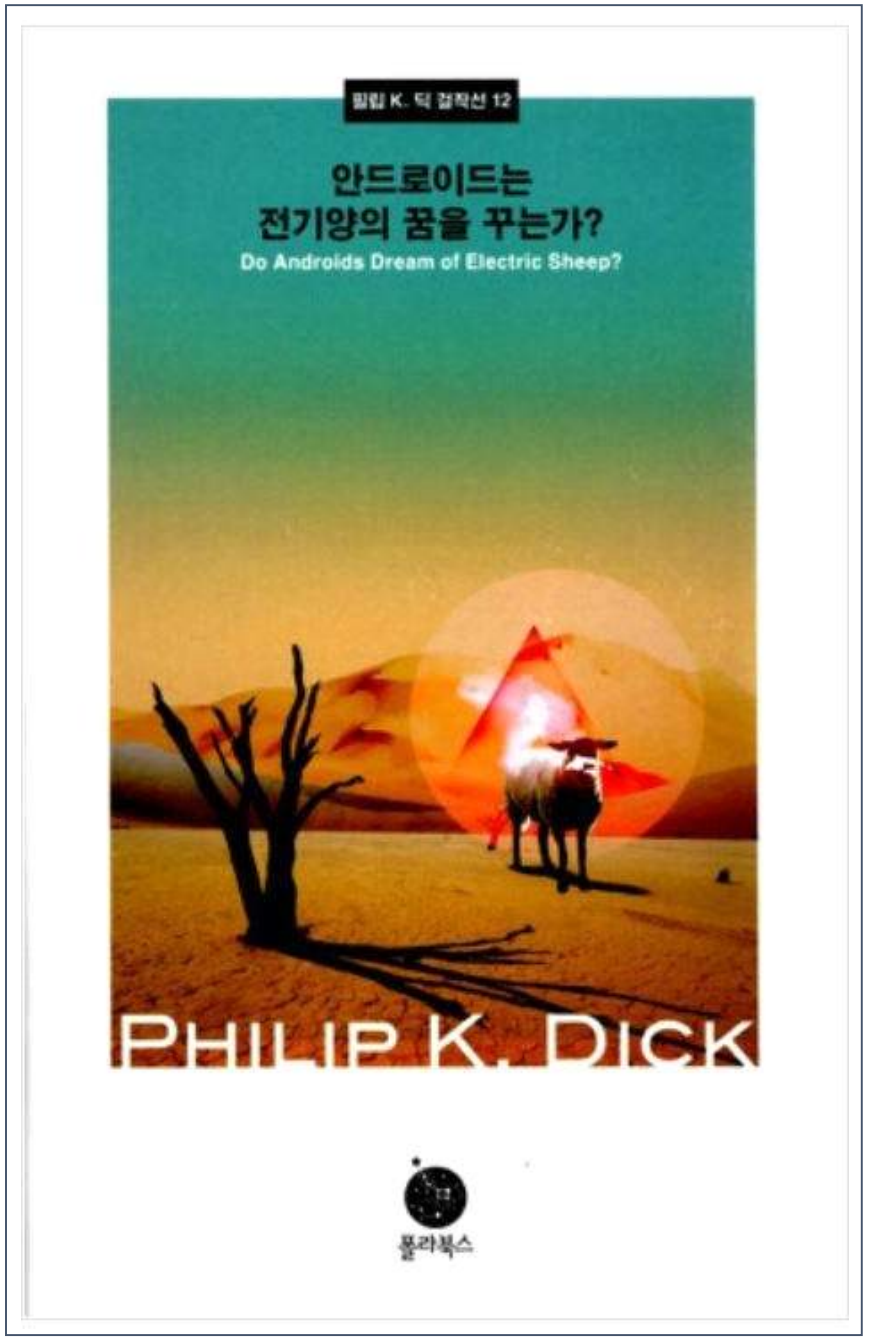
포스트휴머니즘=탈휴머니즘

- 인간human being이란 존재를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없으니 '인간'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
- 기계의 인간화 : 인간의 기계화
- 근대적 이분법과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 '기계',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패러다임이나 언어 문법을 모색

휴머니즘-보캉송의 오리-포스트휴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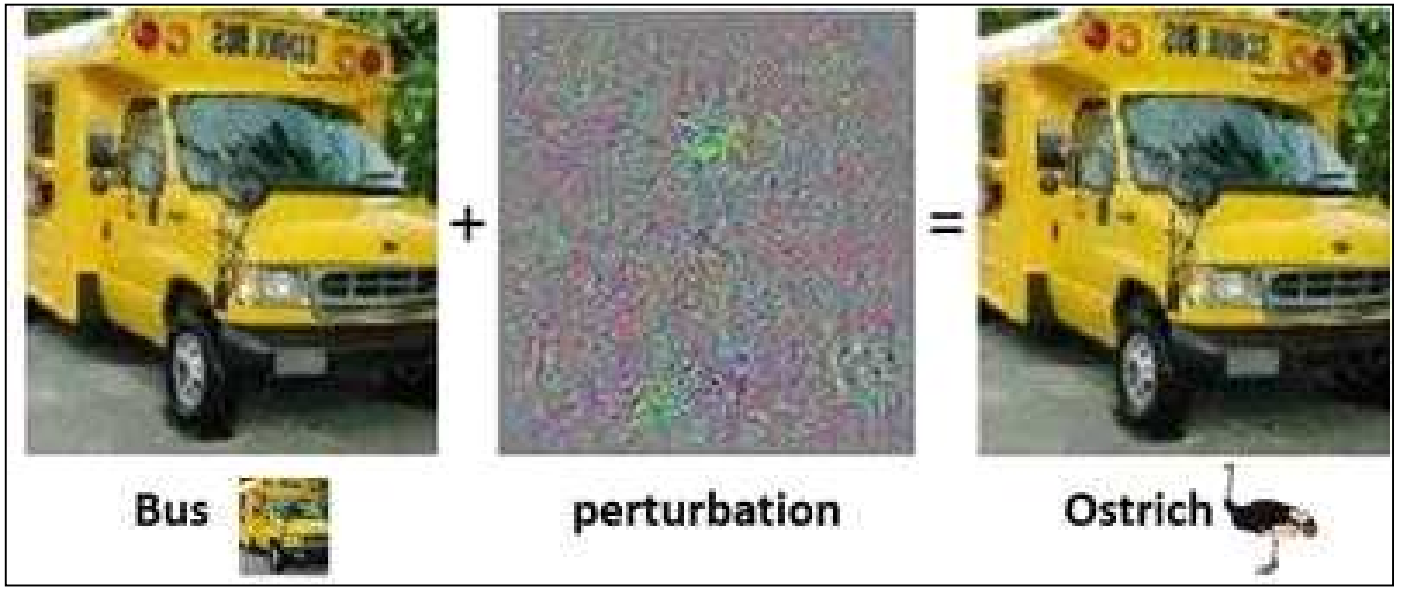
오리처럼 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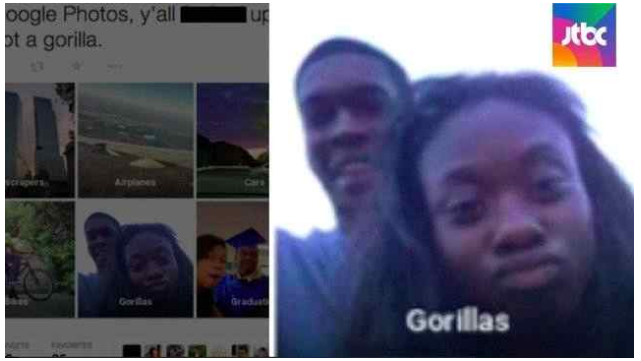
오리처럼 움직이고,
오리처럼
꽥꽥거리고,
오리처럼 배설하지만
진짜 오리는 아닌,
기계 오리, 기계지능



기계의 인간화 = 기계 +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거울


+
=
Bus
perturbation
Ostrich


oogle Photos, y'all
t a gorilla.
jtbc
Goril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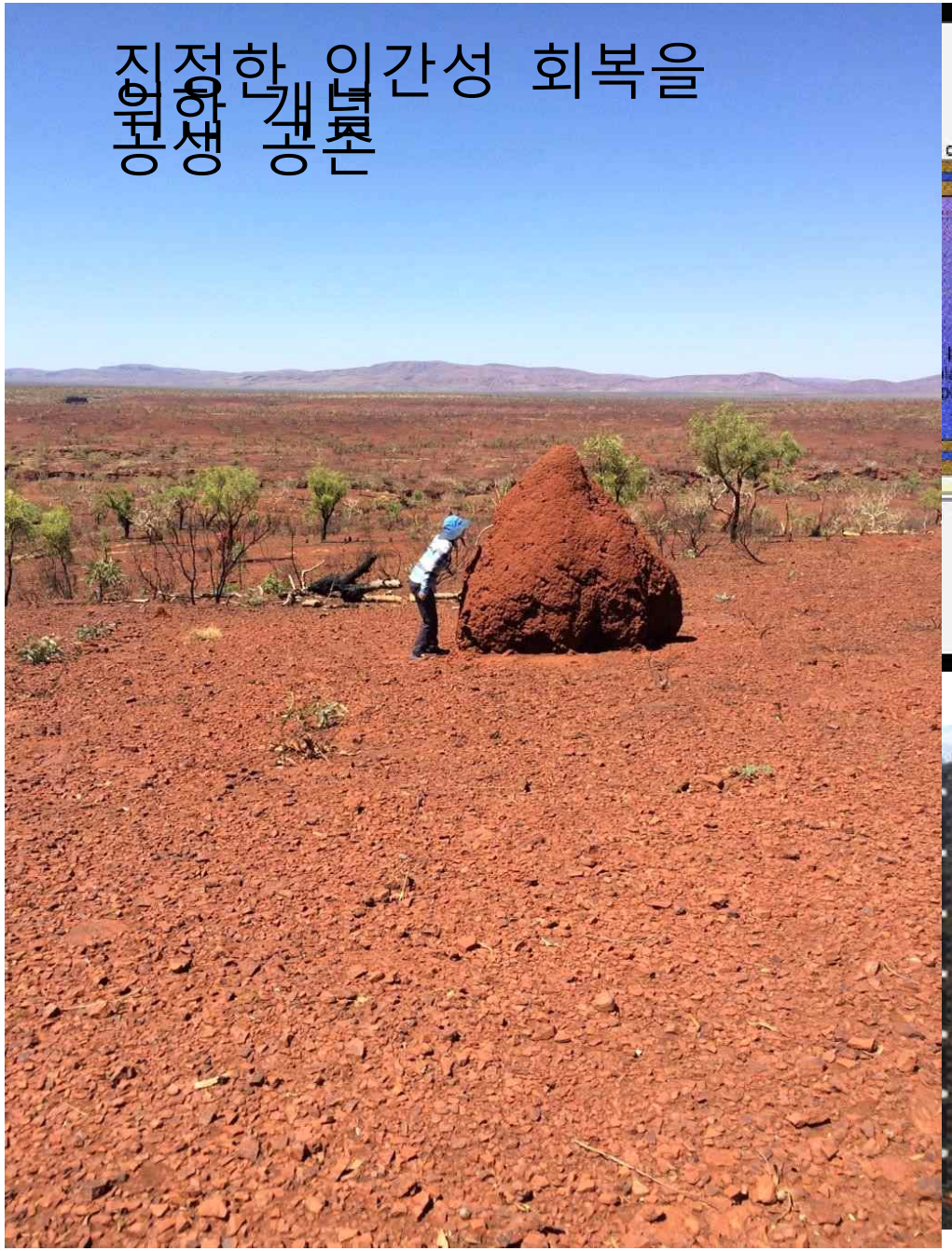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이르는 이론적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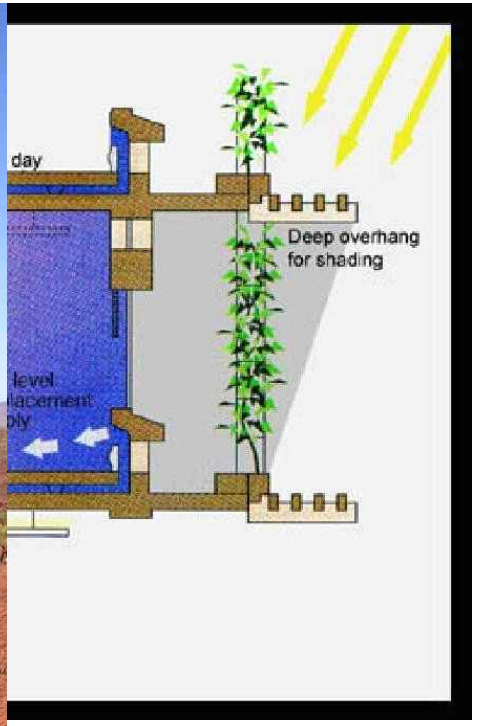
- 차별과 배제의 정치학에 대한 극복
- 페미니즘 이론, 탈식민주의 담론, 장애학, 동물연구, 사이보그 이론 (헤러웨이)

- 근대 휴머니즘이나 위계적 '인간' 개념이 어떻게 성별이나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를 기반으로 여성, 노예, 인종, 장애인과 같은 '다른' 인간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노예제, 우생학, 집단학살과 같은 야만적 행위를 정당화했는지 폭로

동물행동학에 부는 바람

지정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개념





원래 인간은

포스트휴머니즘적 사고를 하는 존재

By shaners becker from seattle, USA - ant nest excavation, CC BY-SA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5724107

포스트휴머니즘은
소재주의를 부르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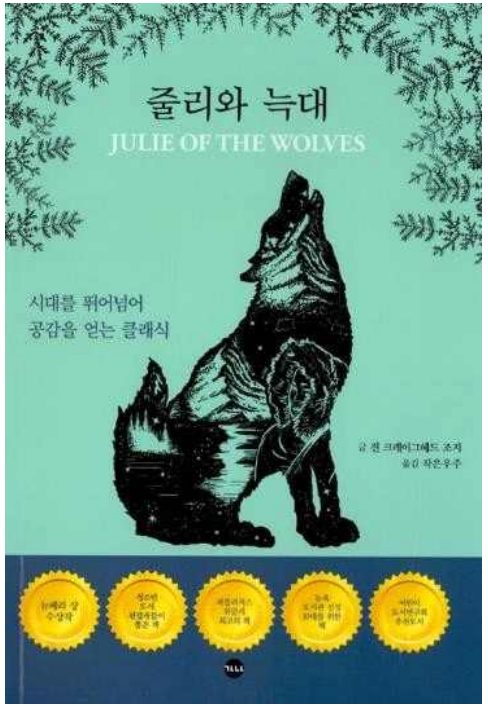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사건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드리안 하슬렛데이비스(앞 여성)가 매사추세츠 공대(MIT) 생체공학 전문가인 휴 헤어 교수팀이 만든 스마트 의족을 달고 올해 3월19일 테드(TED) 콘퍼런스 무대에 섰다. 그가 다리를 잃은 뒤 처음으로 선 무대다. AP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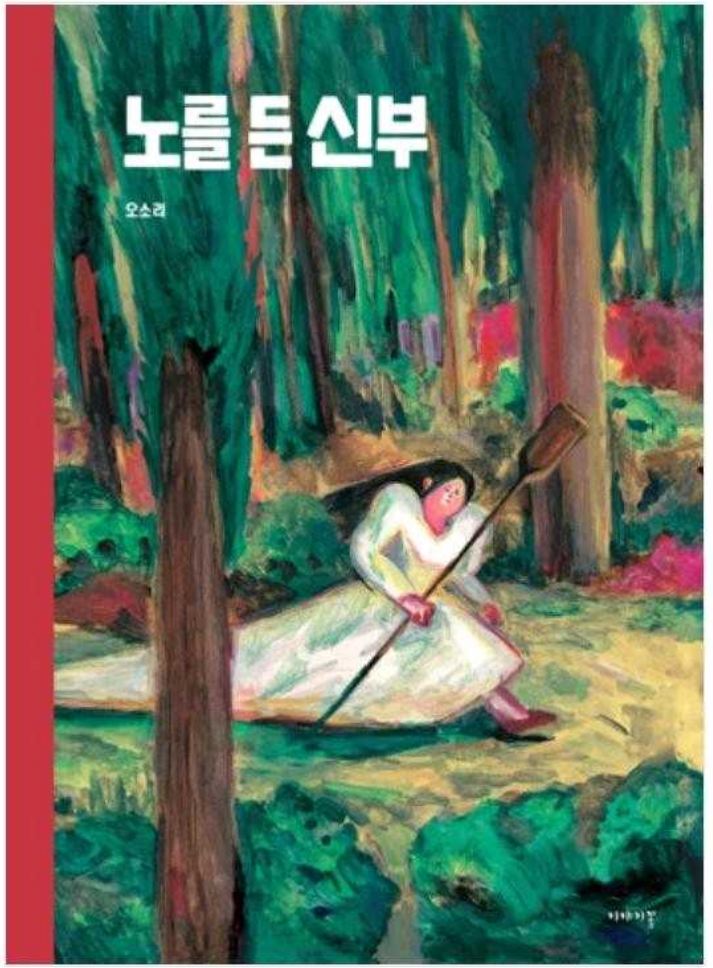
포스트휴머니즘과 인류세

. 제임스 러브룩의 가이아 이론

. 진행상황은 암울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가장 그것 다운 것!





박 수 ^^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여름 학술대회

그림책과 포스트 휴먼

– 가능성의 미래를 위한 상(환)상 연습으로써 읽기/보기

발표 : 한윤아(한국예술종합학교)

토론 : 김시아(김순녀,경기대학교)

가능성의 미래를 위한 환상 연습으로써 읽기/보기
- 김동수, 권정민, 소윤경의 그림책

한윤아(시각예술연구자)

목 차

1. 서론
가. 이론적 배경
나. 아동문학/그림책과 신유물론, 그리고 '환상적인 것The Fantastic'
2. 본론 1 – 사물로 매개된 '환상적인 것'의 재현: 김동수
3. 본론 2 – 동물, 식물과 차이(적대)를 통합하지 않는 관계 맺기: 권정민
4. 본론 3 – 이종異種들이 결합하는 유토피아: 소윤경
5. 마무리하며

1. 서론

가. 이론적 배경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시작될 것이다.
언젠가
나의 화첩을 펼쳐보게 될 그들에게
부디,
희망이 있기를 바란다

- 소윤경,『콤비』[1)]

파국의 풍경을 보고 있는 이가 남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그들에게 '화첩'을 남긴 화자는 이 '책'을 받아볼 이가 혹시 인류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

동시대 우리에게 속속 도착하는 메세지들은, 앞으로 몇 십 년 안에 고갈될 자원의 양을 보여주는 그래픽, 사막화된 땅의 면적과 지구의 온도에 대한 숫자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생물의 모습, 멸종 위기종의 증가를 보고하는 자료들을 첨부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들은 이미 넘쳐나는데, 즉 녹고 있는 얼음 위에 고립된 북극곰,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떠다니는 바다, 썩지 않는 쓰레기들의 창궐을 보여 준다. 대중적 경고의 메시지는 현실화되었다.

1) 소윤경,『콤비』문학동네, 2015

올해 들어 신문1면을 장식한 기후위기의 보도사진은 몽골발 북경의 황사, 일본의 홍수, 북미의 폭염과 대형 화재 등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대한 팬데믹의 지구를 '이미' 살고 있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2]는 이런 시대를 도망갈 곳이 없는 '잔인무도한' 상황으로 표현한다. "아마도 인류세라는 명칭에 걸맞은 잔인무도함은 사람과 다른 생물들을 위한 피난처(레퓨지아)[3]의 장소와 시간을 파괴하는 것에 있다."[4]

인류세는 과학의 용어이지만, 인문학에서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상용어로 어느 정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류세는 지질학적 변화와, 생물종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인자로 인간과 인간의 행위의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시대를 말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지구 환경의 시스템과 생명의 자정 능력의 힘이 미처 발휘되기 전에, 파괴력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인간의 능력'이 이를 잘 처리하여,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의심받는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화두는 팬데믹 재난 이후의 상황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암묵적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떠올리는 말이다. 그러한 염세적 전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거의 삶을 단절시키고 총체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양면성이 있다. 한편에는 팬데믹 이전부터 슬슬 떠오르던 '4차산업혁명', 즉 기술중심 전환으로써의 자본의 요구가 있다. 다른 한편에는 인류 및 자연시스템의 긴급함을 경고하며 자본과 결탁한 기술 문명을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 이 둘의 목소리는 상반되나 양쪽 다 비슷한 단어를 쓴다. 포스트-, 전환, 그린, 혁명 등등이 그것이다.

비판적 입장에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담론은 '신유물론'[5]이다. 이는 하나의 입장과 사조는 아니고, 여러 대안의 철학적 제안들을 약한 연결고리로 묶어 '신유물론'의 사유로 통칭한다. 유기체를 비롯한 사물과 물질에 대한 사유 방법, 즉 철학적 유물론이라 부르는 담론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줄곧 있어왔지만 학자들은 '신유물론'을 그것과 구별 짓는다. 신유물론이 기후 위기로부터 촉발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의 발달이 자연 시스템을 보충할 수 있다거나, 모성적 신적 자연이 생태적 해결을 줄 것이라는 낭만적 서사와 결이 다르다. 다양한 신유물론의 사유 흐름의 공통점은 인간 중심주의, 특히 사유와 정신적 우위성에 대해 대척에 서며, 물질, 객체, 자연, 비인간의 행위성와 역능을 조명한다. 따라서 인간은 어떠한 이해나 해석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물질과 자연의 '행위 능력'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거기서 부터 이것이 인간의 행위성과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를 가늠해야 한다.

그러나 '신유물론'으로 분류되는 몇몇 저서들을 읽다보면, '주체subject'가 아니라 '대상object'이었던 물질들이 활기와 생기를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행위한다는 그런 인식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기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자칫 언어 유희로 느껴질 수 있다. 또 기존에 있었던 고대 애니미즘의 믿음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기 힘들어진다. 다른 말로,

---

2)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생물학자, 과학학자, 문화비평가. 남성/여성, 인간/동물, 유기체/기계 같은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고 종의 경계를 허무는 전복적 사유로 명성이 높다.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 반과학주의를 비판하고,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다학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사상의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1944년생으로 콜로라도대학에서 동물학, 철학, 문학을 전공하고 예일대학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캘리포니아대학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의식사학과 석좌교수이다. 저서로 『s사이보그 선언』『반려종 선언』『영장류의 시각』『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겸손한_목격자@제2의_천년.여성인간ⓒ_앙코마우스TM를_만나다』『한 장의 잎사귀처럼』 등이 있다. (『해러웨이 선언문』 2019저자 소개)

3) refugia, 급격한 기후변화기에 비교적 기후변화가 적어 다른 곳에서 멸종된 생물들이 살아 있는 지역

4) 도나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 김상민 옮김, <문화과학> 97호, 2020

5) "신유물론의 대표적인 경향들로는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캉탱 메야수 등의 사변적 실재론,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도나 해러웨이, 로지 브라이도티, 애나 칭 등의 페미니즘적 포스트휴머니즘, 제인 베넷의 생기론적 유물론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 지점은 아마도 물질, 객체, 자연, 비인간의 행위성에 대한 것이다." 김상민, 김성윤 「물질의 귀환, 인류세 담론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신유물론」, <문화과학> 97호, 2020

물질의 세계가 '담론화'됨으로써 도리어 극단적인 관념론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는 우리가 '유물론'이라 말할 때 항상 떠올려왔던 '사적 유물론'[6]과 같은 비판 이론이 가진 정치성, 즉 세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데서 오는 모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신유물론'이 가지는 사유의 전복을 차용하면서도, 어린이문학을 읽고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보는 행위를 통해 세계에 개입하는 계기를 좀 더 밀어붙이기 위해 '환상 연습'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 아동문학/그림책과 신유물론, 그리고 '환상적인 것The Fantastic'

우선, 신유물론의 사유는 어린이라는 주체성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제인 베넷Jane Bennett[7]의 저서 『생동하는 물질』[8]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구절이 나온다. (강조는 필자)

"생기적 물질성은 재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생기적 물질성에 대한 생각의 한 형태를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활력있는 대상으로 가득한 세계에 대한 어린 시절 경험 속 표현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의미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앙리 베르그송이 '자연의 자발성에 대한 믿음'이라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9]

아동문학연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피아제의 '아동물활론'이라는 개념이 익숙하다. 물질에 '생동하는 정신(아니마)'이 깃들어 있다는 고대의 '물활론(애니미즘)'은 유물론의 계보이다. 인간의 특정 시기, 약 7세 이전에 원시적 물활론이 작동한다는 피아제의 논의는 위의 인용 문장과 일견 겹쳐지는 듯하다. 그러나 제인 베넷의 개념인 생기적 물질성은 그러한 계보와 다른 면이 있다. 생기적 물질성은 "사물에 물리적 신체에 들어가 그것에 영혼을 불어넣는 별개의 힘" 즉 '외부적 생명력'(혹은 '아니마')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생명이 없는 대상에 활기를 감지하는 것을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각 능력'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피아제의 '아동물환론'에서는 애니미즘이 논리적 사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고, 인간의 '발달'이 진행되면 이러한 물활론적 지각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대신 신유물론의 사유를 빌리면 어린 시절의 이러한 '지각'은 성인이 되면서 '잃어버린 능력'이 되었다고 뒤집어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의 지각 능력, 특히 물질 시스템을 인지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필두로 한 어린이들이 기후 위기의 담론의 가장 적극적인 액티비즘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흥미롭다.

신유물론의 주제, 동물, 식물, 사물 등 비인간이 주체성을 갖는 이야기를 아동문학에서 찾아보

---

6) 마르크스주의의 근간인 된 변증법적 유물론. 사회의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사유를 포함한다.

7) 미국의 정치이론가.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며, 생태철학, 예술과 철학, 미국 정치사상, 정치적 수사학, 동시대 사회이론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 대한 질 들뢰즈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적 유물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학자로, 인간중심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물질의 힘을 포착하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인간의 태도를 전환하고자 한다.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2010)은 그러한 생기적 유물론에 관한 관심사를 집대성한 책이다. 그 밖의 저서로 『밀려듦과 흘러나감』(2020), 『소로의 자연』(2002), 『근대적 삶의 황홀함』(2001), 『신념과 계몽을 생각하지 않기』(1987) 등이 있다.(『생동하는 물질』2020 저자소개)

8) 제엔 베넷,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옮김, 현실문화, 2020

9) 같은 책, 8p

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의인화, 즉 ‘짐승이나 초목이나 무생물을 의인화하여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동문학 고유한 특징”[10]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문학의 장에서 그동안 다루어졌던 동물, 식물, 사물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 신유물론의 사유와 연결시키기 어렵다. 그 이유는 동물, 식물, 사물이 그 자신을 지시하기 보다는, 동물, 식물, 사물의 탈을 쓴 인간의 삶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약간 옮겨, 동물, 식물, 사물의 현현을 다룬 문학 장르에 관한 것으로 가져가 보려 한다. 동물, 식물, 사물의 이야기는 장르적으로 ‘환상 문학’의 영역에 대부분 걸쳐 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사유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초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츠베탕 토도로프가 ‘환상 문학’을 분류하는 기반을 살펴보자.[11] 토도로프는 ‘환상 문학’을 '경이 문학’이나 ‘알레고리’와 구별한다. 어떤 이야기가 ‘환상 문학'이 되려면, 독자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머뭇거림’의 정도가 중요하다.[12] 마지막까지 남겨진 해석의 ‘머뭇거림’은 불안을 만들고, 이 불안이 다시 서사에 기입되는 것이 ‘환상적인 것’의 핵심 요소가 된다. 토도로프가 환상 장르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이 서사의 내적 구조가 아닌, 독자와의 관계성-지각, 감정의 반응-에 두는 점이 독특하다. 그는 환상 문학을 정의하기 위해 인접 장르를 먼저 구별해내는데, 가장 먼저 분리된 것이 ‘알레고리’의 영역이며, 우화는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양식[13]이다. ‘요정담fairy tale’이라 불리는 동화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환상적인 것'에서 분리된다.[14] 동식물이 노래를 하면, 요정이 화음을 맞추는 세계는 초현실적이긴 하지만, 서사의 내적 논리 안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결성이 있다. 즉, 독자는 저기 무지개 너머에 저런 나라가 있더라, 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이미 받아들였고, 따라서 요정담의 자율적 이야기 세계 안에서 어떤 머뭇거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토도로프의 ‘환상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가져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환상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의심’ ‘불안정'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의심을 무의식에 가라앉은 개인 욕망의 요동침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불안정은 독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는 사회, 자연과의 연결, 반응, 관계성의 단초가 된다. 페미니스트 문학이론가인 로즈메리 잭슨[15]의 저서 『환상성-전복의 문학』[16]은 그러한 생각을 더 밀어붙이다. 로즈메리 잭슨은 “사회적 구조와 규범들이 우리 내부에서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것은 무의식이며, 따라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다시 관심을 돌림으로써 우리는 사회와 개인 사이의 관계들이 결정되는 방식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7]라고 쓰면서 환상 문학의 가능성을 확장한다.[18] 즉, 환상

---

10)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도서출판 한길사/최미경, 2019.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 - 마해송 동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에서 재인용

11) 츠베탕 토도로프, 『환상문학서설』, 최애영 옮김, 일월서각, 2013. 토도로프는 리얼리즘 문학에 비해서 연구되지 않던 환상문학을 문학장르로써 최초로 체계화했다.

12) 예가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보았다. 동물, 식물, 사물이 갑자기 말과 행위를 하는 등, 낯설고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야기 안에서 낯선 사건이 끝내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환상문학이다. 예를 들어 책상 앞에 놓인 화분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서 깜짝 놀라며 귀를 의심하는 주인공이 있다. 정말 식물이 나에게 말을 건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가운데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번엔 화분이 하는 말임을 똑똑하게 들었다. 그 때 언니가 방 안에 들어온다. 언니가 들어오자 화분은 다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놓여있다. 언니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주인공을 탓한다. 이 때 주인공과 독자는 고민에 빠진다. 과연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서사에 말미에 주인공이 낮잠에서 깨어난다면 그녀가 보고 들은 것은 '꿈 속의 일'이 되며 의심은 해소된다. 혹은 사실 언니가 화분 밑에 녹음 장치를 몰래 숨겨놓았고 주인공을 가스라이팅하려는 의도가 밝혀진다면 이는 추리 소설로 마무리된다. 이 둘은 '환상 문학'이 아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외출했다 돌아오니 화분이 스스로 창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기이한 요소는 마지막까지 어떤 현상인지 해명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이다. 이것이 '환상 문학'이다.

13) 예를 들어 '이솝 우화'의 동물, 식물, 사물의 세계는 인간의 어리석음, 혹은 덕을 말하기 위한 알레고리이다.

14) 토도로프의 분류에 의하면 '경이로운 것the marvelous'이 된다. 신기한 현상으로 놀라움을 주지만 서사 안에서 '있을 법한'일이며, 의심을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다.

15) 영국 워윅 대학교에서 영미.유럽문학을 전공하고 요크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영국 국내외 여러 칼리지 등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쳐왔다. 지은 책으로 <환상성 - 전복의 문학>, <붓다의 눈>, <떠나가는 어머니들> 등이 있다.(『환상성-전복의 문학』2001 저자소개)

16)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을 인간의 심리적 작동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영역의 구성물로 보는 것이다.

보수적인 아동문학은 근본적으로 '환상적인 영역' 즉, 낯섦, 의심과 머뭇거림을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다. 도리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해법이나 여러 서사적 장치의 요구에 직면한다. 그런 낯섦, 의심과 머뭇거림은 새로운 지각으로써 환기될 수 있는 데, 아동문학의 보수화 경향은 자연 세계에 대한 안정적이고 매끈하게 봉합된 질서만을 반복적으로 재현하여 이런 가능성을 봉쇄한다.

근래 어린이 문학과 그림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과 생태에 관한 주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다루고 있는 소재와 표현의 스펙트럼도 넓다. 객관적 지식으로써 동식물을 다루는 도감책에도 어김없이 '멸종 위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추세다. 인간이 다른 종을 착취해온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는 서사(조원희의 『이빨사냥꾼』2014, 안신애의 『멋진 하루』2016, 진경, 진주의 『우리, 집』2015), 자연과 생태의 복원력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이야기(김장성, 유리 『수박이 먹고 싶으면』2017, 장석주, 유리 『대추 한 알』2015, 재난, 파국의 이미지와 긴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재현(유리, 『돼지 이야기』2013, 이명애, 『플라스틱 섬』2020) 등 다채롭다. 이런 작품들의 의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지구 시스템의 위기를 날 것으로 박제한 이미지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서사와 조금 거리를 두고자 한다. 그보다는 '신유물론'의 사유들이 요청한 비인간 객체들(동물, 식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각, 그리고 '관계 맺기'에 단초를 주는 작가들의 작품들 주목한다. 그 지각은 기존에 없던 정동affect이기에 이상하거나 낯설고, 약간 두려운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김동수, 권정민, 소윤경 작가의 작품들이다. 구체적으로 작품의 어떤 면을 보고자 하는 지 계속 상술하고자 한다. 우선 '신유물론'의 사유와 환상적인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미지-서사 전략과 재현을 말하는 것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김동수, 권정민, 소윤경의 작품이 과거 여러 동물, 식물, 사물을 다루는데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지각'을 바탕으로 한 정동을 풍기고, 관계성의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동물, 식물, 사물의 서사를 알레고리적인 것이 아닌, '환상적인 것'으로 재현한다(김동수의 작품들). '환상적인 것'으로 재현한다는 의미는, 이성으로는 즉각 해석되지 않는 요소를 남겨두되, 이런 기이한 감정이 개인 경험보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으로부터 비롯되었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인간과 동물, 식물, 사물의 관계성을 표현함에 있어 '적대'[19] 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다(권정민의 작품들). 적대란 존재들 사이의 차이와 불균형이 근본적으로는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태이다. 또 하나는 미래를 현실에 근거를 둔 '환상적인 것'과 감각으로 재현하면서, 낯선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한다(소윤경의 작품들). 이 작품들은 인간과 동물, 식물, 사물 사이의 동등한 역량의 배치를 보여주는 지 고려하고, 여기에 더해 특히 '사물'의 생기를 감지한다. 언급된 작가들은 다작을 하진 않지만, 자신의 작업을 통해 일관된 태도를 밀어 붙이며 변주하기 때문에 일종의 작가론의 다발로 보아도 무방하다.

---

17) 같은 책 p15

18) 예를 들어, 19세기 대표적인 환상 양식인 '고딕소설'은 당대 사회의 억압된 것의 귀환과 연결된다.고딕소설에서는 대저택의 유령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일상을 흔드는 기이한 현상이 여성과 소수자 등장인물과 연결되어 묘사된다. 이를 당대 이성/규범/남성적 근대성의 전환에 따른 비이성적/비규범/여성-소수적인 것의 귀환으로 해석한다.

19) 샹탈 무페의 급진 민주주의의 논의에서 빌려온 용어로, 사회적 주체들의 '차이'의 근본적인 제거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태를 말한다. 샹탈 무페,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 옮김, 후마니타스, 2007 참조

2. 본론1 -사물로 매개된 '환상적인 것'의 재현: 김동수

"그 꽃가루의 배열, 다른 경우에는 지극히 평범했을, 대량생산된 그 플라스틱 병마개의 있을 수 없는 독특성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앎"(p42)

"비인격적 정동의 현전을 감지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다."(p23)

- 제인 베넷, 『생동하는 물질』

김동수의 그림책『감기걸린 날』(2002)에는 엄마가 장만해준 점퍼에서 삐져나온 깃털에 사로잡힌 아이 '나'가 등장한다. '나'의 꿈에서는 (어린이책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던) 제법 기괴한 이미지가 이어진다. 온 몸에 털이 빠진 끝도 없는 오리떼가 '나'를 향해 몰려드는 것이다. 아이는 어떠한 말로 오리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대신, 오리의 요청을 성실하게 들어준다. 점퍼의 털을 하나하나 뽑아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리 떼 하나하나에게 다시 심어주는, 지루한 과정에 대한 반복 묘사가 이어진다. "열심히 열심히", "마지막 한 마리까지." 이 과정은 아이가 오리와 함께 놀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밤새 오리 떼와 신나게 논 '나'는 감기에 걸린다. 엄마는 이불을 차고 잤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진단을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그 때 바람이 불어 점퍼에서 깃털이 하나 삐죽, 빠져 나온다. '나'는 분명히 깃털을 오리들에게 주었음을 읊조린다.

점퍼에서 삐죽 나온 깃털은 서사를 지배하는 사물이다. '나'는 왜 그 사물을 오래 생각하다 잠이 들었을까? 아이는 오리털 점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TV, 책, 혹은 어른들의 대화에서 보고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을 보자면 이 책이 제작된 2002년에 한국의 동물권 운동은 개를 식용으로 하지 말자는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20]으로 액티비즘에 대한 넓은 정보 공유나 사회적 합의가 적었던 시기였다. 즉 동물성 제품에 대한 반대, 비건(채식주의자)이 덜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주인공 '나'는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에서 세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제인 베넷에 의하면 이러한 순간은 "우연하게 일어나며, 주체의 예기적 기민성"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 '나'의 작은 생각은 눈덩이처럼 커져 꿈의 행동으로 연결되지만, 꿈은 죄책감을 해소하거나 덜어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 도리어 '작은 깃털'이라는 물질은 계속 삐져 나오며, 아이는 엄마의 말을 수긍하지 않는다. 마침내 초록색 점퍼를 벗어 던진 '나'가 깃털 바구니를 들고 나아가는 '후일담'이 그림책의 면지에 표현된다. 이 후일담은 주인공 소녀가 겪은 일이 꿈이 아닐 지 모른다는 개연성을 남겨둔다.

오리 깃털을 매개로 보여준 김동수의 사물에 대한 감각은 『천하 무적 고무 동력기』(2005)나 『잘가, 안녕』(2016)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잘가 안녕』에서는 길가에 버려진 동물 사체의 조각을 수거하는 할머니가 등장한다. 로드킬 당한 동물의 터져 나온 내장, 사체의 조각들을 꿰매는 주인공(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의 재현은 또 역시 기괴하다. 할머니가 '(동물 사체라는) 사물의 조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한 고통의 정동은 다시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열심히 열심히"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모으려는 반복적 행위로 이어진다. 이야기 말미의 '환상적인 것'의 등장은

20) 대표적인 동물권 단체 KARA의 전신인 '아름품'이라는 작은 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해이다.

서사의 전체를 지배하는 리얼리즘의 서사를 뒤흔든다. 오리떼가 (『감기걸린 날』에서 오리 깃털을 단 그 오리일지도 모르는) 바느질 자국이 그대로 나 있는 동물의 사체들을 운구하는 장면이다. 그들이 나아가는 물길에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연꽃이 도열해 피어 있고, 새벽의 어스름한 빛을 받아 떠내려간다. 인간이 동물의 몸을 파괴했지만, 결코 바스라지지 않는 (영혼이 아닌) 사물들의 영원한 현시로 이어진다.

김동수 작가의 전작은 하나의 세계(유니버스)를 이루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각 권에서 반복되는 이미지 요소 때문이다. 『감기걸린 날』 11쪽에는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어린이의 얼굴들과 사물 요소의 선긋기가 나온다. 그 중 첫번째 동그란 검은테 안경의 남자 아이는 비행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차기작 『천하무적 고무 동력기』(2005)의 '나'임이 나중에 밝혀진다. 이 책의 주인공은『콘트리트 유토피아』[21]를 쓴 박해천이 묘사한 바 있는[22] 소위 '열쇠 소년'이다. 80년대 이후 아파트 키드들에게 흔했던 캐릭터인데, 맞벌이 부모를 두어 하교 후 집에 맞이할 어른이 없는 어린이들이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일은 자주 볼 수 있었다. 혼자 어렵게 고무동력기의 '여러 조각'들을 조립하는 과정이 또 "열심히 열심히" 묘사된다. 소년은 완성된 비행기를 들고 신나게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러나 아이의 놀이 상상은 현실의 근거 없는 무지개 나라가 아니라, 한강, 남산 타워, 테마 파크(89년 롯데월드 개장), 동물원(88년 서울랜드 개장) 등 88올림픽을 전후한 서울의 '리얼한' 공간들을 정확히 지시한다. 이 책에서도 역시 괴기스럽기까지 한 '환상적인 것'이 어김없이 출몰하는데, 난데없이 아이에게 끼어 든 '한강의 귀신들'이다. 머리 풀고 소복을 입은 세 명의 여귀들의 등장에 소년은 놀라고 무서워하지만, 작가의 그림은 그녀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놀이 요소로 녹인다. 다른 중요한 이미지로 (역시 뜬금없이) '코끼리'가 등장한다. 도시 안에서는 동물원의 놀이 요소로, 엑조틱한 볼거리로 살고 있던 존재도 아이의 '환상적인'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난다. 현실의 물적 조건을 바탕으로 펼쳐진 외로운 아이의 시각적 상상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비평적 기능을 얻게 된다. 도시의 발전과 중산층의 풍요로운 성장 안에서 억압된 객체로써의 자연, 연결이 끊어진 외로움, 한강에 수몰된 전근대적 존재들이 귀신으로 귀환하는 장면들이다.

3. 본론2 -동물, 식물과 차이(적대)를 통합하지 않는 관계 맺기: 권정민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죠?"

- 그레타 툰베리,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중

기후 위기의 시대에 가장 인상적인 발화자의 형상은 그레타 툰베리이다. 그녀는 어른도, 남자

21) 『콘트리트 유토피아』 박해천, 자음과 모음, 2011. '아파트'를 중심으로 70년대 이후 남한의 중산층의 성장과 그들의 문화를 분석한 비평서

22)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열쇠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고 아파트에 살아서, 목에다 열쇠를 걸고 등교해서 하교하면 제 손으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애들을 가리켰죠. '아파트 키드'란 개념은 이런 소년들의 이미지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어요." – 프레시안 기사. 「'올라가던' 한국은 끝났다…월세방-대출 지옥에서 '청춘'은?-한윤형·박해천의 '아파트 키드의 생애'」, 안은별 기자

도 아니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발달 장애를 가졌다고 알려져 소위 '정상성'의 범주 바깥에 있는 존재다.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들어보면 그녀의 목소리는 설득의 화법이 아니라 분노의 화법을 가졌다. 실제 그녀는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고, 표정을 숨기지 않고, 예의를 갖출 줄 모르며, 비타협적이고, 직설적이다. 근대 이후 이런 어린이의 형상은 대부분 훈육해야할 대상이었고, 근래 들어 기껏해야 '개성을 인정해줘야 할' 자리는 얻었을지 언정 '경청해야 할 목소리'로 보여 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무후무한 캐릭터인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의 태도를 다원성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요소를 '인정'하는 관계성, 즉 '적대'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생산 수단 소유의 있고 없음으로 갈리진 '계급'의 관계, 성차를 기반으로 갈라진 '젠더' 관계, 주인과 노예, 종주국과 식민지가 만들어낸 식민적 관계 모두 쉽게 화해하거나 통합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등'의 규범은 차이가 발생한 조건을 살피며, 동시에 그것을 중간 지점에서 기계적으로 화해시키지 않는 것이다. '적대' 그 자체가 급진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른과 어린이라는 관계, 인간과 동물, 식물, 사물과의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는 분명 힘을 발휘한다. 그레타 툰베리가 어른을 '탈취자' '뻔뻔한 자'로 규정하며 "실망했다"고 공격할 때, 비로소 발화하는 대상의 역량의 문제를 사고할 수 있게 된다.

권정민은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2016)를 통해 생태 파괴의 문제를 다루며 등단했다. 이후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2019), 『이상한 나라의 그림 사전』(2020)을 잇따라 펴내면서, 동물과 식물의 존재와 인간의 관계는 줄곧 그녀의 주제로 심화된다.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에서 동물 '멧돼지'는 글을 이끌며 명시적으로 자신의 동족에게 전하는 지침서를 써내려 간다. 권정민의 그림은 김동수보다 좀 더 리얼리즘에 가까운 데, 이는 카메라의 시점과 같은 원근법을 활용한 사진(혹은 영화)의 재현을 닮았다. 대부분은 화면은 중립적인 롱샷long shot이지만, 몇몇 장면은 사람 눈높이의 시점샷point of view shot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의 멧돼지를 바라보게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묘사는 명시적이고, 북악스카이웨이, 청계천, 도심의 여러 장소와 건물의 뒷편, 서울역 인근 고가, 마침내 아파트 단지까지 이어진다. 글을 읽지 않고 이미지를 연결시키면 도심에 출현한 멧돼지를 따라가는 다큐멘터리가 된다. 여기에 나레이션의 역할을 하는 멧돼지의 목소리가 들어서면 이미지 서사의 균형이 깨진다. 책에서 글은 지면 속에서 이미지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영역을 이룬다. 즉, 멧돼지는 인간의 시선에 포착된 도심의 침입자라는 관습적 재현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로 친구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만큼 자신만만하다. 멧돼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스쾃[23] 운동을 하는 '적대적' 무정부주의자의 태도를 닮았다.

멧돼지는 현실에서 실상 골칫거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생태 문제를 이야기하기위한 공감대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혹은 멧돼지는 생태주의 서사 안에서조차, 귀여운 친구나 공생하는 반려, 혹은 돌봐야 할 대상으로써 자리 잡지 않았다. 멧돼지 가족은 '서바이벌' 하는 중이며, 어쩌면 점령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다. '존재 자체'의 인증이 일어나는 중이다. 이렇게 권정민 작품에는 동물, 식물이 적대적 관계로 설정되어 인간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인간은 세계를 파괴하는 중이지마, 이를 비평하는 이는 '동물(혹은 식물)'이어서 도덕적 우월성까지 가진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는 외래 수입종인 알로카시아가, 배를 타고 건너와

23)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점거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스쾃(Squat)이라 한다.

고향이 아닌 세계에서 살게 되는 과정을 묘사한 책이다. 작가가 원래 고려했던 제목 중 하나는『당신의 착각』이었는데, 출판본보다 좀 더 '인간 세계'에 대한 냉소적 대사로 이루어져있다. 거기다 노예선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배에 차곡차곡 쌓인 알로카시아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출판하는 과정에서 추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책 안에서 '도시의 존재'로써 비중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외래종 식물은, 세계를 사유할 하나의 자리를 갖는다.

『이상한 나라의 동물 사전』은 원래 고려했던 제목이『불온한 그림 사전』이었던 만큼, 적대적이며 전복적인 사유를 밀어붙인다. 그것은 동물과 인간의 지위를 역전시키는 사고의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간 이성의 최고의 능력인 추론, 종합하는 능력, 재현의 능력을 모두 동물이 가지고 있고, 인간은 철저히 '대상'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실험이다. 이 그림책은 계몽주의자 볼테르의『불온한 철학 사전』을 패러디한 제목과 구성으로 동시대 크레타 툰베리의 발화처럼 징후적이다. 즉, "보편 인권"의 만들어낸 계몽주의자들의 시대의 참조 문헌에, 다시 그 "권리"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비인간 존재의 목소리를 기입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4. 본문3 - 이종異種들이 결합하는 유토피아: 소윤경

> 이제 그들은 펼쳐지는 시대를 위해 또 다른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공산共産을 떠맡게 될 것이었다…(중략)…퇴비의 아이들은, 살만한, 번창하는 세계를 위한 타자들과 함께-되기의 층층으로 겹쳐진, 기묘한 실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p168)
>
> - Donna Haraway, *Staying with trouble-Making Kin in the Chthulucene*[24]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도 다른 방향의 언어들로 전용된다. '인간'의 외연을 기술적인 보충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 로봇/기계인간/복제인간 등, 고전적으로 인간을 정의하고 상상했던 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성' 확장되는 방식과 아슬아슬하게 만난다. 반면 도나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의 페미니스트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독보적인 사유를 제시한다. 근작인『Staying with Trouble(곤란함과 함께하기)』에서는 인간-종이 다른 동물-종, 포자, 곰팡이 사이의 위계는 전혀 없으며, 인간-종과 동물-종, 포자, 곰팡이가 이종교배를 통해 '어떤 유기체든 될 수 있는' 평등한 세계를 가상의 픽션 서사(SF)로 제시한다.

소윤경의 2015년 작『콤비』는 도나 해러웨이가 미래의 지구의 삶으로 제시한 이종異種들 간의 '친족 만들기'와 거의 유사한 상상력을 지녀 놀랍다. 대전쟁 혹은 재난 이후의 삶을 설정한『콤비』의 이미지들은 거대 들쥐와 손을 맞잡고 사족보행의 모습으로 "들쥐 되기"를 수행하는 인간, 다리를 잃은 파충류와 친밀한 스킨쉽을 나누는 일, 상처입은 박쥐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모습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여러 동물과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로 기대고, 껴안고, 가족을 구성한다.

소윤경은 그녀의 자서전『호두나무 작업실』[25]에서『콤비』의 그림 작업을 시작하려는 찰나, 비

24) 번역은 필자. Donna Haraway, *Staying with trouble-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ke University Press, 2016, p168* (도나 해러웨이, *『곤란함과 함께하기-쑬루세에서 친족만들기』*)

25)『호두나무 작업실』소윤경, 사계절, 2020

싼 종이에 커피를 쏟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겨울 오후, 인스턴트커피를 머그잔에 타서 홀짝이며 전지 사이즈의 판화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드로잉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때엔 고급 판화지를 주로 쓴다. 종이를 잘라서 젯소를 칠해두려던 참이었다.

순간, 머그잔을 들고 있던 손목이 삐긋했다. 아뿔싸! 커피가 종이에 후드득 쏟아졌다. 잠시 망연자실…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아니, 커피.

내친 김에 종이에 커피를 조금씩 더 흘려 부어보았다. 잘 퍼지도록 종이 양끝은 잡은 채로, 이리저리 흔들었다. 커피로 자연스런 갈색 얼룩을 만들어볼 요량이다.” (『호두나무 작업실』p101)

『콤비』는 처음에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얼룩에서 시작된 이미지이다. 이 얼룩에 <몽유도원>이라는 유토피아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작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망쳐버린 것인데, 작가는 그 흔적에서 새로운 단서를 포착하고 세계를 다시 직조한다.

도나 해러웨이는 지금은 피난처가 없는 난민-종들의 시대이기는 하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도 버리자고 한다. ‘인류세’는 이미 인간 중심의 내러티브인데다, 종말일지 모를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은 인간과 자연이라는 대상, 즉 동물, 식물,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특히) ‘지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겨우 우리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인류세에 진입하는 ‘문턱’을 서성이는 중인 셈인데, 따라서 지금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세계 종말의 시나리오로 귀결되지 않는 ‘이름’을 붙이는 일들이 중요해진다. 시대의 이름, 사건과 사안의 이름, 주체와 객체를 (다시) 명명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커피 얼룩을 보고 종이를 찢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유토피아를 그려나가는 작가의 작업과 비슷하다.

소윤경의 2020년 작, 『우주지옥도』는 병풍책으로 만들어진 독립출판물이다. 불교에서 열 명의 지옥 재판관이 끌려 온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린 <시왕도□ 十王圖>처럼, 열 명의 심판관의 모습을 각 장마다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다. <시왕도>는 그림의 윗단에는 각 심판관인 각 대왕들의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을, 아랫단에는 죄인들이 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형식이다. 그런데 『우주지옥도』에서 인간을 죄에 따라 응징 하는 심판관들은 특이하게도 식물과 동물이다. 이를테면 “동물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죽인자”는 호랑이에 의해 온갖 요리에 재료가 되는 벌을 받는다. ‘가죽이 벗겨지고 뼈와 살이 먹기 좋게 잘려지며, 펄펄 끓는 냄비물에 삶아지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구워지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인간의 잘못이 식물과 동물에게 일방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문제를 넘어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무감했던 것을 지적한다. ‘고통'의 실감을 통해 거꾸로 모든 존재들에게 감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역설한다.

5. 마무리하며

> 철학자들과 대중들은 식물에게는 감각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빛, 열, 습도, 운동, 진동 등과 관련하여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물과 인간 존재를 월등히 능가합니다.(p237)

- 루스 이리가레[26], 마이클 마더[27], 『식물의 사유-식물 존재에 관한 두 철학자의 대화』이명호 김지은 옮김, 알렙

인류세라는 표현, 한 사람의 생애의 시간은 물론,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어 버린 무량의 시간에 대한 언급은 놀라움과 당혹으로 다가온다. 인류세라는 말은 여러 생각의 기저를 뒤흔든다. 뿐만 아니라 긴급하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변화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현의 양식을 가진 예술 작품이란 그 자체로 액티비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류세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과 해법을 다루는 것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보다는 서사적, 재현적 방법들- 불균질의 생성물인 환상, 봉합되지 않는 목소리의 비어져나오는 공간의 재현 여부, 독자에게는 통합의 안정감을 쉽사리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동물, 식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각, 관계에 대한 사유가 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환상적인 것'을 감지하는 환상 연습이다. 김동수, 권정민, 소윤경의 작품은 그런 면에서 소중한 통찰을 보여 준다.

많은 비평문에서 김동수의 작화를 ‘어린이의 그림’같은 면모가 있다고 설명하곤 한다. 이는 서사의 주체가 진짜 어린이일지 모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어린이가 스스로 직관한 것에 대한 일관된 믿음과 천연덕스러운 행동력은 어른의 과학적 진단과 지식의 지배를 무색하게 만든다.

동물, 식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각은 어린이 주체들에게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림책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 될까? 권정민이 “어쩐지 식물들이 우리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저들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권정민의 인터뷰 중에서) 지각능력을 잃지 않는 일과 연결된다. 또한 동물, 식물, 사물의 민감성을 감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으로써 매력적인 매체의 가능성을 함께 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그림과 글, 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 요소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일련의 연속적인 이미지들이 서사를 이끌고, 이미지와 이미지, 글과 이미지의 변증법적 구성이 가능한 예술 장르다. 그 존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 ‘관계성’이 내재되고, 표현의 영역에서는 ‘물질’이 중요한 매체. 이는 신유물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술 매체로써 더없이 매력적인데다가 마치 도나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나 ‘반려종’ 등으로 ‘명명한’ 이종교배적 존재와도 꽤 닮았다. 이런 수사적 rhetoric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 매체는 실제적으로 글로만 이루어진 문학보다 좀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림과 글의 연동이 ‘새로운 지각’과 ‘관계성'이라는 주제를 매체-형식의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미지는 말과 언어를 갖지 못한 존재(어린아이, 외지인, 문맹인)를 독자로 휘감을 수 있으며, 이미지 안에서 객체들의 역능과 현현을 감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26) 벨기에 출신 페미니스트 철학자이다.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 세미나에 참여하여 정신분석 수련의 과정을 밟았지만, 『검경(Speculum of the Other Woman)』(1974) 출간 이후, 파리 프로이트학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재직 중이던 파리 제8대학에서도 쫓겨났다.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를 벗어나 성차를 사유한 『성차의 윤리(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1984), 『하나이지 않은 성(ThisSex Which Is not One)』(1985) 등을 집필하여 ‘성차 페미니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주요 저서로는 성차의 문제를 민주주의와 연결시킨 『민주주의는 둘 사이에서 시작한다(Democracy Begins Between Two)』(1994)를 비롯하여 『동양과 서양 사이(Between East and West)』(1999), 『둘로 존재하기(To Be Two)』(2001), 『세계를 공유하기(Sharing the World)』(2008) 등 다수가 있다.(『식물의 사유-식물 존재에 관한 두 철학자의 대화』 저자소개)

27) 스페인 바스크 대학 철학과 이케르바스크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이데거 현상학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현대 서구 철학과 식물성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주요 저서로는 『식물 생각하기(Plant-Thinking)』(2013), 『철학자의 식물(The Philosopher's Plant)』(2014), 『불의 정치학(Pyropolitics)』(2014), 『체르노빌 식물표본(The Chernobyl Herbarium)』(2016) 등이 있다.(『식물의 사유-식물 존재에 관한 두 철학자의 대화』 저자소개)

분석한 작품

김동수,『감기걸린 날』보림, 2002
- ,『천하 무적 고무 동력기』보림, 2005
- ,『잘가, 안녕』보림, 2016
권정민,『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보림, 2016
-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문학동네, 2019)
- ,『이상한 나라의 그림 사전』문학과지성사, 2020
소윤경,『콤비』문학동네, 2015
- ,『우주지옥도』바캉스프로젝트(독립출판), 2020

참고문헌

김상민, 김성윤,「물질의 귀환, 인류세 담론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신유물론」<문화과학> 97호, 2020
도나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김상민 옮김, <문화과학> 97호, 2020
로즈메리 잭슨,『환상성-전복의 문학』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루스 이리가레, 마이클 마더,『식물의 사유-식물 존재에 관한 두 철학자의 대화』,이명호/김지은 옮김, 알렙, 2020
소윤경,『호두나무 작업실』사계절, 2020
박해천,『콘트리트 유토피아』자음과 모음, 2011
제엔 베넷,『생동하는 물질』문성재 옮김, 현실문화, 2020
안은별 기자,「'올라가던' 한국은 끝났다…월세방-대출 지옥에서 '청춘'은?-한윤형·박해천의 '아파트 키드의 생애'」, 프레시안 기사, 2013. 7. 12
츠베탕 토도로프,『환상문학서설』최애영 옮김, 일월서각, 2013
최미경,「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 - 마해송 동화를 중심으로」<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19
Donna Haraway, *Staying with trouble-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ke University Press, 2016 *(*도나 해러웨이, *『곤란함과 함께하기-쑬루세에서 친족만들기』)*

「그림책과 포스트 휴먼 -
가능성의 미래를 위한 환상연습으로써 읽기/보기 -
김동수, 권정민, 소윤경의 그림책」에 대한 토론문

김시아 (김순녀, 경기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은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제멋대로 파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윤아 선생님은 “신유물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술 매체”로서 그림책 활용과 더불어 우리나라 작가 김동수, 권정민, 소윤경의 그림책을 토대로 “‘새로운 지각’과 ‘관계성’”이라는 주제를 분석하며 “동물, 식물, 사물의 민감성을 감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으로서 그림책 매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현 상황에 대한 자각과 열정적인 연구에 감사드리며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환상 연습’의 용어에 대하여

서론에서 “‘신유물론’이 가지는 사유의 전복을 차용하면서도, 어린이문학을 읽고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보는 행위를 통해 세계에 개입하는 계기를 좀 더 밀어붙이기 위해 ‘환상 연습’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는데 일반적으로 ‘상상’과 ‘환상 연습’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환상 연습’보다 ‘상상 연습’이 그림책과 상상력의 관계에서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2. ‘머뭇거림’에 대하여

토도로프의 ‘환상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환상 문학'이 되려면, 독자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머뭇거림’의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번역자 최애영이 옮긴 츠베탕 토도로프의 『환상문학 서설』에서는 ‘망설임’이라고 번역했는데 발표자께서 ‘머뭇거림’이라고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질문 3. ‘환상 문학’의 범위에 대하여

“토도로프는 ‘환상 문학’을 '경이 문학’이나 ‘알레고리’와 구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상문학’은 과연 ‘알레고리’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요?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을 장르가 아닌 양식 또는 양태(mode)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환상은 로망스 문학, 경이문학, 환상문학 등 여러 관련 장르를 파생시키는 하나의 문학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문학 평론가 조태봉에 의하면 “토도로프의 환상 정의는 이후 여러 비평가에 의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화의 재인식』, 2018:129-130) 그리고 박상재는 『한국 창작동화의 환상성 연구』에서 환상을 전승적 환상, 우의적 환상, 시적 환상, 심리적 환상의 여섯 가지로 유형화”합니다. (집문당, 1998:31-32) 그러므로 발표자 선생님의 ‘환상문학’을 토도로프의 이론적인 틀에만 맞추어 분석하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발터 벤야민이 ‘알레고리’에 주목하는 이유가 ‘모호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관념을 대체 이미지로 그린 것이 알레고리지요. 파울 클레가 그린 <새로운 천사 Anglus Novus>, 즉 사람의 얼굴과 새의 몸을 합성한 그림을 보고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철학을 알레고리적으로 제시하며 ‘변증법적 이미지’로 가시

화 한거죠. 이런 이미지가 특히 소윤경의 그림책 『콤비』에서 형상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츠베탕이 말한 것처럼 '환상문학'과 '알레고리'를 분리시키면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요?

질문 4. '보수적인(?) 아동문학'에 대하여

"보수적인 아동문학은 근본적으로 '환상적인 영역' 즉, 낯섦, 의심과 머뭇거림을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쉽게 단정 지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오덕 선생님은 리얼리즘 정신을 강조하시다가 '환상성'을 낮게 평가하셨는데 이오덕 선생님의 문학과 정신을 '보수적인 아동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야기보다 수학과 과학을 선호하는 교육환경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낯섦, 의심과 머뭇거림"이 적은 환경입니다. 게다가 서사가 분명한 이야기인데도 출판사의 지향에 따라 문화적 낯섦까지도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외국 그림책이라도 낯설지 않은 보편적인 정서를 다루는 그림책이 대부분 번역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고 다양한 출판사들이 생기면서 좀 더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는 시점입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답이 분명한 이야기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여는 "낯섦, 의심과 머뭇거림" 요소가 있는 이야기가 상상력을 키우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의 연구가 지속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5. 그림과 글이 이질적인 요소라는 문제에 대하여

결론에서 "'그림책'이라는 매체는 그림과 글, 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 요소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작동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림과 글이 과연 이질적인 요소일까요? 한자인 상형문자만 보더라도 그림이 문자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말의 '그림'과 '글'의 어원은 '긁다'에서 유래되었고, 그래픽graphic의 어원 graphia는 라틴어로 '흔적' 또는 '무늬'라는 뜻이 있는데 그리스어 γράφειν (gráphein) '쓰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과 글이 이질적인 요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정민의 『이상한 나라의 그림 사전』을 보면 글과 그림의 아이러니 속에서 작가의 비판의식이 확장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산책. 여유를 즐기며 천천히 걷는 일. 일행이 앞서 나갈 경우 줄을 잡아당겨 거리를 조절한다."라고 텍스트가 말할 때, 그림엔 개가 사람을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물이 의인화되고, 사람이 동물화된 몸짓으로 글과 그림이 대위법적으로 표현된 것이지 글과 그림이라는 언어적 개념 자체가 이질적인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글의 발화와 그림의 발화가 모순적이고 독자의 예상을 뒤엎기에 작가의 비판적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거죠. 다른 그림책을 예로 들면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는 그림과 글이 이질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발표자 선생님께서 언급한 김동수의 『잘 가, 안녕』의 할머니처럼, 현시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 나고 토막 난 동물들을 꿰매고 위령제를 올리기 위해 매일 새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소비자'로만 존중되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은 매일 무참히 살해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편리함이 아닌 삶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끊임없이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판

적 사고를 하는 그림책 작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관계 맺기’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여름 학술대회

아동문학과 포스트 휴먼

– 포스트 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발표 : 김민령(인하대학교)

토론 : 최미경(건국대학교)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SF 서사를 중심으로

김민령(인하대)

1. 서론
2. SF 서사와 장애의 재현 양상
3. 포스트휴먼 장애와 낙인의 문제
4. 포스트휴먼과 상호의존성
5. 결론

1. 서론

포스트휴먼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탄생할 사이보그, 복제인간, 디지털로 업로드된 정신, 로봇과 인공지능 등 '인간 이후의 인간'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 새로운 인간종은 인간/기계, 자연/인공, 유기체/무기체, 원본/복제 등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존재로, 지금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갖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먼 주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사유한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전망하면서 포스트휴머니즘을 기초로 삼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휴머니즘의 핵심에 놓인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천동설과 진화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거쳐 오면서 인간의 특권적 지위가 점차로 해체되어 온 과정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유럽의 백인 남성)'을 상정함으로써 형성된 휴머니즘은 인간의 자율성과 합리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며 계몽주의적 근대 형성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유럽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가 가진 권력의 문제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비이성애, 식민과 피식민, 인간과 동물 등 권력과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는 이분법적 도식이 해체되어 가다 종국에는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무의미한 포스트휴먼이 탄생한 것이다.

한편,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은 손상이나 장애를 결함으로 인식하고 치료와 극복의 문제로 간주하는 비장애중심주의를 문제 삼으며 출현한다. 장애의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을 표준으로 삼는 역사적 사회적 결정에 의해 장애가 구성된다는 관점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핸디캡으로 간주하는 사회 구조와 질서의 변화를 촉구한다.[28] 실제로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생애 주기상 필연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불완전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애를 낙인 찍고 수치심을 주는 사회 구조를 문제로 보게 되면 장애는 더 이상 결함이 아니다. 이러한 장애학 이론에 따르면 장애 문제는 인권과 복지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장애 운동은 장애인이 장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는 데로 나아가며, 극단적인 경우 장

28)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사회를 의학적으로 진단된 '이상', 즉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부전으로 이해하는 '의료적 모델'에 저항해 만들어진 대안적 이해 모델이다.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의료적 이상 및 손상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다라서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는 구분되어야 한다.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특정한 사회 안에서이다. 동일한 손상도 전혀 다른 장애로 분류되는 건 이 때문이다." 장애는 손상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에서 비롯되며 비장애 신체와 장애 사이의 구분은 명확하지도 영구적이지도 않다. 수나우라 테일러 지음 이마즈 유리 옮김,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 봄, 54쪽

애를 막거나 치유할 수 있을 때에도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근대 휴머니즘적 주체를 무효화시키는 포스트휴머니즘은 비장애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사이보그로 대표되는 포스트휴먼의 재현은 장애와 관련한 다방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사이보그 신체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놓임으로써 과학기술이 인간 정신과 신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인간의 사이보그화는 의족, 의수, 인공장기 등을 장착한 장애인과 안경을 쓰고 스마트폰을 든 비장애인을 아우른다. 그러나 인간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트랜스휴먼이 윤리적 저항에 맞닥뜨릴 때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과학은 장애의 극복을 통해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29] 장애를 가진 신체는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최전선인 셈이다.

그동안 장애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문학 작품은 꾸준히 생산 수용되어 왔으며 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과 인권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들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올바른 장애 이해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옛이야기를 비롯한 아동문학 작품들을 분석한다. 이들 논문들은 장애 이해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둠으로써 장애 관련 내용이나 장애 인물이 적절한 방식으로 그려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 목적이 뚜렷한 만큼 개별 작품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장애 관련 아동 서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판단을 목표로 한다.

아동문학 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있다. 박성애는 2000년대 장애 관련 아동 서사 작품을 대상으로 장애 아동인물의 욕망과 갈등 양상을 다룬 연구를 통해 장애 문제와 문학의 윤리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주체와 대상으로 치환해 설명하는 대신 주체의 자리에 성인·작가를, 타자의 자리에 아동·장애인을 놓음으로써 장애 문제가 아동 문학의 구조 자체에 기입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포스트휴먼과 관련한 아동문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이상희의 논문[30]은 SF 동화를 대상으로 포스트휴먼을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SF의 포스트휴먼이 현대의 물질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탐색함으로써 '상호협력적 운명공동체'를 상상하게 한다는 의미를 밝혀 주었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창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SF 서사 전반을 아울렀으며,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유영종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이현의 『로봇의 별』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논문은 SF 서사가 현재 사회의 거울로 기능하며 사회 비판적 시사점을 준다는 점을 포스트휴먼 개념을 통해 논증하였다. 또한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통해 『피노키오』 다시 읽기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 인간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끊임없이 개조 가능한 신체를 소유한 피노키오는 포스트휴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피노키오가 장차 도래할 포스트휴먼 시대의 질문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고전 아동문학의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포스트휴먼 개념이 아동문학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며 SF 서사를 뛰어넘어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물이 등장하는 아동 SF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포스트휴먼과 장애 문제를 가로질러 사유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먼이 트랜스휴먼, 즉 신체적 지적 능력이 강화된 인간

29) 현대의 웨어러블 보조기구 광고가 대표적이다. https://youtu.be/ePKuPea_mkc
30) 이상희, 『한국 SF 동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연구』, 공주교대 석사학위논문, 2018.

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도되는 경우, 포스트휴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존재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캐서린 헤일스의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31]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탈휴먼화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 최근 활발히 아동문학 장에서 활발히 창작되고 있는 SF 서사는 다양한 포스트휴먼을 재현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한편, 현실주의 서사에서는 불가능한 사고 실험을 통해 껄끄러운 문제를 대면하도록 안내한다. 장애 문제 역시 포스트휴먼 인물을 통해 재현할 경우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다가기 쉽다.

그간 장애를 다룬 아동문학 작품들은 혐오와 차별의 맥락에서 장애 아동의 이야기를 다루어왔다. 장애를 인권 문제로 다룸으로써 혐오와 수치심을 야기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추구해 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제도와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오늘날 포스트 휴먼의 관점을 통해 볼 때에도, 장애는 더이상 정상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되지 않는다. 그간 의족이나 보청기,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는 장애를 보완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신체는 인간의 신체성에 대해 새로운 사유를 요청한다. 최근 SF 서사의 안드로이드가 인간 존재에 대해 유효한 질문을 던지듯, 사이보그적인 신체 역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신체는 정상성의 결여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신체의 확장을 의미하는가. 시공간을 가로질러 장애를 바라볼 때, 장애는 여전히 곤란한 문제일 것인가.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SF 아동 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휴먼과 장애 문제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2. SF 서사와 장애의 재현 양상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은 『보통이 아닌 몸』에서 미국 문화를 분석하여 장애가 객관적이고 자명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장애란 사회적 권력 관계의 맥락 속에서 몸의 특수성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나는 신체적 장애를 절대적이고 열등한 상태 그리고 개인적인 불행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반박하려 한다. 그런 일반 통념을 대신하여 나는 장애란 재현, 즉 신체적 변화 또는 형상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몸들의 비교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결국 장애는 신체적 '비정상'의 속성, 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몸의 어떠해야 하는지 또는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규칙인 것이다.[32]

장애 이해에 있어서 장애를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관점은 장애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를 문제 삼는다. 손상과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장애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 유색인종, 성소수자, 노인과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사회가 구분지어 낙인 찍고 배제하는 타자들이다. 자유주의 휴머니즘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개별성은 보편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상과 표준'에 대한 집착은 정상과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외적 존재들을 만들어 내곤 한다.[33] 따라서 오늘날 사회-정치적 장애 개념을 정립한 장애학에서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31)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32)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지음,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15. 17쪽

자신의 역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환경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 문제를 주제로 한 아동 서사들은 대개 분명한 교육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때 올바른 인권 교육을 목표로 하는 서사는 다양한 잘못을 재현하고 교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장애 서사는 주로 비장애 아동의 교육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까닭에 근본적인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들을 서사의 주체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 인물은 비장애 인물의 고민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변화의 계기가 되는 '대상'일 뿐이다. 이런 구도에서 비장애인이 장애를 바라보고 사유하고 행동하며 변화하는 동안, 주체의 갈등과 죄책감을 초래한 장애 인물은 계속 고정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그들과 우리로 구분 지음으로써 장애인을 타자화하는 것은 담론 자체 내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34]

장애 서사는 계몽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데다 계몽의 주체가 '정상성'을 지닌 비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근대 휴머니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이 시선이나 목소리의 주체가 되기보다 타자화되어 담론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장애 서사의 창작 수용 과정에서 교육적 목표가 중시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애 당사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재현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SF의 포스트휴먼 서사는 장애인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야를 트여 준다. SF는 현실에 대한 '인지적 소외'를 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관습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35]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SF 서사는 사이보그 신체를 장애화하거나 아예 낯설고 새로운 종류의 장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장애를 재인식하도록 안내한다. SF 서사에서 재현되는 장애를 유형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일부 이야기들이 포스트휴먼 서사와 중첩될 수 있다.

먼저, 사회로부터 차별 받는 사이보그와 휴머노이드를 장애인의 은유로 간주할 수 있다. 많은 SF 서사에서 기계와 결합되거나 복제, 디지털화된 주체, 로봇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과학에 의해 탄생한 포스트휴먼을 인간과 다른 존재로 재현하고 위계화한다. 사이보그, 복제인간, 휴머노이드 등의 포스트휴먼은 그간 다양한 SF 서사에서 재현되어 왔으며 차별과 배제라는 현재 진행형 권력 문제를 폭로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현의 『로봇의 별』(2010)에 등장하는 여자 어린이 형상의 안드로이드와 기계 신체를 장착한 사이보그가 대표적이다. 유영종은 이 작품이 로봇과 인간의 갈등을 통해 근대 인본주의와 기존 윤리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로봇의 주체성에 대한 상상력을 요청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36] 서구 학계에서는 이미 로봇권과 로봇시민권에

---

33) 푸코는 근대 국가에서 인구 관리의 형식으로 생명-권력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생명권력은 '정상성 판정'의 공통 기준을 가지고 비정상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상성'은 근대 임상의학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정의하는 의료 권력이 형성되면서 핵심 개념으로 확립되었다고 본다. 근대 국가에서 학교, 감옥, 병원 등 국가 기구가 개인을 훈육하고 처벌함으로써 유능하고 생산적인 주체로 만들고자 할 때 장애인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셸리 트레마인 엮음, 박정수, 임송이 옮김, 『푸코와 장애의 통치』, 그린비, 2020 참조

34) SF 작가 김초엽은 대학에서 포스트휴머니즘 관련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인공보철물을 장착한 장애인들의 예시와 동료 학생들의 토론을 보다가 문득 자신의 보청기를 의식했던 순간을 이야기한다. "돌이켜 보면, 그건 아마도 내가 그 장소에 존재할 리 없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에서의 이질감이었던 것 같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화면 너머, 저 먼 곳 어딘가, 이 공간 바깥의 사이보그를 말하고 있을 때, 어쩌면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사이보그일 수도 있다는 어색한 깨달음."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24쪽

35) "SF는 우리에게 다른 전제에 기초한 세계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 놓은** 아이디어와 관습에 맞서도록 강요한다. 친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은, 일상 경험의 친숙한 세계를 형성하는 기초 구조물에 대해 더 결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평범한 세계, 그리고 SF 세계에 몰입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상화되어 가는 이상한 세계 사이를 오가는 이러한 움직임은,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현실**에 관해** 숙고하는 이 장르의 능력의 원천이다.(볼드체 강조-원문)" 셰릴 빈트 지음, 전행선 옮김, 『에스에프 에스프리-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arte,

36) 유영종, 앞의 논문(2017).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는 만큼 포스트휴먼 시대의 시민 성원권을 둘러싼 윤리 문제는 복잡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작품 속에서 이들 로봇과 사이보그는 비인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정체를 숨기고 살거나 추격당한다.[37] 이러한 포스트휴먼 서사들은 손상된 신체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서도 '정상성'이 결여된 존재들이 사회적 낙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장애학의 문제의식과 만난다.

그러나 소수 집단의 정치적 혁명을 지향하는 사이보그는 여성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며, 동물을 포함한 비인간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이보그 선언」의 도나 헤러웨이는 사이보그 이미지를 페미니즘과 연결해 정치적으로 호명했으며, 이후 「반려종 선언」에서는 "사이보그는 개들에 필요한 역사, 정치, 윤리에 관련된 온갖 질문들을 제기한다"[38]면서 종차별주의 극복을 주장하였다. 사이보그는 신체적 타자성을 근거로 하여 장애를 환기시켜줄 수 있지만 SF 서사에 재현된 고기능 사이보그나 로봇은 신체 손상이나 기능의 제약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사이보그 정체성은 장애인을 직접 지시하기보다는 장애/비장애의 이분법이 사라진 포스트휴머니즘 시대를 딛고 선 미래형으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보그 정체성 자체를 장애 문제와 직접 연결하기보다 사이보그의 기계-신체성이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논지를 선명하게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재은의 「내 여자 친구의 다리」[39]와 이민진의 「슈퍼히어로, 이 녀석」[40]이 있다.

둘째, 신체를 벗어나 디지털화된 주체의 진정성을 묻는 작품들도 장애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한스 모라벡의 『마음의 아이들: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나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는 인간 정신을 신체와 분리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컴퓨터의 영속성 신체 안에 살게 되는 포스트휴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의 의식을 정보 패턴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본질이 의식 안에 담겨 있다고 본다면 신체는 부수적인 기관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공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의 근본 토대가 되는 사이버네틱스 가설은 신체화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며 신체화보다는 인지를 강조한다. 켄 리우의 「싱귤래리티」 시리즈는 탈신체화한 포스트휴먼을 다룬 대표적인 SF 작품으로, 기계 속으로 업로드된 사람들과 현실 세계에 잔류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 아동 SF에서도 드물지만 탈신체 인간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남유하의 「뇌 엄마」[41]와 윤영주의 『마지막 레벨 업』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신체가 결여된 주체의 고통과 외로움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 서사와 만난다.

셋째,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가상의 장애를 통해 장애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들이 있다. 김초엽의 『원통 안의 소녀』[42]는 가상의 합성 물질에 대한 면역 질환 환자를 등장시키는데 주인공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첨단 과학기술 때문이다. '에어로이드'라는 분진형 나노봇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 난제의 해결책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필터를 장착한 '프로텍터'를 타고 다니는 주인공은 현실 세계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상황과 동일한 맥락에 놓인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만든 계단과 시각 인쇄물, 음성 안내 방송 등은 작품 속 에어로이드와

37) 최영희의 「안녕, 베타」와 「알파에게 가는 길」이 대표적이다. 시점을 달리하여 같은 서사를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두 작품은 원인간과 대체인간이라는 포스트휴먼을 통해 원본/복제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컴퓨터 기술에 의한 억압적인 사회를 다룬 사이버펑크 계열의 작품 속에서 포스트휴먼 정체성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38) 도나 헤러웨이 지음, 황희선 옮김, 「반려종 선언」, 『헤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143쪽
39) 정재은, 「내 여자친구의 다리」, 『내 여자친구의 다리』, 창비, 2018
40) 이민진, 「슈퍼히어로, 이 녀석」, 고호곤·이민진·임태운·우미옥·김명완, 『하늘은 무섭지 않아』, 사계절, 2016.
41) 남유하, 「뇌 엄마」, 『나무가 된 아이』, 사계절, 2021
42) 김초엽, 『원통 안의 소녀』, 창비, 2019.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SF 서사는 가상의 사회와 가상의 장애를 재현함으로써 '신체적 온전함'과 '장애'의 개념이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줄 수 있다. 이들 서사에서 장애를 지닌 인물들은 흔히 트랜스휴머니스트[43]들이 찬양하는 노화와 질병, 장애를 겪지 않는 트랜스휴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을 현재의 고통과 난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는 낙관론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다. 『원통 속의 소녀』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기후 위기가 대표적이다. 고호관의 「우주의 집」[44] 역시 우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지구와 다른 중력에 적응한 신체 때문에 겪는 문제 상황을 이야기한다. 지구에 가지 못하고 '우주의 집'에 머물며 지내는 십대 소년은 차별 받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장애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

넷째, 최영희의 「묽은 것」[45], 남유하의 「온쪽이」, 이유리의 「인어의 걸음마」[46] 등 일부 SF 서사들은 불투명한 몸이나 반쪽짜리 몸을 지닌 인물, 물고기의 상체를 지닌 인어를 등장시켜 낯설고 이질적인 신체가 초래하는 문제를 폭로한다. 「묽은것」은 고통받는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존재하는 불투명한 존재들을 등장시켜 미스터리한 자신의 정체를 탐구하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어린 소녀의 고통을 되새기고 위로하려는 의도가 담긴 작품으로, 작품 속에서 외딴 마을에 모여 살거나 기차역 주변을 떠도는 묽은것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차별받는 장애인의 처지를 연상시킨다. 과학적 사고보다는 환상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묽은것을 포스트휴먼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주인공의 초현실적인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펼쳐지는 자아 탐색의 과정은 사이보그 주체가 겪는 정체성 문제와 유사해 보인다. 「인어의 걸음마」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빚어진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어가 된 인간들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전자 변형의 후유증을 겪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장애 문제를 다룬다. 인간의 변형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이다. 「온쪽이」 같은 경우 신체적 핸디캡을 지닌 인물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동류인을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각을 다룸으로써 예민한 문제에 도전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소설이라기보다는 판타지의 특징을 띠는 이들 서사는 특히 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에 기초한 포스트휴먼 담론과는 명백한 차이를 지닌다. 그러나 '정상성'이 결여된 신체는 장애의 본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질적인 신체를 지닌 주체의 내면을 다룸으로써 포스트휴먼의 신체성과 장애를 연결하는 논의에 있어서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긍정적 포스트휴먼의 전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복시켜 현재를 돌아보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닿아 있다고 할 만하다.

3. 포스트휴먼 장애와 낙인의 문제

---

43) 포스트휴머니즘과 구분하여,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향상과 진보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며 도덕적 당위성까지 부여한다. 닉 보스트롬은 트랜스휴머니즘을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신리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으로 정의한다. 현대의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자녀의 형질을 부모가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유주의 우생학을 지지하고 있다. 송은주, 「녹색 유토피아-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소설 『허랜드』와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의 생태주의적 비전과 과학기술」,이화인문과학원 엮음, 『분열된 신체와 텍스트』, 168~169쪽

44) 고호관, 「우주의 집」, 최영희·고호관·윤여경·문이소·남유하, 『우주의 집』, 사계절, 2020.

45) 최영희, 「묽은 것」, 최영희·고호관·윤여경·문이소·남유하, 『우주의 집』, 사계절, 2020.

46) 이유리, 「인어의 걸음마」, 이종산·이유리·전삼혜·이서영, 『인어의 걸음마』, 서해문집, 2021

트랜스휴머니즘 이론가들은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등을 강화된 인간형으로 내세우며 인간의 지적, 신체적 능력 개선이 가져올 새로운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SF에서 사이보그 정체성은 자주 갈등 요소로 등장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을 꿈꾸는가』가 대표적이며, 한국 아동 SF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로봇의 별』역시 인간을 정점으로 한 포스트휴먼의 위계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진짜 인간인가, 아닌가를 질문하고 인간- 사이보그-휴머노이드-비인간형 로봇 순으로 위계를 지을 때 여기에는 여전히 인간중심주의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가 내놓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 사회의 미래보다 현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47] 준다고 보면, SF 서사에서 재현된 포스트휴먼이 언제나 문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술낙관주의는 생명공학기술, 분자나노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으로 불리는 이른바 NBIC(Nano·Bio·Information technology, Cognitive science) 기술의 발달로 장차 인간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중에서도 장애 문제의 해결은 가장 가깝고 명확한 과제로 보인다. 유전자 조작, 수명 연장과 노화 제거, 프로스테시스(prosthesis) 장치,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인간 정신의 업로딩 등이 실현되면 장애를 치유하거나 아예 발현되지 않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신체성 자체를 초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사이보그 신체는 보철기구를 장착한 장애인들에게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이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할 때 겪는 신체적 고통이나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 부담스러운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그리 주목받지 못한다.

이민진의『슈퍼히어로, 이 녀석』에서 미루와 가빈이는 로봇 고물상에서 일하고 먹고 자는 고아들이다. 어른 보호자 없이 생활을 영위하고 보드를 타고 날쌔게 돌아다니는 주인공들은 얼핏 삐삐 롱스타킹의 후예들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버림받는 등 아픔을 지니고 있다. 각자 가족을 잃은 사연이 전형적이고 익숙한 종류라면 아이들이 처한 곤경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장애를 지닌 사이보그 신체가 재현되는 장면이다. 가빈이는 "터무니없이 짧은 손가락, 손가락 마디마다 툭툭 터진 낡은 실리콘 피부, 그 사이로 튀어나온 누렇게 변한 인공 관절"로 된 오른손을 갖고 있으며, 미루는 신체 비율에 맞지 않고 합금이 드러난 다리를 장착한 채 살아간다. 이들의 기계-신체는 기능상 문제가 없지만 보기 흉하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사회에서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값비싼 인공 피부나 성장 속도에 맞춰 보철물을 교체하는 일은 언감생심이며, 아름다움과 정상성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 점은 노년의 나이에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관리인이 미루에게 '숏다리'라고 놀리고 비웃는 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첨단 과학기술이 현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 관점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관련이 깊다. 낙인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작동할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기 부정을 일으킬 수 있다.[48] 오늘날 장애인 당사자의 자긍심을 북돋는 활동이나 이론적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장애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모

47) 전치형·홍성욱 지음,『미래는 오지 않는다』,

48) 어빙 고프먼은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기형이나 불구, 성격상의 결함, 특정한 종족(인종, 민족, 종교)에 속한다는 등의 이유로 낙인을 갖게 된다고 보았는데, 낙인을 가진 사람은 바깥 사회로부터 주어진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의 결점으로 보는 것이 예민하도록 훈련되며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며 자기혐오와 자기비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어빙 고프먼 지음, 윤선길·정기현 옮김,『스티그마-장애의 세계와 사회 적응』, 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17~21쪽

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까닭은 이러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면에서 「수퍼히어로, 이 녀석」의 어린이 주인공들이 자신의 기계-신체를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수치스러워하는 장면은 다소 퇴행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기술결정론적 믿음을 거부함으로써 장애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정재은의 「아바타」와 와 윤영주의 『마지막 레벨 업』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교류하던 인물의 장애를 깨닫고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장면은 비장애인이 장애를 수용하는 일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아바타」에서 삼차원 홀로그램을 통해 학교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치장하고 다른 아바타의 진위에 대해 논하는 것은 여전히 원본과 복제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디지털 세계의 가상 주체를 통해 신체성 자체를 무효화시킴으로써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가상 주체를 통해 장애를 감추고 비장애인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장애 인물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누락시킬 경우, 이는 자칫 진실에 대한 도덕성 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바타」와 『마지막 레벨 업』의 장애 인물이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데 머뭇거리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어서이며,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고 살펴야 하는 것은 낙인 찍힌 자들의 주된 어려움이다[49]. 이들 작품에서 어린이 인물들은 우정과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낙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그 과정이 결국 비장애 인물의 수용에 좌우된다는 것은 기존 현실주의 장애 서사와 동일한 구도를 따르는 셈이다.

한편, 『마지막 레벨 업』은 뇌만 남아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의 삶을 죽음보다 못한 삶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온전한 신체라는 신화를 따르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 동일한 설정은 남유하의 「뇌 엄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뇌 엄마」에서 '이터널 브레인'이라는 기술은 사이보그 기술과 구분되며 뇌만 남은 사람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 작품에서 화자가 친구 엄마의 임신 사실을 듣고 "율리의 엄마가 그 애를 품에 꼭 안아 주었어. 기다랗고 하얀 두 팔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아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말을 돌리거나 무용 수업을 통해 자신의 몸을 예민하게 느끼며 엄마의 뇌를 떠올리는 장면은 신체성과 관련해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능을 가진 기계와 유사한 정보 처리 개체이며,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유기체 신체 대신 기계 신체를 장착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정신을 디지털로 업로드하여 영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 레벨 업』과 「뇌 엄마」에서 육신 없는 삶을 비참한 것으로 그리는 것은 신체와 정신을 나누는 이원론에 반대하고 오감으로 세계와 반응하는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그러나 뇌만 존재하는 인물을 '보통이 아닌 몸'을 가진 장애인으로 치환해서 바라보면 역시 온전한 삶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여전히 '정상성' 기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정재은의 「내 여자 친구의 다리」는 포스트휴먼과 장애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발레리나의 사이보그 신체는 '굳은살과 피멍으로' 뒤덮인 진짜 발과 구분되는 매끄럽고 깨끗한 발로 묘사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끈한 '인조 다리'를 알아보고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이보그 발레리나의 예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휠체어에 앉아 기자 회견을 해 보는 건 어때?"

누군가 연이에게 인조 다리를 분리한 채 방송에 나가 보라고 권했다. 연이가 겉으로 너무나

49) 어빙 고프먼은 『스티그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면할 때 비장애인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먼저 유머러스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멀쩡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면의 고통과 어려움을 몰라주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연이가 싫다고 했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제 다리예요. 제 몸이라고요. 이 다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용문에서 누군가 연이에게 휠체어 회견을 제안하는 대목은 때로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을 핑곗거리로 이용함으로써 ‘부차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초엽의 「원통 안의 소녀」에서 비싼 공공 기물을 망가뜨린 주인공이 “불쌍한 척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늘 하는 일인걸. 그러면 좀 봐주겠지.”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을 둘러싼 상황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장애인은 자신의 상태를 교정하려고 시도하거나 자신에게 제한된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한 장애인은 자신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과 다른 장애인에게 양가감정을 느끼는 등 다양한 난관에 부딪힌다.[50] 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경우, 장애를 가진 인물은 개별성을 지닌 주체가 되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재현되기 쉽다. 「내 여자 친구의 다리」는 발레 슈즈 때문에 짓무르고 상처 입은 발과 사이보그 신체를 뒤섞고 예술과 창조성의 기원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장애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인조 다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건 제 다리예요. 제 몸이라고요.”라고 말하는 사이보그 발레리나는 인간/기계의 구분을 허무는 동시에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차이가 유동적이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여자 친구의 다리」의 결말에서 연이가 발레단에 합류하지 못하고 달을 향해 떠나는 장면은 현실 속 장애인의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 건강한 신체와 똑같이 기능하는 인공보철물이 가능한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은 장애에 대한 현재적 관점을 반성하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4. 포스트휴먼과 상호의존성

마사 누스바움은 ‘정상’에 대한 불안한 집착과 나르시시즘, 동물성과 유한성에 대한 기피가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장애를 낙인 찍고 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비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은 온전하고 정상적이며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휴머니즘이 장애 문제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핸디캡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장애로 볼 것인지 정하는 기준은 자의적이다. 더욱이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권리를 인정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공동체 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의존적일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일생의 어느 한 시기에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51]

고호관의 「우주의 집」은 우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주정거장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십대 소년 ‘우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주가 태어난 이후로 우주인의 출생이 금지됨에 따라 우주와

50) 어빙 고프먼, 앞의 책, 25~26쪽
51)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가진 아이는 유일무이한데 우주는 지구의 중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또래 친구를 사귀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엄격한 관리와 통제하에 살아가야만 한다. 과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고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태어나게 된 사연과 자라는 과정'을 공개하게 된 우주는 19세기 서커스단의 볼거리로 전시되었던 장애인을 연상하게 한다.[52] 또한 우주의 신체적 취약성은 십대 소년으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업인 사회화나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우주가 자유로움과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양팔에 날개를 달고 인력 비행을 할 때이다. 네 개의 날개를 장착하고 유영 훈련 공간을 날아다니는 우주는 사이보그가 됨으로써 자신의 가벼운 몸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에서 우주의 사이보그화가 중요한 까닭은 상황에 따라 신체적 취약성과 유능함이 얼마든지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청각 장애를 지닌 또다른 소년 에데르가 멀미를 느끼지 않는 덕분에 우주 유영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주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대. 어떤 사람은 우주 공간의 적막함을 못 견딘다지? 난 평생을 적막함 속에서 살았어." 우주와 에데르에게 신체에 결합시키는 기계 날개는 자신을 긍정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두 소년이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며 비행 기술을 익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포스트휴먼 장애인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초엽의 『원통 안의 소녀』에서 '프로텍터'라는 보조기구 없이 살 수 없는 지유가 의료용 클론 노아를 탈출시킬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체 조건 때문이다. 노아 역시 신체를 빼앗기고 가상 세계의 노동자로 살고 있다는 특징을 활용해 지유의 문제 해결을 돕고 햇빛 아래를 걷고 싶다는 소망을 들어준다. 서로를 번갈아 돕고 대등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동 문학에서 익숙한 서사지만 신체적 핸디캡을 역이용하고 장애를 무효화하는 것이 상호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방적이다. 이런 서사에서 장애를 지닌 인물은 자신의 장애를 긍정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종산의 「생일 축하해!」는 벌레 떼로 인해 곤경을 겪고 있는 근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청각 장애를 지닌 리라가 어렵사리 외출에 나서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규칙적인 벌레폭풍이 문제를 일으키자 모든 사회 활동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일 스크린으로 수업을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장난을 치고, 따로 '토끼굴'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어른들이 모르는 자기들만의 또래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서로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각자 아이디 앞에 해시태그로 장애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리가 없는_모니카'나 '#귀가 안 들리는_리라'처럼 장애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재은의 「아바타」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신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장애를 감춘 인물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인다.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체 기능의 제약을 가진 장애 인물에게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 자체를 은폐하고 부정함으로써 장애 이데올로기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생일 축하해!」의 인물들에게 다리가 없고 귀가 안 드리는 것은 '이름 없는 결핍'을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

52) 19~20세기 초반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이드 쇼나 프릭 쇼라는 이름으로 기형인간을 전시하고 공연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에 의하면, "기형인간쇼는 지금 우리가 '인종', '민족', '장애'라고 부르는 몸의 다름을, 인간의 신체적 다양성의 원료로부터 문화적 타자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정을 보여 주는 의식 속에서 연출해 제시하였다."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앞의 책, 117쪽)

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징이나 차이에 불과하다. ‘토끼굴’ 멤버 중에는 자신이 몸과 분리되어 정신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도 있는데 화자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은 이 ‘43PP’의 말을 순순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너의 믿음과 내 존재는 상관없단다”라고 대꾸하는 43PP에게서는 아무런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다. 언어센터나 움직임 훈련 센터에 가서 신체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지만 장애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아무도 신체적 핸디캡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는 사회에서 열두 살짜리 아이들이 서로의 생일 축하를 해주러 대규모 ‘번개’ 모임에 참가해 직접 만나는 장면은 무척이나 의미심장하다. 리라가 자신과 같은 농문화에 속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수어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나누는 것을 보면, 이 미래 사회에는 여전히 신체적 핸디캡과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어른 보호자를 대동하고 누군가는 휠체어를 밀어 다른 이를 돕고,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에게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건넬 때 거기에는 서로를 동등하게 환대하는 마음이 넘실거리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아동문학의 독자인 아동야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의존적인 시기를 보내는 정치적 비주류 집단이다. 그만큼 장애 당사자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독자들이기도 하다. 대체로 아동문학은 아동 주체가 독립적이고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성장이 자칫 나르시시즘에 빠질 경우 정상/비정상의 구분에 몰두하고 불가능한 완벽성을 추구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타자를 올바르게 대하고 자신의 주체와 자아를 보다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향일 것이다. SF 서사의 포스트휴먼이 장애의 신체성을 문제적으로 제시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5. 결론

장애운동가이자 작가인 슈타우라 테일러에 의하면, 근대 휴머니즘의 세계에서 장애는 한 개인의 삶을 구축하는 체험일 뿐 아니라, 역사, 정치 그리고 문화가 구축되는 데 이데올로기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는 성별, 계급, 인종처럼 근대 세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장애 개념은 자립, 효율, 생산성 같은 개념의 정의를 수립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노동 관계가 탄생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인종적·계급적 특징을 갖는 인구 집단들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 이데올로기가 활용되기도 했다. 장애 개념은 차이의 범주들을 정의하고 강화하는데, 다양한 인구 집단들을 유아화함으로써, 약하고, 취약하며, 지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 쉬우며, 뒤떨어지고, 돌봄이 요구된다는 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병리화하는 데 기여했다. 장애는 인종, 성별, 계급과 같은 다른 차이의 형태들과 상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53]

근대 휴머니즘의 질서 안에서 장애가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수행해 왔다면, 포스트휴머니즘적으로 장애를 사고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지평의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걷는 장애인의 이미지와 인간의 신체가 사라진 시대의 새로운 인간종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신체성을 문제 삼는다. 신체와 정신을 나누고 의식이나 인지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데카르트적 사고는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지만, 포스트휴머

53) 슈나우라 테일러, 앞의 책, 59~60쪽

니즘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단순한 정보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의 특권을 내려놓으려 한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포스트휴머니즘은 현재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SF는 미래 사회라는 낯선 시공간으로 '보통이 아닌 몸'들을 옮겨 놓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텍스트들은 첨단 과학기술이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유토피아를 가져다주리라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허구'를 극복하지 않는 한 '보통이 아닌 몸'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 SF 서사를 대상으로 장애 문제를 살펴보았다. 포스트휴먼 주체를 장애인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중심주의를 명백히 문제 삼고 장애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장애 서사로서 SF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장애인을 서사의 주체로 내세운다고 할 때 여전히 감각 장애나 지체 장애에만 국한되고 발달 장애 같은 정신적 장애를 다루는 일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작과 수용, 연구에 있어서 더 많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SF 서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최미경

이 글은 장애 서사로서 SF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아동 문학의 SF 서사 속 장애의 재현 양상을 장애인의 은유-사이보그와 휴머노이드, 탈신체화 된 디지털 주체, 미래사회 속 가상의 장애, 낯설고 이질적 신체를 중심으로 나눈 뒤, 이를 개괄하고 장애와 낙인의 문제와 상호의존성을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이 글에 공감함을 밝히며, 글을 읽어가며 떠오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애'는 무엇인지요. 이 글에서는 장애의 의미를 손상, 불완전함, 변화, 표준/아름다움/정상성에서 벗어난 같은 표현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선생님이 동의하는 정의인지 단지 인용일 뿐인지 분명하지 않게 읽힙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까닭은 장애의 의미가 모호해지면서, 선생님께서 나눈 위 네 가지 재현 양상들과 장애의 연결 고리가 다소 느슨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포스트휴먼 주체를 장애 인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비장애중심주의를 명백히 문제 삼고 장애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장애 서사로서 SF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장르적 가능성이 있다면 장르적 한계도 있을 텐데,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요?

저는 선생님께서 「내 여자 친구의 다리」를 분석하며 "사이보그 발레리나는 인간/기계의 구분을 허무는 동시에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차이가 유동적이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레리나의 기계 다리는 어쨌건, 인간의 다리보다 뛰어나지 않은가? 적어도 기능 면에서는.'

정상성을 벗어난 상태에 대해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더 우월한 쪽으로 벗어난 경우 동경하고 욕망합니다. <은하철도 999>에서 모든 인간이 기계 몸을 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SF 서사에서는 기술과 결합한 '알파-인간'의 존재가 얼마든 가능합니다. 정상성에서 벗어난, 정상보다 뛰어난 알파-인간, 이를 테면 엑스 맨의 로건 같은 존재는 '장애를 지닌 신체'를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대상화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SF서사 속 포스트휴먼 주체들이 상호의존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통 안의 소녀』를 다루며, "신체적 핸디캡을 역이용하고 장애를 무효화하는 것이 상호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충분히 해방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동청소년 서사에서 흔히 쓰이는 이러한 방식의 상호구원이,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휴먼(이때 휴먼은 유럽-백인-남성을 뜻합니다) 논의의 핵심에서 비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휴먼 관련 논의의 핵심에는 중심과 변방, 정상과 비정상, 다수와 소수간의 위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약화시키고 경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변방, 비정상, 소수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아동청소년 서사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의 상호구원'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런 이야기는 흔히 문제적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이해자(친구, 교사, 부모)를 문제적 인물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이들은 원경에 놓습니다. 소수자끼리의 연대와 이들을 핍박하는 다수 간의 대결 구도인데, 다수의 모습은 섬세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핍진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많은 경우 관습적으로 그려집니다. 중심과 변방의 '구분짓기'가 이루어지는, 중심과 변방이 맞닿는 갈등의 영역, 경계는 이렇게 이야기의 중심에서 미끄러집니다.

누군가는 "서로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상호 돌봄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경계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다면, 포스트휴먼 논의가 그저 논의를 위한 논의로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여름 학술대회

『어린이』에 나타난 근대의 문예창작

–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를 다룬 과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발표 : 서희경(숭실대학교)

토론 : 정재은(동화작가)

『어린이』에 나타난 근대의 문예창작
-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를 다룬 과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서희경(숭실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
  1) 발명학회와 『어린이』의 영향 관계
  2) 패러다임의 혁명, 다윈의 진화론
  3) 포스트 휴먼, 영원한 생명
3.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 「천공의 용소년」
  1) 발명의 리얼리티, 「천공의 용소년」의 발명품
  2) 제국주의 지구에서는 살 수 없는 '화성인', 우주 탐험 서사의 아동관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1923년 천도교 소년회를 통해 방정환을 중심으로 창간된 근대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에 대한 과제이다. 근대 시기 발명학회를 중심으로 과학 지식 보급을 위한 과학의 대중화 운동이 전개되는데 근대과학 기술과 『어린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우주적 상상력을 다룬 과학소설 「천공의 용소년」을 분석하며 과학적 글쓰기로 드러나는 『어린이』의 근대적 아동관이 무엇인지 밝혀 보고자 한다.

『어린이』의 연구대상은 1923년 3월 20일에 발행된 창간호부터 광복 이전 1935년 3월 1일 발행된 통권 122호까지 발표된 과학 이야기 중 발명 서사와 우주 과학을 다룬 서사이다.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는 자연과학, 화학, 위생, 식물동화, 동물동화, 사진소설, 영화소설, 과학적 추리를 바탕으로 탐정 수사를 모티프로 한 탐정소설, 라디오 이야기, 우주 탐험을 그린 과학소설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것은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 본고에서는 발명 서사와 우주 과학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어린이』[1]는 소년운동을 위한 문예물의 표본이다. 일제강점기 시기 몸으로는 항일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할 때 정신으로는 문화 독립운동으로 조선 어린이의 자주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암흑을 벗어나 가난한 조선의 운명을 갱생(更生)하는 역할을 했다.

★ 이 글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B유형 과제에 선정된 논문이다.

1) 『어린이』에 글을 발표했고,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근대소설 작가 이광수는 「무정」에서 이형식의 목소리로 조선인들의 실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개벽의 발명이라고 서술했다. 『어린이』 창간 7주년 기념호인 제8권 제3호(1930. 3. 20, 4면)

식민지에서 천도교의 논객들이 교육과 농촌계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소년운동의 발아 조건을 숙성시키는 동안 손병희의 사위 방정환은 일본에서 소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었다.[2]

정인섭의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에 따르면, 방정환이 도쿄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천도교의 종교적 특성에서 벗어나 전국 어린이 운동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에 뜻을 같이 할 동지를 찾고 있었고, 『어린이』에 훈화적 교양물로는 역사, 지리, 과학으로 차상찬, 박달성, 신영철, 최영주가 집필하며 민족주의 어린이의 황금시대를 장식했다고 서술했다.[3]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 안에서 「천공의 용소년」은 비록 번안 소설이기는 하지만, 아동문학 안에서 최초의 sf 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일본 유학을 통해 과학기술과 발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 기조 안에서 새로운 글쓰기 유형으로 「천공의 용소년」이 번안될 수 있었다. 발명과 발명가의 역할, 시작과 끝이 없는 광활한 우주적 공간의 상상력, 그 시대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문기사에서도 소개되었던 뉴턴의 중력, 아인슈타인이 서술한 시간의 상대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작품이 바로 「천공의 용소년」이며 1930년대에 발표된 그 시대의 발명과 우주과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구자적인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천공의 용소년」이후, 주요섭 「?」 『아이생활』 제6권 제1호, 1931.1~제6권 제12호, 1931.12, 주요섭 「웅철이의 모험」, 『소년』 1937.4~1938.3(10회 완), 김래성 「백가면」, 『소년』 1937.6~1938.5(12회 완), 그리고 1950~60년 과학모험소설 한낙원, 「화성에 사는 사람들」 『새벗』, 1962~64년 장편 과학소설 한낙원 「금성 탐험대」, 『학원』 등 본격 SF 창작과학소설이 발표된다. 한국 최초의 창작 SF 소설로 추정되는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 『신소설』 1929년 12월호를 비교해 보면 아동문학에서 번안소설 「천공의 용소년」이 가지는 위치는 본격 sf 창작 문예물을 탄생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서사이다.

그동안의 『어린이』에 대한 연구는 방정환의 활동이나 발표작을 중심으로 한 연구, 소년문사를 기르는 측면에서 독자와의 소통을 다룬 독자담화실 연구, 동요, 동시, 소년시 연구, 일본의 『아카이토리』와 비교 문학 연구, 동화, 번역동화, 소설 등 서사 연구, 아동극 연구, 이미지 연구, 국어교육 연구, 문학사적 연구로 역사, 특징, 편집체계 사상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의 장르명 표기에 과학이라고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글만 100여 편 이상이다. 이에 따라 과학 서사를 따로 분류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에서는 다양하게 과학 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근대문학이 존재하였고, 과거와 현재 모두 부족한 현실을 발전하기 위해 과학이 중요한 의제였지만, '과학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와 「천공의 용소년」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동잡지의 과학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로 한민주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신소년』의 과학을 연구하며,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에서 과학 교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4] 그 후 연구[5]로는 1930년대 후반 아동 잡지 『소년』에 발표된 주요섭의 「웅철이의 모험」, 김

2) 최명표,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36면.
3)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 휘문출판사, 1975, 38면.
4) 한민주, 「어린이 혁명가를 위한 과학: 마르크시즘, 진화론,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1920~1935)」, 『한국과학사학회지』 37권 1호, 2015.

내성의 「백가면」을 과학동화와 탐정소설, 마술의 키워드로 읽어냈다. 이 논문은 과학서사와 프로파간다적 정치 문화를 연결하여 근대의 과학은 일제의 방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서술했다. 권혁준[6]은 SF 개념을 고찰하여 '시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한국아동청소년 SF의 특성과 양상변화를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1950~60년대 sf 아동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정진헌[7]은 염근수 과학 동화를 연구하여 그가 1930년대부터 과학동화에 관심을 가졌다고 서술하였다. 조선일보와 동화일보에 발표된 염근수의 과학동화와 청소년과학잡지 『백두산』의 편집인 활동을 밝혔다. 염근수는 『어린이』에서도 자연과학적 상식(「독본 업시 공부하는 법」,제8권 제5호, 통권 75호, 옛동무작품호, 1930. 5. 20.)과 물고기의 생태를 다룬 유치원 동화(「눈 뜨고 잠자는 붕어」, 제8권 제6호, 통권 76호, 창사10주년기념호, 1930. 7. 20)를 발표하였다.

가장 최근의 논문으로 최애순[8]은 1930년대 『과학조선』 속 과학소설을 발명과학소설로 보고 공상과 발명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과학사에서는 다루었으나 문학사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과학조선』 속 소설을 '발명'의 측면에서 보며 중요한 과학텍스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이다.

2.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

근대과학의 풍경을 묘사하는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는 관련 전공자가 교육을 목적으로 과학상식을 설명하는 이야기와 지식인이 종교에 빠지거나 미신을 타파하고 과학적인 생활과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과 과학 실험방법을 소개하여 실제로 어린이들이 실험에 참여하도록 이끌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고취하는 글, 과학 요소와 사건이 결합되어 플롯이 진행되는 창작 문예물로 이루어진다. 자세히 서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자연과학상식, 우주천문학상식, 발명가의 발명 이야기, 탐험이야기 화학, 수학, 기상(날씨), 시간(양력, 달력) 위생(의학)상식, 활동사진 이야기, 라디오 이야기, 비행기 이야기 : 위인전기문이나 옛이야기 형식, 설명문으로 서술[9]

② 지식인들의 과학 칼럼[10]

③ 화학 취미, 과학 수공, 과학 실험 방법, 의약품 복용기[11]

---

5) 한민주, 「이상한 나라(Wonderland)의 과학적 글쓰기: 1930년대 후반 아동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5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6) 권혁준, 「SF 아동청소년 문학과 과학적 상상력-SF 소설의 개념, 특성, 범주와 한국 SF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시공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7) 정진헌, 「일제강점기 염근수 아동문학 활동 연구」, 『동화와 번역』 제36권, 동화와번역 연구소, 2018.

8) 최애순, 「1930년대 과학조선과 식민지 조선의 발명· 발견에 대한 기대」,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권 1호 통권43호, , 한국근대문학회, 2021.

9) 서리 이야기, 눈 이야기(경성측우소 조영근),식물은 신경이 업는가, 제3석 월세계 여행 만유인력 이약이, 근세 대과학자 「뉴톤」의 이야기, 아푸리카 탐험자 리빙그스톤,단이약이 짠이약이, 달나라 이약이, 태양 나라 이약이, 음력과 양력은 왜 달른가, 구름은 어떤 것인가, 영원의 어린이 픠-터-팬, 비행기를 타고 구름나라로, 이것도 전기, 고무를 따서 신을 만들 때까지(조희(종이)가 되기까지 등 까지 이야기 시리즈) 조선의 발명 자랑, 공중을 나르는 비행기도 조선이 먼저, 진화론을 지어낸 따윈의 연구, (정보) 어린이 방송국, 어린이 병원, 이과 교실 등과 같은 유형이다.

10) 과학적 생활, 과학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낫나, 신비한 생명 등의 유형이다.

④ 로-도 안약, 노신 두통약, 라이온 치마분 치약 등 의약품 광고, 독자 퀴즈 정답자를 대상으로 한 시계와 망원경 선물 알림[12]

⑤ 자연과학 동화(동물 동화, 식물 동화), SF소설 (우주탐험소설), 탐정이 등장하여 과학 수사를 하는 추리 소설, 사진소설, 영화소설[13]

①유형의 저자로는 심형필, 윤주복, 천응규 등이 있다. 이들은 수학, 화학공학, 생물 전문가이다.

②유형의 저자로는 신영철, 윤석중, 노양근, 주요섭 최경화 등이 있다. 이들은 지식인이거나, 과학전공자가 아닌 창작 작가이면서 과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칼럼을 썼다.

③유형의 저자로는 손성엽, 손성화가 있다.

⑤유형의 저자로는 방정환, 허문일, 연성흠, 최병화, 이영철, 이정호, 박누월 등이 있다.

1) 발명학회와 『어린이』의 영향 관계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를 해석하기 위해 근대의 이데올로기와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 문학은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이 지닌 문제를 플롯을 통해 형상화하여 보여주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 이데올로기와 역사를 발견하면 그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 작가들은 이데올로기적 컨텍스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같은 기간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 한 나라의 작가들도 그렇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정 문화의 특색에 대해 알면 텍스트가 씌어진 시기나 장소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 환경이 어떻게 텍스트에 영감을 주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연관 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문학 작품이 탄생한 역사적 시기와 문화를 배우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문학작품을 읽으면 그 시기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이다.[14]

조선에 과학교육이 유입된 것은 1903년 조선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 아서 베커에 의해서였다. 물리학을 전공한 베커 선교사는 "조선인의 자유와 자주 독립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모든 청년이 실용적 과학지식을 가진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평등을 지향하기를 기대했다."[15] 베커 선교사는 1905년 평양에서 숭실

11) 사이다-와 라므네 맨드는 법, 최신식 팽이 맨드는 법, 우리들의 여행과 <정제 와 까모도>복용 실험기, 이과 실험, 신긔한 요술, 구리 철로 불끄기-(열의 전도), 병속의 분수-(진공과 공기의 염력), 금붕어 기르는 법, 물에 바늘 띄우기, 수리 문답 (씨동이 정신 검사), (가정요법) 민한한 가운데서 발견한 감빵 약으로, (가정요법)홍등, 변비, 위통으로 등의 유형이다.

12) <알림> 괄뚝 시계 주는 애독자 권유 경쟁 제 4회 대 모집, 『망원경』 들이는 특별 대현상 문제.

13) 장미와 달팽이, 교만한 메뚤, 오리 잭기, (사진소설) 영호의 사정, (소년영화소설)북국에 봄이 오면!!, 소년탐정소설(청귀도의 비밀), 우주탐험소설(천공의 용소년, 번안), 동생을 차즈려(탐정소설), 칠칠단의 비밀(탐정소설), 소년사천황(탐정소설), 용길의 기공(소년 탐정소설) 등

14) 페리노들먼, 김서정 역,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1』, 시공주니어, 2001, 226면.

15) 정윤형, 「Arthur L. 베커 선교사와 근대 과학 교육」, 『인문과학』 111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108면.

학당의 교관으로 초빙되었는데 숭실학당의 수업은 수학과 자연과학, 응용과학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는 1917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서 수물과를 만들어 수학교육을 이어나갔다. 연희전문은 수학과 물리학, 응용화학을 가르쳤고 조선 학생들의 과학정신이 고취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조선의 해방을 열망하는 깨어있는 지식인인 민족주의자들은 일찍이 일본 유학을 통해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발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제가 조선에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수탈로 농촌은 더욱 빈곤해져 갔다. 조선의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1920년대에 평양의 조만식 선생이 주도한 물산장려운동[16]이 일어났다. 평양에서 경성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대된 이 운동은 경제자립 실천을 목표로 우리 것을 스스로 만들어 쓰자는 국산품 애용 운동이 핵심이었다.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조만식은 『어린이』에 「내가 조와하는 少年」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 남의어려운것을 보고 도읍는생각을가진소년- 어른의 일이나 어린이의일이나 개인의일이나단체의 일이나를 물논하고 불행한 처지에 잇는 것을 보고 동정과 자비의 마음을 갓지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든지 또는 우리의 현상으로서든지 자미업는 사람이다. 조은일을 하로하얏스면 끗까지 씩씩하게 벋치는소년-그런소년이 그대로 자라난다면 반드시 나종에는 위대한 큰사람이 될것이라고 밋는다. 거짓말쟁이외쟁이이런것은 우리조선 소년가운데 한사람에게라도 잇서서는 안될 것이다.[17]

남의 어려운 것을 보고 돕고, 좋은 일에는 끝까지 씩씩하게 하는 소년의 모습에는 그가 주장했던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하며 국산품을 만들고 쓰는 소년의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이다.

> 유소년의 노동을 금하고 일체로 취학의 기회를 얻게 할 일이라. 그런데 윤리적 해방은 금일의 사회제도 밑에서도 진실로의 자각만 있으면 능히 어느 정도까지 실행할 바이거니와 경제적의 해방에 있어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능치 못할 바인가 한다.[18]

> 김기전은 소년 해방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아직도 어린이들이 인간 중에 가장 최하위에 위치하는 윤리적 압박과 궁핍을 면하기 위해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제적 압박에 짓눌려 있다고 보았다.[19]

『어린이』는 김기전의 글에서처럼 가난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으로 내몰리는 어린이 노동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을 담은 글이 많이 발표된다.

> 별표 고무회사
> 별표 고무회사는 경성 광희정에 잇는 유수한 고무회사인데 먼저는 직물회사이든것이 팔년전부터 고무회사로 변하엿답니다. 자본금은 삼십만원이요 현재직공수는 남녀를 합하야 전부가 이백사십여명인데 그중에 어린사람직공은 소년이 일곱명하고 소녀가 열두명으로 이들의 손을 통하야만드러지는 고무신이 매일 이천켜레평균으로 일년에 칠십삼만켜레이라는

16) "이 운동의 실천 과제는 경제계의 진흥, 사회의 발전, 실업자 의 구제책, 국산품 애용, 토산품 애용, 근검 풍토, 실천성의 양성을 내세웠고, 경성의 조선청년연합회는 이 운동을 이어받아 1922년부터 활발히 진행하였다."(위키백과 참고)
17) 조만식, 「내가 조와하는 少年」, 『어린이』 제11권 제3호 창간10주년기념호, 1933. 3. 20, 10~11면.
18) 김기전,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개벽』, 1923. 5, 최명표 앞의 책 44면 재인용.
19) 김정인, 「1920년대 천도교 소년 운동의 이론과 실천」, 『한국민족사연구』 73, 2012, 151면.

놀나운 수효를 보이고 잇습니다.

소년직공의 연령과 작업
사백여명직공중에 단 열아홉사람밧게 안되는 어린직공들의 나희는 대개 십오세이상으로 십칠세까지인데 거의전부가 남의집 것방사리나 행낭사리를하는 가여운 사람들로 원수의 가난 때문에 한창즐겁게 뛰여놀며 공부를 할 나희의 몸들이 음울한 공장에서 가의와 풀을 가지고 쌔압흔 고생을 하고잇습니다

직무시간과 공전
직무시간은 아츰여덜시로 오후 여섯시까지 만열시간 로동인데 점심시간 삼십분을 제한 남어지 아홉시간반은 순전히 고무신을 만드는 즉자긔의 직업을 위하야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일하기가 엇더냐고요- 물론 조와서하는일이 못되고 마지못해서 하는일이닛가 일이고되거나 괴로워도 할 수 없지요.[20]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은 과학기술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환경 때문에 노동현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의 현실적 고난의 풍경이 있었다. 위의 글의 어린이는 하루 아홉 시간 반 동안 고무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부모에게 드리는 착한 아이이다. 공장에서 어린 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이기에 똑같은 시간을 사용해 고생을 하고도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공장 순방기로 나타나는 사실적인 취재에 따른 르포형식의 글을 통해 어린이 노동의 현실을 인식하며, 노동하는 아이들의 현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어린이의 상황과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어린이들은 감사하고, 같은 처지의 어린이들은 자신만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님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산장려운동은 어린이 노동 문제와 연결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해방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그리고 그 운동은 발명과 야학 같은 교육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어린이 노동 수기는 고무가 고무신으로 변화하는 것은 과학공업기술의 발전이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학교 대신 공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21]의 문제를 보여준다.

한편, 물산장려운동의 흐름 안에서 부국강병을 다지며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발명'의 중요성을 생각해낸 지식인이 있었다. 그가 바로 김용관이었다. 김용관은 1930년대 과학대중화운동을 일으킨 일본 유학파였던 공학자였다. 그는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했고, 일본 유학 이후, 중앙공업시험소에서 근무했다. "물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조선의 기술적 자립을 목적으로 발명진흥운동을 주장하며 1924년에 발명학회를 설

20) 일기자(방정환). 「공장 소년 순방기 제1회 별표 고무공장」, 『어린이』 제8권 제7호, 통권 77호, 신추특집호, 1930. 8. 20. 24,~28면.
21) 이 글에서 드러난 소년 직공의 삶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소년 직공의 연령은 15세~17세까지이며, 직무시간은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30분 점심시간을 빼면 9시 30분 하루 노동을 한다.

립하고, 1933년 종합과학교양잡지 『과학조선』을 발행하였다. 그는 이처럼 과학대중화 및 발명진흥 운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중일전쟁 발발 이후, 김용관은 조선의 발명을 방해하는 일제의 방해에 의해 투옥되고, 조선의 발명학회는 친일화가 되어 제국의 군사기술에 동원되게 된다."[22] 그는 1934년 과학데이[23]를 신설했는데 4월 19일인 이유는 진화론의 주창자로 당시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찰스 다윈의 기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중앙일보사> 과학데이 포스터

<동아일보사> 과학데이 포스터

『과학조선』의 집필자는 과학발명회 회원들로 구성이 되었고, 과학발명회와 관련이 있으면서 『어린이』에 과학 관련 글을 쓴 필자로는 윤주복, 현상윤, 심형필이 있다. 『어린이』가 발명학회 회원의 도움을 받아 과학 담론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가 추구하는 아동관이 시대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발명학회 회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저자가 공학사 윤주복인데 그는 『과학조선』의 편집고문이자 필진으로 『어린이』에도 글을 기고하였다.

> 발명(發明)은 문명(文明)의 모(母)라 발명이 업고는 문명이 생기지 못한다. 현대의 물질 문명은 과거 삼천년간에 계속출한 허다한 발명가 발명가들의 노력에 의지하야 나날이 진보발전된 것이다. 보라 공중에 자유자재로 무(舞)비(飛)하는 비행기든지 수만리를 상적하엿스되 제선일조의 연락조차업시 의사를 상통할수 있는 『라듸오』를 보든지 처치조차 곤란하야 우리의 두통거리가되든 『콜탈』에서 저와 갓치 찬란영롱한 각색의 염료가 제조된 것을 보든지 어느것이나 결코 일조일석에 우연히 발견발명된 것이 아니다. (중략)과학의 발전이 업고는 발명이업나니 우리가 좀더좋고 나흔 발명을 어드랴면 좀더과학지식을 개발하고 좀더과학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24]

『과학조선』은 현재 세계 과학의 흐름을 소개하고 과학자들의 활동과 과학상식을 알리는 과학 교양 잡지였지만, 제2호에는 아동과학 코너도 따로 마련되었다. 윤주복은 위 글에서 과학지식을 개발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어린이』에 석유, 활동사진, 인조견, 고무신, 크레욘, 연필, 비누, 불놀이, 종이, 석유와 양초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까지 이야기' 시리즈를 실었다. 이 발명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22) 김용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9A%A9%EA%B4%80
23) 신문기사에도 과학데이 포스터와 함께 글이 실린다. 「과학데이회와 그 사업」 <동아일보>, 1934년 3월 5일. 「문화운동에 큰 도움」, <조선중앙일보>, 1934년 3월 5일. 「과학데이의 의의」, <조선일보>, 1934년 4월 19일. 이 기사들은 『과학조선』 제2권 제4호 6월호 (1934.6)에 실렸다.
24) 윤주복, 「발명과 과학」, 『과학조선』, 1933년 7·8월 특집호, 32면.

과정을 서술하며 연구과정과 결과가 도출되는 예시를 통해 지속적인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이야기한다.

> 까지 이야기/석유와 양초/공학사 윤주복/
> 우리는 석유는 등불켜는데 제일 필요한 것으로만 아릿왓스나 문명이 발달이 되여서 전긔가 발발되여 전등이 굉장히 퍼져가것마는 석유는 점점더 귀염을 밧게 되는 까닭이 잇스니 그것은 비행긔 자동차 군함등이 이석유가아니면 촌보도 움직일수가 업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등불로 쓰는 것 중에 석유 이외에 또한가지 중요한 것이 잇스니 즉 양초입니다.
>
> 조선에는 석유가 생산되지 못하며 따라서 파라핀도 생산되지 못함으로 양초도 전부 수입품뿐입니다. 이 까지이야기를 다달이 써 주시는 선생님은 그전에도 한 번 소개해 드린 바와가티 경성 연지동에 잇는 중앙시험소 화학공업부에 계신 어른입니다. 이이야기를 읽다가 혹시 미심한 것이 잇스면 본사나 직접 선생께 편지로 문의해도 좃습니다.[25]

윤주복은 중앙시험소의 화학공업부에 재직하고 있었다. 윤주복을 통해 『어린이』의 필진은 문학인뿐 아니라, 종교 사회지도자, 역사학자, 과학 직업인, 일반독자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필자들이 글을 자유롭게 기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선생께 편지로 문의해도 좋다는 문장을 통해 이 잡지는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며 독자와 소통 거리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자랑[26]이라는 코너에는 어린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써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많이 발표된다. 조선의 자랑 코너는 이를 발명해 낸 똑똑하고 성실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창조 정신을 깨닫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특히 조선의 발명자랑 중 이순신의 철갑산 발명이야기[27]는 일제에 검열을 당할 정도로 왜구를 무찌른 전력이 있는 용맹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어린이 독자에게 군함 발명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지금은 비록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지만, 왜구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굳은 의지와 용맹한 기상을 일으킨다.

그밖에 발명 이야기로 연성흠, 입지성공미담, 「기차 「뽀-이」로 출세하야 발명대왕이 되기까지-인류의 대은인 「에듸손」 이약이-」, (제8권 제1호, 통권 71호, 신년특대호, 1930. 1. 20), 최병화, 「직공으로 분투하야 자동차대왕이 되기까지-미국의 「헨리·포-드」 이약이

---

25) 윤주복, 「까지 이야기 석유와 양초」, 『어린이』 제9권 제3호, 통권 83호, 창간8주년기념호, 1931. 3. 20. 266-268면.

26) 조선의 자랑 「천보뢰(千步弩)-발명자 구지내(仇珍川)」, (제4권 제10호, 통권 45호, 득집동화호, 1926. 11. 15), 「자전거 발명」, (제6권 제6호, 통권 60호,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기념호, 1928. 10. 20), 최진순, 조선의 발명자랑, 「현대 공예품보다 나은 고려시대의 도자기」, (제7권 제3호, 통권 64호, 창간제6주년기념호, 1929. 3. 20.), 권진규, 조선의 발명자랑, 「세계에 그 류(類)가 업는 조선의 유명 한글」, (제7권 제3호, 통권 64호, 창간제6주년기념호, 1929. 3. 20.), 이윤제, 조선의 발명자랑, 「문명의 어머니, 활자도 조선이 먼저, (제7권 제3호, 통권 64호, 창간제6주년기념호, 1929. 3. 20.), 안선생, 조선의 발명자랑, 「군함의 시조인 철갑선도 조선이 먼저(전문삭제)」, (제7권 제3호, 통권 64호, 창간제6주년기념호, 1929. 3. 20.), 김진구, 우리의 각가지 자랑, 「공중을 나르는 비행기도 조선이 먼저」, (제7권 제3호, 통권 64호, 창간제6주년기념호, 1929. 3. 20.), 유광렬, 내가 자랑하고 십흔 자랑중에 자랑!, 「조선의 의복자랑」, (제7권 제3호, 통권 64호, 창간제6주년기념호, 1929. 3. 20.), 손진태, 내가 자랑하고 십흔 자랑중에 자랑!, 「조선의 온돌자랑」, (제7권 제3호, 통권 64호, 창간제6주년기념호, 1929. 3. 20.), 삼산인, 「만고 명장으로도 유명하고 철갑선 발명으로 유명한 이순신의 어릴 때 이약이」, (제8권 제1호, 통권 71호, 신년특대호, 1930. 1. 20)

27) 『어린이』 제8권 제1호, 통권 71호, 신년특대호, 1930. 1

-」, (제8권 제1호, 통권 71호, 신년특대호, 1930. 1. 20), 편집인, 권두, 「발명가의 고심」, 제8권 제2호, 통권 72호, 1930. 2. 20. 방정환, 「최신지식 라듸오 이약이」, (제4권 제8호, 통권 43호, 여름특별호, 1926. 9. 1.)이 있다. 발명왕 인물 이야기는 위인 전기문 형식으로 서술되어 어린이들에게 발명가의 삶에 대해 상상해 보는 시간을 준다.

유성기 발명- 최신식라디오겸전기축음기(위)
옛날 축음기 (아래)

활동사진 발명 - 활동사진(위)
신식토키영사기 기계 (무성영화, 아래)[28]

수많은 발명품이 있지만 『어린이』에서 처음으로 주목한 발명품은 비행기였다.[29] 그리고 비행기와 함께 등장하는 비행사 안창남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었다.

사진, <살아온 안창남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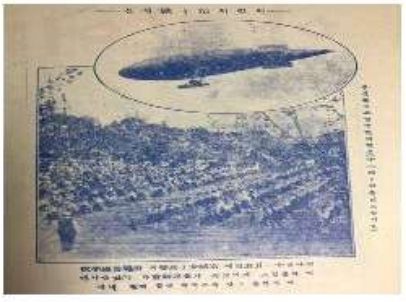


사진 <풍선을 보고 발명한 비행선>

일본에서 비행에 성공하고 귀국한 비행사 안창남씨와 비행기의 사진과 함께 마치 어린이들에게 다정하게 들려주듯이 구어체로 비행기가 발명된 과정에 대한 글이 서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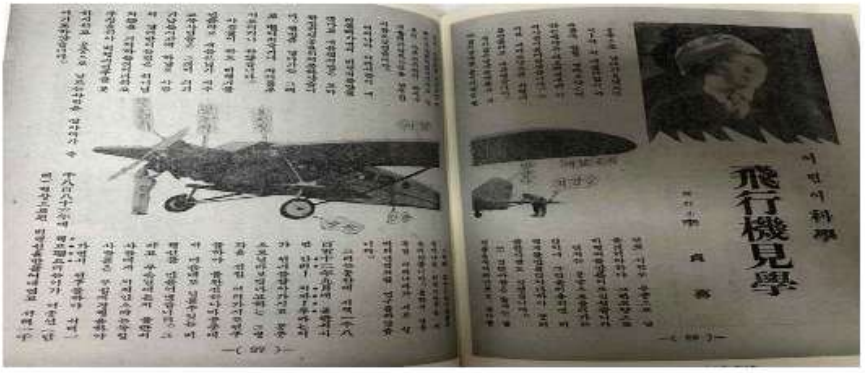
>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비행긔가 발명되기 까지는 예전사람들이 이천년동안이나 우리도 새와갓치 날러다녓스면 날러다녓스면 하고 바라면서도 한 번도 날러보지 못하든것이 지금은 그럿케 하늘우

28) 사진 <지금과 옛날>에서 에디슨의 발명으로 만들어진 유성기와 활동사진에 대해 설명하며 옛날과 지금 더욱 과학이 발전된 기계의 모습을 제시한다. 『어린이』 제11권 제2호, 통권 105호, 1933. 2. 20. 2~3면.
29) 『어린이』 제1권 제9호, 통권 9호, 1923. 10. 15, 표지(속)
『어린이』 제1권 제10호, 통권 10호, 1923. 11. 15, 표지(속)

에 써서 재조를 다브리고 새보담더 더 자유롭개날러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긔가 발명되기전에는 모다새처럼 날러다니고 십다고 새만처다보고 부러워하든결과 날른다는 꼴이 두팔에 새날개갓흔 날개를 매달고 놉다란 바위우에올나가서 아래로 나리 뛰면서 새가 갈갯짓하듯키 날개를 휘적휘적휘적슬쌋이랍니다. 뉴-톤이 이 인력을 발견해노으닛가 그 후부터야 날르고십허하든사람들이 간신히 사람의 몸이 지구에서 멀-니 떠러지지 못하는 까닭을 알앗슴니다. 즉, 지구의 인력이 사람의 몸을 잡아다려는 까닭- 다시 말하면 그만한묵에가 있는 것-을 깨달앗슴니다. 그런고로 하늘로 써올러가는 풍선- 여러분이 정월 초승이나 사월팔일갓흔명절에 사가지고 노는 것-을 크게 맨들어서 그것이 하눌로 올리 가는 힘이 세이면 세일수록 지구의 인력 보다 익어서 넉넉히 사람도 달고 올러가리라 생각한 것이 지금 날러다니는 비행선의 시초 발명임니다. 비행선은 이릿케 발명 되엿지만은 비행긔는 엇더케 발명된것이겟슴닛가 그것도 신긔하고 희한하지요. 여러분이 날니시는 연을 보고 연구해서 발명한 것이랍니다.[30]

인간이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하늘의 시공간을 체험하게 해 준 비행기의 발명은 단연 발명품 중에 으뜸이었다. 발명은 위의 글에서처럼 어린이들에게 탐구와 자주적 실험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풍선과 연에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로 비행기가 발명된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가까운 일상생활인 놀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글은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어린이들에게 과학 상식을 알려 주며 유추할 수 있도록 문장이 서술되었다. 1920년대에는 남자 비행사에 관심을 가졌다면 1930년대는 여성 비행사가 등장한다.

『어린이』에는 여성 비행사 이정희의 글[31]이 실린다. 이 글에서 비행기가 발명된 역사와 다양한 비행기의 이름, 비행기의 사진과 명칭, 비 행사로서의 생활, 이륙과 착륙이 중요한 비행과정, 비행기의 속력 등이 소개된다. 마치 독자가 비행장을 견학해서 비행사에게 친절하게 비행기와 비행사의 생활에 대해 듣는 것처럼 전문적인 직업인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여성 비행사가 들려주는 비행기 발명 이야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직업 선택과 사회진출에 제약이 많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년과 소녀 모두에게 꿈에 대한 자유로운 도전과 진취적인 자세, 도전정신을 심어준다.


飛行機見學

<비행기견학>에 실린 비행기 명칭과 여성 비행사 이정희 사진

30) 안창남, 「비행긔는 어떻게 쓰나」, 『어린이』 제1권 제10호, 통권 10호, 1923. 11. 15, 12~14면
31) 이정희 「비행기 견학」 『어린이』 제10권 제11호, 통권 102호, 1932. 11. 20. 26~33면.

세상은 밝어젓다. 모든것을 과학적(科學的)으로 해석하게되엿다. 하눌과 짱이 검고 누르다고만 막연하게 가르키고 우주가 넓고 크다고만 떼여노코 말하든것을 이제는 장광과 고하(高下)의 거리와 척수까지 일일이 재여서 게산하야 짱닐비는 얼마 바다와 육지면적은 얼마 짱에서 하눌에 잇는 어느 별까지는 광선이 몃시간이면 비치고 비행긔나 긔차로 간다면 얼마가 걸리겟다는 것까지 짜지고 잇스며 천동하면 옥황상제가 노하신것이라하고 비가오면 용왕님이 물을 주섯다고 밋든것이 오늘에와서는 천동은 공중에서 전긔와 전긔가 맛다질리는 통에 이러나는 것이요 비는 짱에잇는 물여서 수증긔가 올라가다가 찬공긔를 만나면 어리어서 빗방울이 되야가지고 써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조 실험적(實驗的)으로 증명해 노앗다. / 사람이란 원래부터 한 생물로서 원숭이에서 진화해가지고 오늘의 문명인이 되엿다는것을 아조 진화론상으로 확실히 증명해노앗다. /이와가티 오늘은 모든 문제가 과학으로 설명되고 과학으로 증명되는째다. 그러면 우리도 과학을 배우자. 지금까지 가지고 내려오든 과학적아닌 생각을 깻그시 씨처버리자. 이것을 조선의 소년제군에게 말하야둔다[32]

『어린이』에서 과학교육에 중점을 둔 이유는 과학적 사고를 갖춘 어린이로 자라길 바라는 아동관이 반영한다. 과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과학을 배우는 것은 날씨를 인식하는 자연현상에서 미신적 생각을 버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설명하는 것이다. 과학적 사고는 상황을 판단할 때에도 어리석음이 아닌 현명한 태도를 심어준다. 그것이 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과학으로 증명하는 생활이다. 이와 같은 경제와 과학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생각이 『어린이』에 담겨 있다. 가난한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은 발명의 정신과 연결되게 된다. 호기심으로 출발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것을 개발하는 발명의 정신이 바로 무너진 경제를 갱생(更生)하는 과학의 출발이었다.

2) 패러다임의 혁명, 다윈의 진화론

다윈의 세계여행은 생물 표본을 하는 발견과 실증의 과학탐험 여행이었고, 25년이라는 꾸준한 끈기를 바탕으로 한 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진화론 연구를 완성하게 된다. 『어린이』에도 다윈의 진화론이 소개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준다.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생물에 대한 관찰이 시작되고 자연과학 서사가 많이 창작된다.

그 려행중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사업은 동물진화론이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동물과 식물은 태고시대에 하누님이 만드러논 고대로 조금도 변치안헛고 이 아프로도 영구히 변치 안흐리라고 세상이 모다를 생각하여왓섯는데 짜원의 조부 「에라스마쓰」 라든가 「라마-크」 가튼이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논란을 한일이잇스나 사실증거를 보여주지 못하엿던것을 짜원이 이십오년이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일팔오구년에 드듸어 책을 저술하여 발표하였습니다.[33]

식민지 시기에 들어서며 우주의 기원 문제를 둘러싸고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간에 대립전선이 형성

32) 신영철, 「과학을 배우자!!」, 『어린이』 제10권 제2호, 통권 93호, 2월특집호, 1932. 2. 20. , 2~3면.
33) 김규택, 「진화론을 지어낸 짜원의 연구」, 『어린이』 제9권 제9호, 통권 89호, 10월혁신특집호, 1931. 10. 20, 53면

된다. 특히 1930년대 식민지시기의 사상전선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첨예하게 전개된다. 34)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까지 과학의 출발 정신이 된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의 발견이자 위대한 생물인 인류의 성장에 대한 발명이었으며 이것은 신의 창조론에서 우주의 생물 진화론으로 종교에서 과학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명이었다.

3)포스트 휴먼, 영원한 생명

우주는 무중력 상태의 공간이다. 지구와 다르게 시공간이 무한하다. 그러므로 우주적 상상력은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 우주처럼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식민지 시대의 어린이에게 무한한 생명을 가진 진화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절망적 불온한 삶을 스스로 더 좋은 삶으로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근대 시기 sf 작가35)들의 작품에서 언급된 트랜스 휴먼은 현대에 와서 포스트 휴먼의 의미로 변모하였다.36) 인간의 몸과 기계가 결합해 생명을 연장하고, 몸의 한계를 딛고 인간의 두뇌 속 뉴런을 뛰어넘어 정신까지 기계가 통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대로 가는 길에 과학이 있다. 이제는 현실이 된 미래 사회의 모습에 언제나 SF 소설이 공상의 형태로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

『어린이』에서도 진화론과 연관하여 생명 담론이 등장한다. 최경화와 심형필의 글을 주목할 수 있는데 최경화37)는 '인조인간'이라는 낱말을 써서 미래 사회의 인간의 모습을 예언하였다.

여러분도 다아시겟지만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은 극도에 달하야 기여코 인조인간(人造人間)이란 것을 만드러노코말게되엿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드러내는 사람 즉 인조인간 그것이 우리와가른 육체를 가젓다는 것도 아니요 또 정신 즉 마음이 잇다는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머지안은 장래에 그 인조인간이 우리사람대신 노동을하게되고 또 전쟁을 하게될는지도 모릅니다. 인조인간이 점점더 발달되여 꼭 우리와가튼 육체를 가질수잇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모든물질을 과학의 힘으로만 만드러낼지는 몰으지만 여긔에 한가지 과학문명이 제아모리극도이상의 극도로 발달된다할지라도 도저히 만드러내지 못할것이 잇스니 그것은 즉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야말로 신비와 조화속에서 사람도 모르게 생겨나는것이요 누가 만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조인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 빠진 껍질에 지나지못합니다. 즉 긔계요 참사람이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잇습니다. 즉 마음이 잇서서 자기 뜻대로 모든것을 할 수가 잇는 자유의지(自由

34) 박성진, 「대한제국기~1930년대 과학 담론의 형성 및 전개 과정」, 『정기사론』 2, 1998. 140면.

35) 영국의 유전학자 존 버든 샌더슨 홀데인 <다이달로스 또는 과학의 미래>(1923), <마지막 판단, 미래 인류에 대한 과학자의 비전>, (1927) 존 데즈먼드 버날 <세계, 육체, 악마> (1929),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을 지닌 줄리아 헉슬리였다. 그는 『계시 없는 종교』에서 이 용어를 처음 썼다.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19. 40~43면.

36) 영국 옥스포드대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면서 인간이 변화하는 단계상의 차이로 설명한다. 휴먼(현생인류)-트랜스휴먼-포스트휴먼의 단계로 변모해 가며, 포스트휴먼의 단계에 가면 그 존재는 더 이상 현생인류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적, 육체적, 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함으로써 인간조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과 그 바람직함을 긍정하는 지적, 문화적 운동이다. 포스트휴먼이란 현생 인류가 인간 종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변화 되어 이제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이런 포스트휴먼을 긍정하고 지향하는 사조이자 운동이 곧 포스트휴머니즘이다. 김건우,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저 30~31면.

37) 최경화, 「신비한 생명」, 『어린이』 제10권 제9호, 통권 100호 임시호, 1932. 9. 20

意志)를 가졌스며 또 감정을 가졌고 리성(理性)을 가졌단말입니다. 즉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한 일개 인간이니 모든 생활현상을 스스로 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어느곧에서 오며 또 우리가 죽으면 어듸로 가는가

이 글은 1930년대에 논하는 생명 담론 글이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인조인간은 생명이 없는 참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알파고나 사이보그 모델처럼 지금-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더는 현인류의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구자적인 글이다. 생명에 관한 관심은 우주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감정과 이성, 자유의지를 가져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생명 담론은 생명이 오는 우주에 대해 상상하게 하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몸을 떠난 인간의 영혼에 대해 실존적 고민을 던진다.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마음과 연결된다.

심형필은 과학 관련 글을 자주 기고하였는데 1934년 6월 20일 발행된 『어린이』 제12권 제6호, 통권 121호에 과학이라는 장르를 명기하고 「사람은 어디서 왓나」를 발표한다.

> 생명은 어디든지 잇습니다. 바다에서 헤염치고 땅우에서 기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모도다 생명들입니다. 우리가들고 볼 수 잇는 어떤 곳에든지 온갓 생명들이 움지기고 나고 죽습니다. 이세상에 이상야릇한 일이 만치만 이 생명과같이 이상하고 재미잇고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중략)
> 나는 우리 우주에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싶습니다. 왜그런고하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 즉 이 넓고 넓은 우주 안에는 본래부터 생명의 조상이 잇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중략)
> 새란 놈아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땅우에 잇는 모든 물건을 단번에 내려다보고 하하 저기는 무엇이 잇고 여기는 무엇이 잇고나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러케 보는 것을 조감(鳥瞰)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가끔 이러케 세상일을 큰 눈으로 통트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러케 큰눈으로 볼 때에 누구든지 생물에는 두가지 큰 종류가 잇는 것을 알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제몸을 움지기고 잇는 동물(動物)이요 또 하나는 몸을 한자리에 가만이 부치고 잇는 식물(植物)입니다. 38)

위 글에서 심형필은 생명의 귀중함과 어린이들에게 시공간이 무한한 우주의 상상력을 일깨워주고, 그 광활한 우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한 곳만 보고 우매한 판단을 하기보다 새가 높이 올라가서 땅 위에 모든 물건을 조감하듯이 큰 눈으로 세상일을 통틀어 봐야 한다고 사물과 세상 이치를 보는 너른 안목과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사물의 차이를 인식하고 멀리 떨어져서 모든 만물의 세상일을 큰 눈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적 사고의 태도가 바로 과학적 시각이다. 과학 서사는 대체로 질문을 먼저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의 예시나 상식을 서술하면서 답을 해 나가는 체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독자에게 호기심과 탐구 정신, 문제 제기와 해결책의 과정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완성의 자세를 고취한다.

『어린이』는 천도교 잡지이다. 천도교의 주요 사상은 '사람이 하늘이다.' 이다. 사람 자체가 신과 같은 우주이며 강력한 힘을 지닌 우주의 생명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창

38) 심형필, 「사람은 어디서 왓나」, 『어린이』 제12권 제6호, 통권 121호, 1934. 6. 20, 12, 14면.

조론이 아니라, 우주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진화론의 입장에 주목하며, 계속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물과 동물처럼 어린이들도 지금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생명을 지니고 있기에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서로 도우며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읽힌다.

3.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 「천공의 용소년」

「천공의 용소년」[39]은 1930년 9월 시월대대특집호 가을 특별호에 처음 발표가 되었다. 목차에는 제목이 '天空의 勇少年' 장르는 소설, 작가명은 허문일이라고 서술되었다. 당시 편집인은 방정환이었는데 작품이 실린 58면의 제목을 보면 화성소설(火星小說)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텍스트 서두에 서술된 정보로 번안 소설임을 알 수 있다.

> 이것은 화성(火星)이라는 별나라에 사는 ∵라는 소년과 그아저씨 X박사가 실지로 행한 일을 간단하게 추리여 쓴 이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다 ∵등 화성사람들의 쓰는 글자를 알지못함으로 소년의 일홈은 한달이라 부르고 그아젓씨는 별-박사라고부릅시다. - 번안자

현재까지 「천공의 용소년」의 번안자가 방정환이라는 주장과 농민 문학 작가 허문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천공의 용소년」의 속편은 1930년 11월에 창간된 제8권 제9호 11월특집호에 실렸으며 제8권 제9호의 편집자는 방정환이었다. 목차에는 과학소설(科學小說) 허문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작품이 발표된 24면 제목에는 처음 연재된 것처럼 화성소설 천공의 용소년 허문일이라고 쓰여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의 저자와 편집자는 이 작품을 과학소설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은 "별-박사의 비행긔는 대포알에 날개쭉지를 마자 핑글핑글돌기를 시작햇습니다." -(계속)- 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작품의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1930년 12월 20일에 출간된 제8권 제10호 경오송년호 66면 특고란을 통해 알 수 있다.

> 特告
> 이번 호에 너으려다 첫페이지 사고에 말슴드린바의 사정으로 못들어간 글을 적으면 아래와갓습니다. 삼가필자와 독자에 謝합니다.
> 천공의 용소년 (소설) 허문일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천공의 용소년」은 검열에 걸려 연재되지 않았다. 1면 특별사고란을 보면 이 작품이 실리지 않은 이유와 「천공의 용소년」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 『어린이』 이닫치는 임의 신문지상을 통하야 발표된바와가티 당국에제출하엿든 원고전부가 붉허

39) 허문일, 「천공의 용소년」, 『어린이』 제8권 제8호 10월대대특집호, 1930. 9. 20.
허문일, 「천공의 용소년 (속)」, 『어린이』 제8권 제9호 11월특집호, 1930. 11. 20.

가의 처분을 바든 싸닭에 두번씩 써주신원고 이외에 것은 웃절수업시 못들어가게되엿습니다.
이달호에 싯을내려든 계속독물을 영영못내게된것과 밧보신중에 『어린이』를 위하야 붓을 들어 주신 여러분 선생의 조흔들을 이상사실로인하야 못 실게된 것을 필자께 또는 독자께 사(謝)하옵니다.

예정되로 발표가 되었더라면 「천공의 용소년」은 제8권 제10호 경오송년호로 끝이 났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천공의 용소년」은 미완성 작품으로 끝났고, 지금까지 『어린이』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어린이』에 허문일이라는 작가명으로 기록된 작품은 「천공의 용소년」, 「기럭이(낙질), 「뒷집령감」, 「숨은 명예」, 「뫼나는 걸상」, 「소낙비」, 「기와한장」, 「조선 속언집」이 있다. 「천공의 용소년」의 저자와 원작이 규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검열 때문이었다. 이 작품이 해외에도 이미 있는 번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문장이 있기에 검열되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천공의 용소년」은 분명 시대적 문제작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제 어떤 지점이 문제작인지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과학 서사가 모방하는 시대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sf소설 「천공의 용소년」은 화성에 사는 한달 소년과 별박사가 고심하며 연구하고 발명한 발명품 비행기를 타고 지구성으로 여행을 가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이다.

SF 소설은 (Science Fiction) 과학소설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사실주의 소설과 다르게 독자가 경험할 수 없는 미지의 우주 공간을 모방한다. 그런 면에선 환상적 경험을 주는 환타지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환타지 소설과 차이는 반드시 과학 원리에 기초를 둔 상상력이라는 점이다. 등장인물이 겪는 사건은 지금 현실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한 사건일지라도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공간은 곧 다가올 미래사회를 예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우주적 상상력을 다룬다.

'테라포밍' 이란 용어는 1942년 미국의 SF 작가 잭 윌리엄스의 소설 『충돌 궤도』에 처음 사용되었다. 지구화(地球化), 행성개조(行星改造)라는 뜻으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및 위성, 기타 전체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지구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행성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다른 행성에 지구처럼 생물권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칼 세이건은 『이카루스지』에 게재된 〈Planetary Engineering on Mars〉에서 1973년에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제안하였다. NASA는 화성을 거주가능한 행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40]

「천공의 용소년」은 화성인이 지구로 오는 설정이지만, 1930년대 화성이라는 행성을 주목하게 하여 현재까지 화성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가 가진 가치가 크다. 한달소년과 별박사가 살아가는 화성, 「천공의 용소년」 속 작품의 시공간이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글쓰기, 테라포밍적 사고를 갖춘 글쓰기이다. 이 지점은 환타지와 구별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작품을 읽는 독자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시

40) 테라포밍, 위키백과 참고

공간이기에 환타지의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환타지와의 차이점은 갈등과 문제 해결에 있어 허무맹랑한 초월적인 마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공간에 과학적 요소와 현재 과학기술로 설명 가능한 원리를 갖춘다는 것이다. 또 우연히 전개되고 우연히 사건이 해결되는 비이성적인 플롯이 아니라, 이야기의 사건은 뚜렷한 인과관계와 추론의 과정을 거치며 과학적 사실 및 실험적 검증을 갖추고 있는 논리의 이야기이다.

1) 발명의 리얼리티, 「천공의 용소년」의 발명품

이 소설에 등장하는 발명품은 이상한 기계로 표현되는 지구성에서 보낸 무선전화, 회색빗날개, 괴상한 비행기(비행기 몸체와 날개는 운석으로 만듦) 라디오, 망원경, 산소를 만드는 기계, 석면과 운모로 만든 옷 (이상한 석면 옷으로 중력이 입혀져 이 옷을 입으면 화성에서 지구로 가는 비행기 속도가 빨라짐)이 있다. 이 발명품들은 모두 지구인들보다 지혜가 있고 학식이 풍부한 별 박사의 연구물이다. 별박사가 발명한 물건들은 만일 이것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지구여행을 안전하게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한달소년이 별박사에게 발명품들의 사용법과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는 문장을 통해 독자도 생활을 유익하게 해 주는 과학의 실용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이 발명품을 설명할 때도 철저히 규칙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사실 여부로 서술되는 것이 과학적 글쓰기의 특징이다. 과학소설은 사실주의 소설은 아니지만 과학 요소로 인해 실제 현실에 있는 과학의 리얼리티가 획득된다.

> ∵에 가시엿서? 그러면 일천오백리나되는구나. 네의날개로는 세시간이나 걸닐터이니 저-긔계실에 들어가서 회색빗날개를 가지고 갓다 오너라. 그것도 지구성에 갈 준비의 하나로 내가 새로히 발명하야 맨들어둔것인데 한시간이면 넉넉히갓다올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날개처럼붓치면 넘어 빨나서 정신을 일흘터이니 천천히부처라. 그래도 보통 날개의 멧갑절이나 빠를터이니……
> 이러케되여 한달소년은 회색빗날개를 겨드랑이에부치고 날느기를 시작하엿습니다 화성에ㅅ사람들은 벌서 멧백년전부터 이상한날개를 발명해서쓰는데 그것을 겨드랑이에 붓치면 제비보다도 더 빠르게 날느는 것이엿습니다. (61면)

『어린이』에는 「천공의 용소년」처럼 양력과 달력, 시간에 대한 글이 많이 실린다. 또 어린이 독자에게 퀴즈를 내고 시계를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상대성은 우주를 탐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며 우주 과학소설의 리얼리티를 획득하게 하는 것은 무중력의 공간인 우주에서 공간의 거리에 따른 시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는 것이다. 회색빗 날개는 시간을 소비하는 여행을 경제적으로 단축하는 발명품이며 인간의 생체에 기계를 부착해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트랜스 휴먼'의 모습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 기술이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모습에 주목하는데 1930년대 「천공의 용소년」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새롭다.[41]

41) 여기에서는 한달소년이 완전한 사이보그가 된 것이 아니라 날개라는 기계를 붙인 것이므로 트랜스휴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트랜스휴먼이 더욱 진화하면 완전한 사이보그가 될 것이다. 그것이 포스트 휴먼이다.

제2권 제1호, 통권12호, 신년특별호 표지 사진

제4권 재판 제2호, 통권 37호 벨 선생 사진

『어린이』에 '전화'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24년 1월 3일 제2권 제1호, 통권 12호, 신년특별호 표지 사진이었다. 그 후 위인의 사진과 함께 전화 발명가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1926년 2월에 발표된 삼산인, 「전화발명자 알렉산더·그라함·벨」 제4권 재판 제2호, 통권 37호였다. 이글은 위인전기문 성격의 글이다.

> 벨-은 어렷슬때브터 션텬덕(先天的)으로 발명의 텬재를 가젓기때문에 그가 소학교를 맛추고 겨우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재조가 비상하야 어른들도 생각지 못한일을 틱틱 맨들어냇습니다.
> 벨-이 사는 싀골에 조고만 물네방아간이 하나잇섯는데 날이감을듸지하면 물이적어서 맷돌이 잘 돌지를 안는 때가 만헛슴니다. 그럴 때면 물방아간을 맛허보는 늙은령감은 물긔운으로 도겨우 돌아가는 그 무거운 맷돌을 손으로 돌리느라고 짬을 쎌쎌흘니며 애쓰는 것을 벨-은 보앗습니다.
> 벨-은 남의일이나마 이 앳처럼고가여운정경을 보고는 너무도불상한생각이나서 쏙 일주일동안 밤에 잠을안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결과 우선 물네방아의중심이되여잇는 맷돌을 뭇척가볍게 곳처 만들게 하엿슴니다 그랫더니 과연 벨이 생각한대로 맷돌이 가벼워지서 아모리 물이적드라도 사람의 힘을 요하지 안코 잘 돌아갈뿐아니라 밀이 그전보다도 더 곱게잘갈어젓슴니다.
> 벨-이 나종에 전화를 발명하여 영원히 전세계 인류의 은인이 된것은 전혀 그 때에 잇서서 음성학을 전문으로 연구한것이 큰 도움이 되엿다합니다. -「전화발명자 알렉산더·그라함·벨」

벨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힘을 덜 들일 수 있을지 맷돌의 무게를 조정하는 끈질긴 연구 끝에 물레방아를 잘 돌아가게 하였고, 이와 같은 벨의 노력은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전화를 발명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전화에서 더 진일보하여 무선전신이 소개된다. 무선전신 발명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탈리아 사람인 굴리엘모 조반니 마리아 마르코니이다.

1895년 마르코니는 헤르츠의 전자기파 이론에 기초하여 실험을 했고 이 실험으로 무선 전신 장치를 발명하고 특허를 받는다. 그가 발명한 무선 통신기는 거리의 제한 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함선에 이용되어 조난 구조에도 사용되었다. 그가 발명한 무선전신기로 인해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가 발명된다. 그는 1933년 11월 경성을 방문한다.[42]

아래 글은 『어린이』[43]에 소개된 무전왕 말코니[44]이야기이다. 말코니에 대한 글은 『과학조선』[45]에서도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라디오와 관련하여 경성을 방문했기 때문으로 추정

42) 나무위키, 위키백과 참고
43) 한인석, 「저번에 다녀간 「말코니」는 누구?」 『어린이』 제11권 제12호, 통권 115호, 도깨비특집호, 1933. 12. 20. 10~11면.
44) 말코니는 굴리엘 마르코니이다.
45) 「무전왕 말코니」, 「말코니의 성격」, 「말코니-의 일화」, 『과학조선』 제2권 제1호, 1934. 1, 18-19면

한다.

무선전신이 발명되기까지에 나어린그는 얼마나 고심햇나
말코니라는 이태리사람이 우리조선을 다녀갓는데 여기 그를 간단히 소개하랴합니다. 지금 무선전신을 모를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코니는 무선전신을 발명하고 개량하야 세상사람들이 무선전신왕이라고 불으는 사람으로 지금 이태리 나라를 좌우하는 뭇소리니와 아울러 이태리의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중략/ 독일학자 헬스라는 사람이 막스웰의 리론을 실험하기 시작햇슬때에 말코니는 십이세의 소년이엇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스 실험을 또 연구하는 사람인 로기라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그 당시에 발표되는 실험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열심으로 자기혼자 되푸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벌서 소년 말코니의 머리속에는 무선전신을 만들 수 잇다는 생각이 떠돌기시작하엿습니다. 그리하여 열심으로 연구한 결과 마침내 무선전신을 발견하엿습니다./중략/ 만일 말코니가 없엇든들 오늘날과 같은 무선전신과 라디오와 같은것을 가젓슬가 생각할때에 말코니를 무선전신왕이라 불으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 그의 남모를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말코니를 다시한번 만족에 그려보시기 바라며 우리에게도 장래에 조선의 말코니가 생기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 한인석, 「저번에 다녀간 「말코니」는 누구?」, 『어린이』

말코니씨는 어렷슬때붓터 말이 적고 얼른보면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한번연구하기시작하면 그 철저하기 란 막감당(莫堪當)이엿다. 그는 공개석상에서도 침묵을 직히고 잇다가 최후에 썩족한 의견을내놋는다는 것이다. - 「말코니의 성격」, 『과학조선』

현재 과학 기술로는 컴퓨터 기능에 전화도 되는 스마트폰이 있지만 1930년대 무선전신의 발명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익한 통신 수단이었다. 마르코니는 통신의 혁명가이자 발명가였다. 또 특허를 통해 독점회사를 차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 이처럼 발명은 모든 사람의 생활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며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를 유익하게 한다.

"분명하다. 이것은 분명히 지구성에서 보낸 무선전화이다. 그러나 말을 알 수가 업서서 유감이고나! - 「천공의 용소년」

「천공의 용소년」에서도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전화가 등장하고,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서 무선전화로 지구인과 화성인이 소통할 수 있다는 상상력은 과학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소통할 수 없는 것은 거리감 때문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기에 서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설정은 매우 논리적이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이 과학적 사고의 예시이다.

혼잣말로짓거리다가 또다시 깁흔 생각에 젓는 모양입니다. 아젓씨가 또무슨 신긔한 발명을 하게된 모양을 보매 한업시깃부기도하고 또는가슴이울넝거리여 무엇인가 물어보고십흔것을억지로참고섯든 한달소년은 박사가
-「천공의 용소년」

「천공의 용소년」에서 발명품의 수식어는 '신기한', '이상한', '괴상한' 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이기에 괴이하지만, 그 신기한 기계 덕분에 우주여행의 꿈이 실현되기 때문에 특별한 발명품이다.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이 굉장히 유익하고 특별한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발명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을 지녔는지 알아보자. 1930년 2월 20일

발표된 『어린이』 제8권 제2호, 통권 72호 권두에 실린 글[46]이다.

>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듸손이 자긔부인과 혼인례식을 할 때에 일임니다. 식장에는 발서중매쟁이와 그의 친척과 또 동무들이 구름갓치 모혀섯고 목사는 지금막 두사람사이에 아조부부가되는 텐마즈막맹서를 식혀주려할 때인대 그 때 돌연히 에듸손의 머리속에는 이 때까지 영영 생각이 나지안튼 무슨긔계발명에 대한 조흔고안이 머리에 써올낫슴니다. 그러니 조금 원만한 사람이면 아모리급해도 체면상으로 보든지 일에 정우로보던지 례식이나 씃내고 엇더케하드라도 할터인대 그는 그 생각이 머리에 써오르자마자 갑작이 『오-』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모힌사람에게 아모런 말도업시 그냥자긔집연구실노줄다름질을처왓슴니다. 그리고 방문을구지다든후에 잇흘낫잇흘밤을 먹지도 자지도안코 열심히연구 한 결과 크듸큰 발명을 또하나 하게되엿담니다. - 偉人逸話集에서

에디슨처럼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솟구치면 상황에 상관없이 연구에만 골몰하는 외골수적인 자세가 발명가의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에디슨 이야기는 『어린이』 에서처럼 '고심'이라는 표현으로 『과학조선』[47]에도 실렸을 만큼 과학 위인으로는 자주 소개되었다.

> 발명가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개어려운환경에 잇는 사람이 비교적만흔듯하다 에듸손 갓흔 대발명가도 그가 소년시대에는 미국 오하요주 미란이란 조고마한 부락에서 편모시하에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기차에서 신문파는아해가 되야 근근히 생활햇다한다 그는 어렷슬때부터 연구를 조하해서 기차속에서 화학약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다가 화학약의 작용으로 그만 기차에 화재가이러낫다. 역장이 펄펄 뛰고달녀와서 나어린 에듸손의 뺨을처서 귀의고막이 터젓다는것은 보통만히전해오는말이다. - 『과학조선』

「지구성에서 무선전화가온다」 고 부르짓는소리를듯고서 그만참지못하고
아저씨! 지구성에사는사람들도 학문이 죄발달된것이로군요? 하고 물엇습니다. 별-박사는 감앗든 눈을 스르르 쓰며 오오, 한달이가 벌서왓구나! 그러타! 지구성에 인간들도 지혜가 퍽- 발달된 모양이다. 이러다가는 우리화성에 사람이 지구성을 방문하기전에 그곳사람이 먼저차저오게될는지도 알수업다. 그리케되면 우리화성인간전체의학문이 다른별나라사람보다 뒤써러젓다는것을 왼우주에 들어내이게 되는 것이니 그랴서야 될말이냐? 나는 이제부터 일년동안 모-든 준비를 다-차려가지고 지구성으로 려행을 가겟다. 지구성방문이 내일생에 첫재계획이고 그다음은 해왕성방문이다. 내가 만일 불행하게 일에 실패를 하고 죽는다든지하면 내 뒤를 계속하야 사업을 완전하게 성공할의무와 책임이네게 잇다고 나즈막하지만 힘잇게 또는 썰리는 목소리로 말햇습니다. 한달소년은 별-박사의 말마듸마듸가 전긔가티 인몸을 찌르는 것 가태서울넝거릴대로 울넝거리는 가슴을 겨우진정해가지고 - 「천공의 용소년」

「천공의 용소년」 의 별박사도 연구에 골몰하면 한달소년이 방문한 지도 뒤늦게 알아차릴 만큼 오직 연구에 푹 빠져 주변 상황을 살펴보지 못하는 강한 집중력과 몰입, 또 끈질긴 탐구정신으로 묘사되며, 미래의 과학자이자 예비 발명가인 한달소년 역시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탐구 정신을 지닌 성격으로 그려진다.

> 그러면 아저씨가 지구성으로 려행을 써나실 때에 저도다리고 가주세요 지구성에가서 그곳 아해들을 맛나 우리화성에ㅅ일을 자랑도 하고 또는 그곳에서 조흔선물을만히가지고도라와서 어머님 드리고 십허요. 네! 아젓씨! 꼭 가티 가세요.
> 무엇! 네가 천공려행을 하다니! 어린네가 어써케 그러케위험한일을 할 수가 잇겟니? 이것은하로잇흘려행이아니고 지구성에싸지갓다오려면 적드라도 오륙년이라는 세월은 질려야 한다. 나도 암만해

46) 편집인, 「발명가의 고심」, 『어린이』 제8권 제2호, 통권 72호, 1930. 2. 20, 1면.
47) 「전등발명과 에듸손의 고심 「과학조선』, 제2권 제1호 1934. 1, 28면.

도 조수가 한사람잇서야되겟는고로 어대서삶을하나데불러다가 가티가야되겟다만은 조수도천문학과 일반과학에 상당한 지식이 잇는 사람이아니면 안되겟는 까닭으로 적당한 사람을 생각하는 중이다. 넌느런생각하지말고 어서 공부나 착실히 하여라!고 타인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치만 한달소년은 쭉 으러지지안코 무어! 천문학자이요! 다른것은몰라도 아젓씨께서그동안 오년간이나 가르쳐준것은 하나 모르는것이 업시 전부다- 알공씁니다. 쏙저를 다리고 가세요! 네! 아젓씨! 죽드라도 조와요! 하고 울듯이 말했습니다. -(60면)

지구로 여행은 지구인이 화성에 먼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지구를 방문하겠다는 의지이며 그 의미는 화성인으로서 자신이 지구인보다 더 지혜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의지이다. 이렇게 보통인보다 별난 학구열과 탐구심을 가진 한달소년과 별박사가 천공의 사람 화성인으로 설정됨으로써 '화성인'은 화성에 사는 사람만이 아닌 죽음을 무릅쓰고 탐험을 떠나는 용기와 특별한 혜안을 가진 선구자적 발명가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별박사가 화성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화성인'은 별난 발명가지만 그 나라의 운명이 그 손에 달려 있다. 그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언하여 현실을 미리 개선하려고 하는 지식인이자 영웅이기도 하다. 지구로 떠나는 우주 탐험에서 한달소년은 별박사를 통해 지혜를 배우며 미래의 운명을 책임질 단단한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래도 아젓씨! 그러케큰사업의 준비를 단 일년동안에 어떠케다- 하시겟습닛가? ·박사와 ··박사도 두세번식이나 천공려행을 떠낫다가 준비가 완전하지 못한탓으로 모두 실패가 되지 안엇습닛가? 내가 이계획을품은지는 벌서 퍽-오래엿다. 너처럼 어릴때부터 모-든것을 연구하고 또는 준비해서 이제는 거진다- 준비가되엿다. 남들은 모다 실패를햇지만 나는 쏙성공할자신이잇서서 이일을 시작하련다.

그리고 별박사의 탐험정신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1년 동안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며 꼼꼼히 준비해왔던 성실하고 계획적인 실천이었다. 화성에서 지구로 떠나는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려운 일이지만 별박사의 철저한 준비성의 태도에 한달소년은 매료되어 그를 믿고 여행에 동참하고 싶은 도전 의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별박사는 한달소년을 자신처럼 유능한 과학자로 성장시키며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 또한 그들의 행동과 성격을 본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2) 제국주의 지구에서는 살 수 없는 '화성인', 우주 탐험 서사의 아동관

『어린이』는 세계여행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다루었다. 세계여행은 미지의 대륙을 발견하는 탐험정신을 일깨워준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부분적으로 여행하다 보면 이 부분적인 사실이 연결되어 머지않아 지구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의 차이를 발견하며 우리 민족만이 가진 역사, 건축물, 유물, 이야기, 언어, 땅, 동식물을 통해 고유한 특성과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탐험가 이야기[48]는 섬과 대륙에 대해 이해하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서사이다. 또 위인 전기문과 기행문 성격으로 사실적 경

48) 『어린이』에 발표된 탐험 이야기로는 최경화, 「아뿌리카 탐험자 리빙그스톤」, 제8권 제7호, 통권 77호, 신추특집호, 1930. 8. 20., 박상엽, 「아메리카의 발견(1)(2)」, 제11권 제9호, 통권 112호, 초가을호, 1933. 9. 20., 제11권 제10호, 통권 113호, 편지특집호, 1933. 10. 20. 가 있다.

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만일 탐험가가 등장하는 창작 모험서사에서 날씨에 대한 묘사, 공간적 지리를 설명하는 과학요소가 결합된다면 과학 탐험 소설이 되는 것이다. 과학 탐험 소설은 과학정보를 전달하기에 유익하며 탐험가 인물을 통해 두려움을 딛고 용기 있게 삶을 개척해나가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된다.

> 이 탐험중에 그의 마음을 가장 찌른것은 노예산양이엿습니다. 평화로운 토인의 부탁에 난데업는 총탄의 사격이나더니 너머지는 사람업더지는 사람 아들을 안고 죽는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며 우는 어린에 말할 수 업시 처참한 광경이 나타낫습니다. 그리더니 포도야葡萄牙[49]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잡아묵거가지고 해안으로 끌고나갑니다. 엇던 째 리빙그스톤은 노예산양꾼의 사격을 바다 토인의 부탁이 전멸하는 것을 보앗습니다. 그는 놀랏습니다. 그의정의심은 불타올랏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사실을 영국에 써보냇습니다. 영국에서는 노예를 폐지하라 비인도적인 노예산양을징벌하라 하는 여론이 놉하젓스며 정부는 곳령지에다 통지하야 노예산양을 엄금하게하고 밧게서드러와 노예산양하는 자들을 처벌키로하엿습니다. - 세계위인소개, 최경화 「아푸리카 리빙그스톤」[50]

『어린이』에 발표된 위의 글은 아프리카 노예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는 조선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천공의 용소년」의 속편 끝부분에서 드러난다. 아마도 아래와 같은 묘사로 인해 일제의 검열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아이고! 저것보아요. 씀쓱씀쓱하기도 합니다. 저히끼리서로 쒈너죽이는군요! 아하! 그 몽둥이가튼것이 몽둥이가 아니라 곰산양할 째에 쓰는 총이군요. 에이구! 무서워라! 총으로 사람사람끼리 서로 쏘아죽이다니!
> 응! 그러쿠나 그리고 저것을 보아라! 저 커라난총을! 저것을 한방터트리면 몃백명사람이 한쎠번에 죽겟고나! 저런것을할째에는 지구성에 사람은 아즉도 조흔생활을 못하겟다 흡연히 칠백여년전 화성인류와갓고 나! 별! 박사는 탄식하드시 대답햇습니다.
>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화성에ㅅ 사람들도 저러케 씀즉씀즉한것을 햇습닛가?
> 그러면 그 째에는 가튼화성나라에 사람 끼리 서로네나라이라 내나라이라는편을 갈나가지고 전쟁을 하엿단다. 임금을 위해서 또는돈만흔사람을 위해서 돈업고 일잘하는 백성은 모다 쏍혀 나가서 피를 흘니고 죽군햇다. 지금저지구성사람들은 그 전쟁을 하는구나!
> 전쟁! 전쟁! 싸홈이란말이군요. 그런대돈-이란무엇입닛가? 임금이란 무엇입닛가?
> 평생에 그런말을 처음듯는 한달소년은 재처묻엇습니다. 그째입니다. 지구우에서 서로 싸호든 병정들은 공중에 이상한 비행긔가 써도는 것을 보고 적국의정찰긔로만녁여 고사포의 조준을 정하야가지고 쏘앗습니다. 별- 박사의 비행긔는 대포알에 날개쭉지를 마자 핑글팡글돌기를 시작햇습니다. - (계속)

전쟁과 돈, 임금은 일제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총으로 사람끼리 서로 쏘아죽이는 행동은 좋은 생활이 아니고 야만적이며 과거의 화성사람들처럼 미개한 행동이다. 서로 다른 나라끼리 편을 갈라 하는 전쟁은 임금(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자본가를 위해 돈 없고 일 잘하는 백성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불운한 일이다.

「천공의 용소년」의 작품 의도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는 지구

49) 포르투갈을 의미한다.
50) 제8권 제7호, 통권 77호, 신추특집호, 1930. 8. 20,18면.

인은 지금 현재 식민지 조선의 모습이며, 이 싸움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제국주의 일본이고 결국 힘없는 백성만 죽임을 당하며, 이 야만적인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조선의 운명을 안고 있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어 일본 천황을 위해 싸우지 말 것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 주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걸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준다.

"새란 놈아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땅우에 잇는 모든 물건을 단번에 내려다보고 하하 저기는 무엇이 잇고 여기는 무엇이 잇고나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러케 보는 것을 조감(鳥瞰)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가끔 이러케 세상일을 큰 눈으로 통트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심형필의 글에서처럼 한달소년과 별박사가 비행기에서 지구인을 바라보는 행위는 가까이에서 보면 안 보이고 하늘 높이 떠서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별박사의 '이상한 비행기' 발명은 제국주의에 대한 한달소년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는 발명이며, 제국주의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비행기일뿐이며, 적군의 정찰기로 격파해야 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하지만, 이상한 비행기와 같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생각의 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제국주의의 전쟁을 정당하게 보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싸우는 지구인들(일제에 세뇌당한 생각 없는 일반 민중들) 사이에 '이상한 비행기' 는 지구에 정착하지 못하고 천공(天空)에 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천공의 용소년」에 숨어 있는 반짝이는 진주이며 이 작품이 1930년대에 번안되었던 이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정화)를 행한다."고 했다.[51] 「천공의 용소년」은 비록 미완성 작품이지만, 등장 인물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 갑작스러운 죽음의 최후를 맞이할 것만 같은 비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지구인들이 적군의 정찰기라고 본 '이상한 비행기'는 대포알에 날개쭉지를 맞아 방향을 잃었다. 일제의 폭력적 탄압은 극심해지고, 자유의 날개는 제거당하고 곧 추락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비행기'에 탄 상황이 조선의 운명이자 1930년대 시대적 상황이다.

하지만 폭격을 맞은 '이상한 비행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독자의 역할이다. 이 작품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과학적 글쓰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관이며 근대의 문예 창작에서 드러나는 『어린이』의 아동관이다. 이렇게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날지라도 이 비극적 열린 결말은 별박사와 한달 소년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적극적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발휘시켜 이야기를 읽는 재미를 준다. 물론 주인공에게 다가온 위기의 상황에 독자는 불안해지지만, 독자는 이 이야기를 행복한 결말로 할지, 아니면 비극적 결말로 할지 우주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과학적 인과관계를 총동원하여 결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기에 이 작품이 비록 미완성으로 끝났더라도 결코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작품이라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51)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49면.

4. 맺음말

코로나 이후, 포스트 휴먼 시대에 도래했다. 음식점에는 노동자 대신 키오스크 기계가 대신 주문을 받고, 지식의 전달은 교수와 학생이 대면으로 만나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줌(ZOOM)이라는 인터넷 소통을 통해 공간과 시간성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 NASA의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모래언덕을 넘어 산을 촬영한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였다. 현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결과는 과거 역사의 산물이다. 현대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근대 시기의 발명품인 비행기, 전화, 라디오 방송, 사진, 영화, 망원경은 과학기술 발명의 소산이었다. 근대의 과학적 글쓰기는 '발명'의 중요성과 연결되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공장의 어린 노동자가 아니라 과학교육을 통해 에디슨처럼 특허를 발명해서 과학자로서 성장해 가난한 경제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독립심을 키워 주었고, 호기심을 해결하고 실증적 탐구 정신을 길러주며, 문제 해결력을 키워 주었다.

우주적 상상력은 언젠가는 죽는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치환하는 상상력이며, 다윈의 진화론처럼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상상력이다.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는 식민지 어린이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고민하며 근대과학의 형성사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활발히 진행됐다.

1920년대에는 민족의 해방과 자주적 경제의 독립을 목표로 하며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유학파 지식인들 중심으로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과학이 어린이들에게 다가온다. 부국강병과 경제부흥을 위해 김용관의 발명학회를 중심으로 '발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며 1930년대에는 보다 적극적인 과학지식보급회의 활동으로 과학 교양잡지 『과학조선』 발간과 더불어 실생활에서 발명과 실험을 중요시하는 과학의 대중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이와 같은 과학에 대한 조선인의 관심에 대해 위험을 파악한 일제는 조선의 자주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고 일제 식민 산업에 어린이를 동원하며 통제해 왔다. 이와 같은 시대 배경 속에서 발명학회의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린이』에 과학적 글쓰기가 진행되었다. 또 새로운 글쓰기의 유형으로 1930년대의 초입에 우주탐험 과학소설인 번안 소설 「천공의 용소년」이 『어린이』에 발표되었다.

『어린이』의 과학 서사는 우주에 무한한 생명이 깃들어 있듯이 어린이는 내면에 우주로부터 이어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보다 나은 존재로 성장,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갖추는 것이며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세워 실험의 과정을 거쳐 증명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는 것으로 환원하는 일이다. 발명은 인류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구름이 비가 되고, 촛불이 전기가 되는 것처럼 생명력이 깃든 어린이들은 계속 성장해나간다.

일제 식민지의 어린이들은 폭력적인 지구에 영원히 정착할 수 없는 화성인이다. 하지만 '화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천공의 용소년」에서 고작 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지닌 사람

을 죽이고야 마는 전쟁이 없는 화성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별박사처럼 학문을 하며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오른다는 것은 지혜를 터득하여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높은 의식 수준으로 비록 어두운 현실이더라도 멀찍이 떨어져 자기가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을 총체적이며 똑바로 인식하는 일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은 짐승보다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임을 깨닫는 일이다.

일제는 어린이들까지 제국주의의 전사로 희생하였다. 「천공의 용소년」은 조선 어린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한다.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주체적이지 못한 삶, 무지하고 야만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학을 배우는 것이고, 과학은 미래 사회를 예언하여 지금의 삶을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한다. 이제 발명하는 어린이는 식민지에서 탈출하여 생명의 근원이 있는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환상으로 꿈꾸던 것이 실제가 되는 일은 과학소설(SF)을 읽는 즐거움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를 다룬 『어린이』의 과학적 글쓰기가 가진 의미이자 근대의 어린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아동관이었다.

■주제어: 어린이, 근대의 문예창작, 일제강점기, 과학적 글쓰기, 환상과 리얼리티, 우주적 상상력, 발명하는 어린이, 근대 어린이를 위한 생각, 포스트 휴먼, 생명, 과학조선, 발명학회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어린이』 1호~122호, 보성사 1923. 3. 20~1935. 3. 1. 영인본

김경희 외, 『어린이 총목차』, 소명출판, 2015.

허문일, 「천공의 용소년」, 『어린이』 제8권 제8호 10월대대특집호, 1930. 9. 20.

허문일, 「천공의 용소년 (속)」, 『어린이』 제8권 제9호 11월특집호, 1930. 11. 20.

『과학조선』, 과학세기사, 외대 중학연구소 편, 영인본

조만식, 「내가 조와하는 少年」, 『어린이』 제11권 제3호 창간10주년기념호, 1933. 3. 20, 10~11면.

일기자(방정환), 「공장 소년 순방기 제1회 별표 고무공장」, 『어린이』 제8권 제7호, 통권 77호, 신추특집호, 1930. 8. 20. 24.~28면.

윤주복, 「발명과 과학」, 『과학조선』, 1933년 7·8월 특집호, 32면.

윤주복, 『까지 이야기 석유와 양초」, 『어린이』 제9권 제3호, 통권 83호, 창간8주년기념호, 1931. 3. 20. 266~268 면.

『어린이』 제11권 제2호, 통권 105호, 1933. 2. 20. 2~3면.

『어린이』 제1권 제9호, 통권 9호, 1923. 10. 15, 표지(속)

『어린이』 제1권 제10호, 통권 10호, 1923. 11. 15, 표지(속)

안창남, 「비행긔는 어떻게 쓰나」, 『어린이』 제1권 제10호, 통권 10호, 1923. 11. 15, 12~14면

이정희 「비행기 견학」 『어린이』 제10권 제11호, 통권 102호, 1932. 11. 20. 26~33면.

신영철, 「과학을 배우자!!」, 『어린이』 제10권 제2호, 통권 93호, 2월특집호, 1932. 2. 20. , 2~3면.

김규택, 「진화론을 지어낸 따윈의 연구」, 『어린이』 제9권 제9호, 통권 89호, 10월혁신특집호, 1931. 10. 20, 53면

최경화, 「신비한 생명」, 『어린이』 제10권 제9호, 통권 100호 임시호, 1932. 9. 20

심형필, 「사람은 어디서 왓나」, 『어린이』 제12권 제6호, 통권 121호, 1934. 6 . 20, 12, 14면.

한인석, 「저번에 다녀간 「말코니」는 누구?」 『어린이』 제11권 제12호, 통권 115호, 도깨비특집호, 1933. 12. 20. 10~11면.

「무전왕 말코니」, 「말코니의 성격」, 「말코니-의 일화」, 『과학조선』 제2권 제1호, 1934. 1 , 18-19면

편집인, 「발명가의 고심」, 『어린이』 제8권 제2호, 통권 72호, 1930. 2. 20, 1면.

「전등발명과 에듸손의 고심 「과학조선』, 제2권 제1호 1934. 1, 28면.

최경화, 「아푸리카 탐험자 리빙그스톤」, 제8권 제7호, 통권 77호, 신추특집호, 1930. 8. 20,

2. 논문 및 평론

한민주, 「어린이 혁명가를 위한 과학: 마르크시즘, 진화론,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1920~1935)」, 『한국과학사학회지』 37권 1호, 2015.

한민주, 「이상한 나라(Wonderland)의 과학적 글쓰기: 1930년대 후반 아동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5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권혁준, 「SF 아동청소년 문학과 과학적 상상력-SF 소설의 개념, 특성, 범주와 한국 SF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시공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정진헌, 「일제강점기 염근수 아동문학 활동 연구」, 『동화와 번역』 제36권, 동화와번역 연구소, 2018.

최애순, 「1930년대 과학조선과 식민지 조선의 발명·발견에 대한 기대」,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22권 1호 통권43호, , 한국근대문학회, 2021.
김기전, 「개벽운동과 합치되는 조선의 소년운동」, 『개벽』, 1923. 5.
김정인, 「1920년대 천도교 소년 운동의 이론과 실천」, 『한국민족사연구』 73, 2012, 151면.
정운형, 「Arthur L. 베커 신교사와 근대 과학 교육」, 『인문과학』 111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108면.
박성진, 「대한제국기-1930년대 과학 담론의 형성 및 전개 과정」, 『경기사론』 2, 1998. 140면.

3. 단행본

최명표,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36면.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 휘문출판사, 1975, 38면.
페리노들먼, 김서정 역,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1』, 시공주니어, 2001, 226면.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19. 40~43면.
김견우,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저 30~31면.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49면.

4.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

김용관, 위키백과
「과학데이회와 그 사업」 <동아일보>, 1934, 3, 5.
「문화운동에 큰 도움 」, <조선중앙일보>, 1934, 3, 5.
「과학데이의 의의 」, <조선일보>, 1934, 4, 19.
굴리엘모 마르코니, 나무위키
테라포밍, 위키백과

‘『어린이』에 나타난 근대의 문예창작 - 우주적 상상력의 환상과 발명의 리얼리티를 다룬 과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재은(동화작가)

최초의 어린이잡지인 『어린이』에 관한 연구, 특히 과학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마주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서희경 선생님의 논문 앞부분에서는 과학기술을 설명하는 글,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칼럼, 실험 이야기, 약품 및 선물 광고, 과학 요소와 사건이 등장하는 동화 및 소설 등 과학과 관련된 글을 모두 ‘과학적 글쓰기’로 분류하며 소개합니다. (*‘과학적 글쓰기’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린이』에 실린 다양하고 풍부한 과학 관련 글들이 당대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명학회’ 회원들이 어린이잡지의 내용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 이면에 등장한 어린이 노동의 현실과 초기 여행비행사의 글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서 『어린이』의 방향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명 담론과 관련된 글 역시 흥미로웠지만, 새가 조감하듯이 “모든 만물의 세상일을 큰 눈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적 사고의 태도”로서의 과학적 시각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언급된 다윈의 진화론 및 포스트휴먼 담론은 다소 매끄럽지 않게 읽혔습니다.

논문의 뒷부분은 1930년에 『어린이』에 발표된 ‘화성소설’ 「천공의 용소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미 읽은 바 있는 「천공의 용소년」이 완결된 게 아니고, 뒷부분이 검열에 걸려 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논문에서는 「천공의 용소년」의 서두를 언급하며 번안 소설로 규정했는데, 사실은 번안 소설을 가장한 창작소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혹시 원작을 찾으셨다면 알려 주세요!) 다시 읽어도 「천공의 용소년」이 보여주는 우주적 상상력과 발명의 리얼리티는 감탄할만합니다.(물론 소설 내부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비과학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공간에서 비행기와 대기의 마찰을 가정하는 것 등.) 「천공의 용소년」은 화성에 이미 존재하는 문명을 전제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므로 ‘테라포밍’과는 큰 관련이 없으며, 발명품인 ‘회색빛 날개’ 역시 ‘포스트 휴먼’을 드러내는 장치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달소년과 별박사가 비행기에서 지구인을 바라보는 행위”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 SF로서의 「천공의 용소년」을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발명’의 지식과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하여 우주 속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우주적 상상력’이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의 근대적 아동관 형성에 연결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SF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혼자 짐작해 봅니다.

「천공의 용소년」에서 호기심 많은 한달소년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지혜로운 별박사가 대답

을 통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이』를 만든 어른들이 '과학적 글쓰기'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것들을 살펴보며, 당시의 한달소년들, 즉 당시 『어린이』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린이』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읽고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지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대한 연구 성과를 조금이나마 먼저 맛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어린이』 및 어린이잡지에 실린 '과학적 글쓰기'에 관한 이후의 연구도 흠뻑 기대합니다!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여름 학술대회

1960~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영화)와 어린이의 '과학자' 꿈

–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중심으로

발표 : 최애순(계명대학교)

토론 : 장수경(목원대학교)

1960~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영화)와 어린이의 '과학자' 꿈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중심으로

최애순(계명대학교)

1. 서론

푸른하늘 저멀리 랄랄라 힘차게 날으는
우주소년 아톰 용감히 싸워라
언제나 즐거웁게 랄랄라 힘차게 날으는
착하고 올바르게 우주소년 아톰 우주소년 아톰
과학의 힘 정의의 승리
우주소년 아톰(1970년대 동양방송 방영판)

지구와 다른 행성 어딘가에 나와 똑같이 생긴 외계인이 살고 있을 거라는 혹은 죽은 아들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공상은, 인간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것이다. 지구 밖을 벗어난 우주의 세계는 우리에게 늘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미지의 세계였고, 그래서 마음껏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다. 우주 공간과 외계인을 상상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어린 시절 기억의 데츠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이 반사작용처럼 떠오른다. 데츠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은 국내에 1965년『학생과학』에 <원폭소년 아톰>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1970년 9월 19일부터 1972년 10월 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TBC-TV를 통해 방영되었다. 197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이들에겐 어린 시절 일요일에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6시가 되면 <아톰>을 보려고 어김없이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다. <우주소년 아톰>은 공상과학의 대명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의 애니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공상과학' 하면 우리는 우주를 먼저 떠올리고 동시에 어린이들이 즐겨 읽거나 보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어린이들에게는 더없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지만, 어른에게는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공상과학이 원래부터 어린이의 오락물로 인식된 것은 아니다. 처음 SF가 국내에 도입되던 때는 오히려 과학소설이란 명칭하에 '공상'은 미래에 대한 이상이나 유토피아, 혹은 발명가의 발명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전제 조건이었다. 그렇다면 공상과학은 언제부터 어린이의 오락물로 인식되었던 것일까.

한용환은 쥘 베른의『해저 2만리』가 핵 잠수함의 도래를 세계를 예견했다는 면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공상이 결코 허무맹랑한 허구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그 점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요소이며, 과학 지식의 문학 수용에서 창안되는 이 허구의 세계는 그래서 동화적 세계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풍부한 재미를 아울러 갖추고 있다고 한다. SF를 접할 때 독자(혹은 관객/ 시청자)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미래 사회에 대한 '공상'의 영역이다.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곳을 얼마나 예측하지 못하게 그렸는지,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서 현실과의 격차가 클수록 공상과학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공상과학에서 '공상'은 가장 근본적으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재미를 선사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이다. 공상과학소설과 과학소설은 국내에서 둘 다 SF의 번역어로 쓰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감이 서로 다르다. 연구자들은 과학소설을 선호하고, 일반 대중들은 연구자가 그토록 밀어냈던 공상과학이란 용어를 끊임없이 부활시키고 있다.

과학소설과 공상과학은 둘 다 SF의 번역어로 쓰이지만, 소설이 아닌 다른 매체로 넘어가게 되면 과학영화도 어색하고 과학만화도 어색하다.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과학소설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공상과학영화, 공상과학만화,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이 편하고 익숙하다. 공상과학이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공상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그것이 다루는 영역이 경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미래 세계에 대한 갈망과 상상은 때로 터무니없어 보이고 어처구니없어 보이기도 한다. 아직 완성되기 전의 발명에 대한 공상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다.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비웃음이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현재 과학소설이란 용어보다 공상과학이란 용어가 더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공상과학으로 꿈꾸었던 미래가 현실로 가능해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환상과학문학이란 용어를 쓴다. 과학문학이 따로 있지만, 환상과학문학은 주로 '미래' 세계를 그리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쓰는 '공상과학'과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소설이란 용어를 선호하는 연구자들이 실현 가능한 과학의 세계를 계속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면, 공상과학 매니아는 좀 더 자유롭게 즐기는 데 치중한다. 그 안의 세계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매혹적인가, 얼마나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을 선사하는가 하는 현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재미에 푹 젖어 들게 된다.

SF가 연구자에게는 과학소설로, 대중에게는 공상과학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1950년대 이후이다. 식민지시기 SF는 '공상'과 '과학'의 결합이었으며, 공상으로 미래를 꿈꾸고, 공상으로 최첨단의 발명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현재 SF에서 과학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공상을 폄하해 오던 관습은 오히려 SF의 무한한 상상적 요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SF는 과학 그 자체는 아니다. 공상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미래를 상상하겠는가. 현재의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바로 공상과학이 다른 장르와 달리 추구하는 영역이다. 본 책에서는 SF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부터 공상과 과학의 결합으로써의 공상과학이 어떻게 대중 감성으로 자리잡아 왔는지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연구자들이 아동청소년문학으로 공상과학이라며 폄하했던 <우주소년 아톰>, <은하철도 999>, <로보트 태권브이>, <마징가 Z>는 한국 아동청소년들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능했고, 지금의 성인들에게는 추억으로 남아 있는 공상과학의 영역이다. 최초의 본격 SF라고 일컬었던 문윤성의 『완전사회』나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보다 대중에게 남아 있는 것은, 추억의 공상과학 만화영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상과학 만화(영화)는 어른들의 시선으로 상영되던 당시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에도 어린이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전투와 폭력만 난무하고 허무맹랑한 공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비롯한 공상과학 만화영화 필름이 보존조차 되지 않아 소실되었고[54], 어린이신문 부록에 실렸거나 어린

54) <로보트 태권브이>의 필름은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있다가 1999년 먼지 더미 속에 뒹구는 복사본이 발견되어 겨우 2007년 디지털 복원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로보트 태권브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황금날개> 역시 필름이 소실되어 구할 수조차 없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필름을 건져서 간신히 화질이 좋지 않은 상태지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잡지 부록만화로 연재되었던 공상과학 만화도 어디로 간지 알 길이 없어[55] 복원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유실되어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56]도 추억하는 세대들에게는 서러운데, SF 연구자들 역시 공상과학 만화(영화)를 폭력이나 공상만 난무하는 어린이만 보는 저급한 수준의 것이라고 치부해 왔다.[57]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도 1960년대와 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영화)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는 달리 당시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아톰과 태권브이 세대들은 <우주소년 아톰>이나 <로보트 태권브이>를 보며 과학자를 꿈꾸었다고 답한다.[58] 그리고 1980년대까지도 반에 절반 이상이 과학자를 꿈꾸었다고 한다. 당시 어른 세대와 어린이 세대의 기억 속 공상과학 만화(영화)의 평가가 엇갈리는 동안, 2020년대 오늘날 '상상력'의 원천으로 '공상과학'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대 다시 소환되는 공상과학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과거를 복원하면서, 공상과학 만화(영화)가 당시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짚어보기로 하겠다.

만화영화는 한마디로 단순한 선으로 주인공들의 동작을 그려내면서 실제 없는 상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신비를 안겨다주고 꿈과 지혜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어린이 만화영화 풍년」, 『동아일보』, 1979.7.5.)

<우주소년 아톰>은 『학생과학』에 1965년 <원폭소년 아톰> 아톰대사편이 실려 있으며, 1970년 텔레비전 만화영화로 방영되었다. 데츠카 오사무의 일본만화 <철완아톰>을 <우주소년 아톰>으로 바꾸어서 국내에서 방영한 것이다. <로보트 태권 브이>는 일본만화영화 틈바구니에서 태권 로봇을 탄생시킨 한국 만화영화이다. 1976년 김청기 감독의 작품으로 극장에서 방영되어

---

55) 뉴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디지털 작업이 되어 있어 신문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소년조선일보나 소년동아일보는 없다. 소년동아일보에 15년이나 연재했던 김삼의 <소년 007>은 당시 읽었던 독자의 추억속에만 있을 뿐 지금 우리가 접할 길이 없다. 어린이 잡지의 부록으로 연재되었던 만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새소년』의 부록만화는 클로버문고로 다시 나와서 남아 있으나, 『소년세계』의 부록만화도 도서관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 가장 먼저 <로보트 태권브이>를 『소년세계』에 연재했던 김승무 버전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부록만화로 그치고 단행본으로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록만화가 다 버려져서 남아 있지 않아서 김승무 버전은 볼 수도 없고 기억에서도 잊혀져 갔다.

56)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한 연구로 <우주소년 아톰> 등을 언급한 박노현의 「아니메와 일본 소년(상)의 형성- 전후(戰後) 일본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 제 57집, 2020.5, 285~316면)와 <로보트 태권브이>의 부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0년대 웹툰을 연구한 서은영의 「로보트 태권V 부활프로젝트」(『한국문예비평연구』 제 44집, 2014.8, 181~213면)이 거의 유일하다.

57) 고장원의 『한국에서 과학소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부크크, 2017)에서도 아동청소년문학으로 축약되어 간행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SF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하거나 읽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소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다. 심지어 그것을 대상으로 다룬 논문에 대해서도 초록만 읽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 SF 문학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F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문윤성의 『완전사회』만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논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58) 박석환, 「소년의 꿈을 로봇에 담았던 멀티크리에이터- <로보트 태권브이> 원작자 조항리」,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2009년 5·6월호, 14~19면; 건신, 「80년대의 공상과학만화」, 9dreams 블로그, 2004.5.1. "70년대말, 80년대초 소년들의 영웅은 SF물의 로보트와 그 조종사, 그리고 로보트를 발명해 낸 저 위대한 박사였다. 어릴 적에 당시의 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약 30%는 장군, 대통령, 그리고 그 이상이 과학자라고 답했던 것 같다. 로봇만화의 영향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건신, 9dreams 블로그, 2004.5.1.) "한국 에너지연구소장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너는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최다수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도 대답하였다는 것은 어느 텔레비전 방송프로에서의 이야기였다. 어렸을 때는 우주선이나 로보트니, 살인광선이니 하는 과학공상을 좋아하고 이를 실현시키고 싶은 꿈을 한번은 가져본다."(「과학자의 꿈」, 『경향신문』, 1981.3.26.)라는 기사가 1981년에 나온다. 1970년대부터 공상과학만화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린이들은 그것을 보며 과학자 꿈을 키웠다.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소년세계』와 『새소년』에서 부록만화로 앞다투어 연재된다. 『소년세계』와 『새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 잡지에서도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졸라 구매할 정도로 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만화를 부록으로 집어넣곤 했다. 실제로 <황금날개>를 보기 위해 『새소년』을 구매했다는 과거 추억담이 올라오기도 한다. 당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원폭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가 수록되었던 『학생과학』과 『새소년』, 『소년세계』의 다른 공상과학 만화와 기사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2. 1960년대 『학생과학』의 <원폭소년 아톰>에서 텔레비전 방영 <우주소년 아톰>까지

1) 『학생과학』의 <원폭소년 아톰>과 초인/로보트 공상과학만화

> 인턴은 의무인 것처럼 대답했다. 나는 그가 보고 있는 석간을 같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현미경을 통해 본 세균같은 작은 활자로 진부해버린 사건, 사건들이 신문전면을 깨알처럼 메우고 있었다. 나는 그 의사가 무엇을 보고 있느나를 알아 냈다. 그것은 토요일판 부록으로 나온 어린이용 만화였다. 나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 간에 선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만화였다. 내용은 **한국의 과학박사가 로보트를 만들어 가상적국과 싸움을 벌인다는 것**으로, 제법 색도 인쇄까지 했으나 채 이가 맞지 않아 투박한 물감이 번진 덤핑책 표지같은 만화였다. **한국의 로보트가 적국의 과학자가 발명한 살인광선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서투른 데상의 만화**를 젊은 의학도가 초가을의 바람이 불어오는 병동휴게실에서 우두커니 보고 있다는 사실은 묘한 뉘앙스를 불러 일으켜 나를 즐겁게 했다.
> "그 만화가 재미있습니까?"
> "아, 예, 아주 재미있는데요."
> "물론 우리나라의 로보트가 살인광선쯤에야 끄떡할 리 있겠습니까?"
> "그렇지요. 아! 그런데 제법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로 미루었군요."
> (최인호, 「견습환자」,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1967)

최인호의 신춘문예 당선작인 「견습환자」에 젊은 의사가 신문의 공상과학만화를 보고 있는 장면은 1970년대 당시 공상과학만화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짐작케 해 준다. 한국의 로보트가 적국의 과학자가 발명한 살인광선으로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공상과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흥밋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데츠카 오사무의 『철완 아톰』은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 이전에 국내에서 신동우 만화 <원폭소년 아톰>으로 먼저 들어왔다. 1966년 7월부터 『학생과학』에 연재된 <원폭소년 아톰>은 <아톰대사편>(이승안 옮김)으로 아톰이 아직 주인공이 되기 이전의 데츠카 오사무의 가장 이른 시기의 창작이다. 제목에 무시무시하게 '원폭소년'이라고 달려 있다. 데츠카 오사무의 <철완아톰>에서는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원폭의 공포에 휩싸인 일본 사회를 묘사하는 대신 원자력 에너지를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59] '아톰'이라는 이름과 아톰의 여동생 '우란'도 우라늄(원폭제조와 원자로의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 235)을 상징하는 것을 보면, 1952년 일본의 분위기와 함께 1966년 번역되었을 당시 우리에게 원자력 에너지가 마치 초인적인 에너지원처럼 받아들여졌다.[60]

---

59) <원폭소년 아톰>이 실렸던 『학생과학』 1966년 11월호에는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소장 최형섭 박사가 '21세기는 원자력시대, 우주시대'라고 한다고 한다. 원자력이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대두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60) (아톰의 100만 다인의 위력) 산업에 이용될 원자력-원자력 출력도 250KW로(『학생과학』, 과학뉴스 1968년 2월)

<원폭소년 아톰>에는 '아톰대사' 편이 실려 있다. 아톰대사 편은 <아톰>이 '가정'으로 탄생한 만화임을 설명하고 시작한다. 가정이야말로 공상과학을 지탱하는 상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으로 탄생된 공상과학만화이다. 천문학에 의하면, 수천 억만 조의 별 중 적어도 10개 이상은 지구와 똑같은 운명을 걸고 있는 '다른 지구'가 있지 않을까. '다른 지구'에 만일 인간이 살고 있다면..... 하나의 지구가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 지구의 최후를 맞게 되고 그 지구의 사람들이 모두 로켓을 타고 '다른 지구(제2의 지구)'를 찾아서 우주로 도망쳤다고 가정해보자로 서두를 시작한다. 그런 공상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 바로 <아톰대사>라고 한다. <아톰대사>는 일본에서 처음 만화로 게재되었을 때 복잡한 초기의 설정으로 인해 인기를 끌지 못하고 뒤에 아톰을 아예 주인공으로 내세워 <철완아톰>으로 제목을 바꾼 후 히트를 쳤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원폭소년>이란 제목으로 『학생과학』에 연재되었다.[61)]

<원폭소년 아톰>은 아톰이 서커스단에 팔려오게 된 내력을 원작보다 더 길게 보여준다. 텐마 박사는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과 똑같은 로봇인 아톰을 만들어냈으나 성장하지 않는 로보트여서 아들 민수를 대신할 수 없다고 여겨 서커스단에 팔아 버렸던 것이다. "과학부가 10여년의 세월을 걸쳐 온힘을 기울여 완성한 수퍼맨 500만 다인의 위력을 가진" 로보트임을 내세우고 서커스 홍보에 활용한다. 지구인과 똑 닮은 우주인이 지구에 상륙하면서 벌어지는 지구인과 우주인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우주인들도 제 2의 지구를 찾아갈 때 한국정, 일본정, 미국정, 프랑스정처럼 각 나라에 해당하는 우주선을 근거지로 삼아 그 나라에 간다는 설정은 당시 우주정복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려는 각 나라의 움직임과 국제정세를 말해준다. '제2의 지구', 우주 땅의 개척에 대한 욕망은 <원폭소년 아톰>뿐만 아니라 뒤이어 연재되는 신동우의 <5만 마력 차돌박사>를 비롯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 만화에서 종종 보인다.

<원폭소년 아톰>이 1966년부터 1967년 11월까지 실리고 12월부터 <수술 잘하는 사냥꾼벌>이 몇 회 실리다 중단된다. 해외 연재만화 <미래의 우주도시>가 실리다 한동안 만화 코너가 비어 있고 과학소설만 실린다. 1968년 10월부터 신동우의 <5만 마력 차돌박사>가 꾸준히 연재되어 인기를 끈다. 과학소설 「우주에서의 약속」(강성철 글, 이승안 그림), 「관제탑을 폭파하라」(서기로 글, 송시원 그림)와 나란히 실린다. <원폭소년 아톰> 이후로 다른 소재의 만화가 별 인기를 끌지 못하자, 1968년 10월 신동우의 <5만 마력 차돌박사>를 내놓는다. 신동우의 <5만 마력 차돌박사>는 꽤 오랫동안 인기를 끌며 연재되었고, 여세를 몰아 신동우는 차돌이가 등장하는 <해저탐험 물개호>도 연재하게 된다.

이승안 옮김, <원폭소년 아톰>(『학생과학』, 1966년 7월~ 1967년 11월)
신동우, <5만 마력 차돌박사>(『학생과학』, 1968년 10월~)
서정철, <R. 로케트군>(『학생과학』, 1969년 5월~)
신동우, <해저탐험 물개호>(『학생과학』, 1971년 9월~)
서정철, <Z 보이>(『학생과학』, 1971년 11월~)
박천, <초인간 파이터> '우주 3총사'(『학생과학』, 1972년 11월~)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학생과학』, 1968년 3월)

61) 『학생과학』의 독자들에게 서광운 등의 SF 작가클럽의 과학소설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대신 공작(만들기)와 만화 코너가 학생 독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공상과학만화에 나오는 전투기, 비행기, 우주선, 로켓 등은 공작 코너에서 그대로 만들기로 이어져서 학생들이 열광하고 있었다.

<5만 마력 차돌박사>의 차돌이는 소년우주병 학교(소년 우주병사 학교)의 휴가에 강원도 탄광을 지날 무렵 갱 속에 이상한 괴물이 버티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상한 괴물은 기계로 만든 '후랑켄' 로보트였고, 그 로보트는 지구관측년도의 '아미노프 연구반'이 보낸 것이었다. 아마진의 비밀기지에 갇혀 있던 경신호 박사와 과학자들을 구출한 차돌이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고 아마존 기지는 폭파되었다. 차돌이가 때려 눕힌 후랑켄은 수리를 마치고 다시 차돌이를 추격한다. <R. 로케트군>은 <5개국 특별조사단 과학자들도 '아프리카' 상공에서 돌연 행방불명>이라는 기사가 뜨는 것으로 1회가 마무리된다. R. 로케트군이 악당과 싸워 아프리카 상공에서 행방불명된 과학자들을 구하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임이 분명하다. <Z 보이>는 전자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핵에너지와 태양전지의 겸용 추진력을 쓸 수 있어서 우주선으로도 적격인 태풍호를 선보인다. 태풍호와 함께 거대한 적 프랑켄슈타인과 싸우는 Z 보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학생과학』에 실린 공상과학 만화의 내용은 주로 과학자들이 납치, 실종되고 초인적인 힘을 지닌 소년이나 로보트가 상대편 적 로보트와 싸워 과학자들을 구출해 온다는 것이다. 우주, 박사, 과학자, 납치, 로보트, 승리 등의 반복 키워드로 캐릭터만 새로 설정해서 쓴 것처럼 흡사한 구성의 이야기들이 공상과학 만화로 채워지고 있다. <원폭소년 아톰>과 비슷한 시기에 실려 있는 『학생과학』 공상과학 만화는 아톰, 차돌이, R. 로케트군, Z 보이 등의 독자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이나 작은 체구의 로보트가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인 로보트 혹은 악당을 물리친다.

<우주소년 아톰>, <5만 마력 차돌박사>, <Z 보이> 등에서 상대편의 적으로 나오는 로보트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원폭소년 아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에서 '프랑켄슈타인' 편을 만날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작은 체구의 아톰이나 차돌이, Z 보이 등과 대비되는 '거인'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프랑켄슈타인'으로 상징되던 거인의 이미지는 1970년대 거대로봇이 등장하면서 '힘'의 세기와 비례한다. <원폭소년 아톰>과 <5만 마력 차돌박사>가 연재되던 시기에는 상대편 적인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거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나에게도 저런 강한 힘이 생겼으면 하는 동경을 동심에 품고 있었다. 1970년대 거대로봇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켄슈타인이 가진 강력한 힘에 대한 갈망이 거인에 대한 두려움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거대로봇이 등장하기 전 『학생과학』의 공상과학만화의 작은 체구의 주인공들은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거인(어른)과 맞서 싸우기 위해 초인적인 에너지를 갖고자 하는 노력과 안간힘을 쓰는 투지가 담겨 있다. 박천의 <초인간 파이터> '우주 3총사' 편은 30세기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우주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제우주연합 요새를 태영양상의 어느 무인도에 건설하였고, 지구를 지키는 방위군 중 김철이라는 한국인이 등장한다. 한국인 김철은 태권도를 연마하며 체력을 기르고 있다. 우주비행사나 우주전사가 되기 위해 태권도를 연마하는 것은 이후 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브이>나 <마루치 아라치>에서도 이어지며 '태권도=강인한 체력'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킨다. 더불어 태권도로 '주먹' 센 남자가 영웅처럼 떠오르며 각종 만화영화 주제가에 무쇠 주먹, 정의의 주먹 등과 같은 대사가 삽입된다.

1960년대나 1970년대는 산업화의 일군이나 군대의 일원을 키우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로 국가가 육체적인 강인함, 신체조건이 우월한 자를 요구했던 시대였으며, 어린 소년은 강인한 신체의 소유자가 되어서 골목대장이 되고 싶어했다. 나약하고 소심하고 겁많은 소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듯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스포츠에 능하고 태권도나 무술에 능한 자가 우상이던 시대에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받아서 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다. 『완전인간』(『주간한국』, 1965)의 우선구 신체조건 선발 과정은 '보통'의 통과조건이 너무 많아서

‘보통’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숨이 막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에서부터 초인적인 힘이나 에너지를 내세운 것이 종종 보인다. 원폭소년 아톰, 5만 마력 차돌박사, 초인간 파이터, 로케트군 등 모두 인간이 지닌 힘보다 강한 힘을 지닌 초인적인 에너지를 가진 존재다. 「초인을 만드는 기계」(『학생과학』, 1966년 4월, 30~31면)에는 사람의 힘으로 1톤이나 되는 물체를 거뜬히 운반할 수 있는 엑소스켈리턴이란 기계장치, 즉 ‘인간증폭기’를 다루고 있다. 엑소스켈리턴이라는 초인복을 입으면 크레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미 공간과 육군이 베트남의 정글이나 논 등의 불편한 지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데 편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30면) 초인복은 산업용보다는 ‘군사용’으로 이용하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용로보트로 개발되었다는 <황금날개> 3호인 청동거인도 악당을 물리치는데 뛰어들었으며, ‘초인’적인 마력을 가진 아톰이나 황금날개 역시 악당을 물리치고 우리 편을 지키는 데 온 에너지를 쏟았다. 「수수께끼의 초능력」(『학생과학』 1966년 9, 10월호)과 같은 ‘초능력’ 기사에 대한 호기심도 학생독자의 지금 자기가 가진 힘보다 ‘강인한 육체’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600만불의 사나이>가 TV드라마로 방영되었기도 했지만, 아톰과 같은 소년이 지닌 초인적인 힘이나 에너지는 그의 체구에 비해서 너무 벅찬 과업(지구를 지켜야 한다든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등)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발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초인이 되지 않으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초인으로 둔갑시키는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닐까.

2)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아톰의 성장과 주제가의 변화

아톰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1970년 안방극장 동양방송을 통해서이다. 만화 <원폭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만화영화로 방영될 때는 <우주소년 아톰>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우주소년 아톰>이 만화영화로 방영된 1970년대는 일본의 만화영화가 대거 유입되었다. 국내 동양방송에서 처음 방영될 때는 흑백으로, 1982년 <돌아온 아톰>으로 방영될 때는 컬러판으로 방영되었다.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학생과학』 만화보다 <원폭소년 아톰>보다 안방극장 텔레비전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이다. 그 시대 시청자들은 아틀라스, 프랑켄슈타인, 플루토 등의 아톰의 숙적 거대로봇도 아톰과 함께 각인되었다. 아톰이 거대로봇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가 어린이들의 관심사였다. 작은 체구의 소년 로봇은 아톰이 유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 이후의 만화영화 로봇들은 ‘더 크게 더 거대하게’를 외치며 거대해져 갔다. 아톰은 12살 소년과 동일시되어 어린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체구의 아톰이 거대로봇과 싸워 이기는 모습에 매료되었을 것이다. 1970년 동양방송을 통해 방송된 <우주소년 아톰>으로 1970년대 만화영화 시대의 포문이 열렸다.

텔레비전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에서 독자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것들을 살펴보면, 아톰과 싸우던 프랑켄슈타인, 아틀라스, 로봇 서커스단, 로봇공원, 버려진 로봇 등 로봇과 인간과의 공존에서 인간이 로봇을 인간과 다른 기계 취급을 하여 로봇이 느끼는 갈등을 다룬다. 『학생과학』의 만화영화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상대편의 거인 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우주소년 아톰>의 프랑켄슈타인 편에서는 주인에게 쓸모없다고 버려지면서 괴물이 되는 것으로 나온다. <우주소년 아톰>에서 아톰의 탄생을 비롯하여 이후 로보트의 탄생은 ‘프랑켄슈타인’의 신화를 뚫고 나왔다고 여길 정도로 죽은 누군가를 대체하기 위한 인간 욕망의 산물이다. <우주소년 아톰>의

텐마 박사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토비오를 대체하기 위해 아톰을 만들었으나 성장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여 서커스단에 팔아 버리고 만다. <우주소년 아톰>은 '프랑켄슈타인'처럼 인간이 만들어져 이용당하는 괴물로 탄생하거나 이용가치가 다하여 버려져서 괴물이 되는 로보트의 고뇌와 정체성의 혼란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주소년 아톰>은 아톰이 겪는 인간과의 갈등이나 정체성의 고뇌와 혼란 대신 '언제나 용감하고 씩씩하게 인간의 편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어린이의 친구이자 영웅'의 이미지로 강하게 각인된다.

1970년에서 1972년까지 방영되던 아톰은 1973년 다시 재방영된다. 재방영될 때의 기사에서도 어린 소년이지만 악당을 물리치는 용감하고 씩씩한 영웅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체구는 작고 나이도 어린 아톰이지만 외계의 침입자와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을 통쾌하게 무찌르며** 무한한 공간을 난다.(「우주소년 아톰 방영」, 『조선일보』, 1973.8.28.)

<원폭소년 아톰>에서는 원작의 1편인 '아톰대사'로 구성되었으나, <우주소년 아톰>에서는 1편이 '아톰의 탄생'이다. 만화영화에서 주인공들의 탄생과 성장은 어린이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감정을 이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톰의 탄생'은 텐마박사의 아들 토비오 대신 만들어진 아톰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서커스단으로 팔려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은 아들을 대신하기 위한 로보트를 만드는 동기는 '프랑켄슈타인'의 탄생과 닮아있다. <우주소년 아톰>에는 프랑켄슈타인 편이 들어 있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학생과학』의 다른 만화에서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거인로보트가 상대편 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폭소년 아톰>의 만화와는 달리 텔레비전 방송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에서는 플루토, 프랑켄슈타인, 아틀라스 등 아톰의 숙적으로 싸웠던 '거대로봇'들이 각인된다. 그리고 1975년 <마징가 Z>, <철인 28호>, <로보트 태권브이>, <철인 캉타우> 등의 거대로봇 공상과학 만화영화들이 줄지어 상영된다. 상대적으로 작은 아톰이 10만 마력의 에너지에서 플루토와 싸우기 위해 체구에 맞지 않는 100만 마력의 에너지로 바꿔 주기를 무리하게 원하는 것은 안쓰럽고 짠하다. 아톰과 같은 나이 또래인 12살 소년들이 '초능력'에 호기심을 갖고 자기에게도 그런 힘이 생기기를 원했던 것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부담감보다 요구받고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훨씬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말하는 순간 나약하고 소심하고 비겁하다는 조롱이 따라올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도 아톰처럼 '초능력' 에너지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고 힘센 천하장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1982년 <돌아온 아톰>으로 다시 방영된다. 텔레비전 만화영화에서 내용 못지않게 어린이들을 매료시켰던 것은 주제가였다. <우주소년 아톰>(1970, 1973), <돌아온 아톰>(1982), <아스트로 보이 철완아톰>(2003)으로 이어지는 아톰 주제가들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

1970년대 주제가에 있는 가사 '착하고 슬기롭게', '착하고 씩씩하게'는 로봇에게 '마음'을 불어넣은 원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으나 원작에서의 마음이 로봇(기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되고 싶어 정체성의 갈등은 축소되고 정의와 평화의 상징으로 착한 행동, 씩씩하고 용감한 행동을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아톰(로보트)와 어린이는 동일시되어 착하고 용감하고 씩씩할 것만을 요구받았지만,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른들은 어린이나 로봇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이가 자신의 의견과 불만을 말하고 반항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어린이는 눈물을 훔치고 슬픔을 숨기고 나약함을 조롱받으며 내면을 이야기하는 대신 용기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과 비슷한 체구의 아톰이 가진 초능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2003년 제작된 <아스트로 보이 철완아톰>의 주제가는 좀 더 고뇌에 차 있고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고 어둡다. 1970년대 애써 외면했던 소년의 부담감과 짊어진 무게의 중량감이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있다가 되살아난 감각처럼 아톰의 혼란과 고뇌에 좀 더 무게가 맞추어져 있다. 1970년대 밝고 명랑한 아톰, 씩씩하고 용감한 아톰, 정의롭고 착한 아톰의 이미지만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 했던 부담감이 2000년대 이후에야 밀려온 것처럼 보인다. 2003년 다시 제작된 주제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 “지금 너에겐 견디기가 힘든 일이/ 따라서 아무도 몰래 눈물만 감추고 있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직 넌 잘 모른다 해도/ 예쁘게 활짝 피어날 꽃처럼 용기를 내봐요./” “넌 혼자가 아니야”라고 위로하며 함께 있다고 다독여주는 가사다. 1970년대 아톰과 함께 성장했던 세대들의 유년을 고스란히 짚어주는 대사이다.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보면 작은 체구로 늘 씩씩하게 어디든 달려가는 아톰이 안쓰러워 보인다. 실패하면 안 되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고작 12살이었던 아톰의 ‘마음’이 2000년대 이후가 되어서 비로소 보였던 것이다.

‘마음’을 불어 넣어주었으면서, 아톰의 ‘마음’이 아닌, ‘착하고 슬기롭게’, ‘착하고 정의롭게’라는 요구된 ‘마음’을 강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주소년 아톰>은 어린이들에게 작지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우주소년 아톰>의 열풍은 아직 덜 성장한 어린이들에게 슬퍼도 울지 못하게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아직 어린데도 집안의 가장(아버지) 역할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었다. 자그마한 체구의 12살 아톰은 또래 어린이들에게 우상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그 무게감과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톰이 지난 중압감은 1970년대 어린이들이 떼쓰지 못하게 하고 일찍 철들도록 유도했다. 아버지를 도와 가족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린 나이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취업을 했다는 뿌듯함을 내비치거나 돈을 벌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년들은 ‘과학자’를 꿈꿨지만 기술자나 기능공의 길을 택했다. 대학 진학보다 공고를 나와서 취직을 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학생과학』의 공상과학만화와 우주이야기에 못지않게 공업고등학교 탐방이나 기술자 자격증, 기능공 자격증 학원에 관한 광고가 종종 실려 있다. 두 종류의 기사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방대한 꿈과 초라한 현실의 격차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1966년 8월 발명·특허 이야기 심승택의 「로케트보다 구공탄이 더 좋아」(『학생과학』, 1966년 8월, 124면)에서 수없이 쏟아지는 로케트 발명 이야기보다 구공탄이 더 좋다고 함으로써, 로케트가 실생활에서는 너무 멀리 있는 환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전선이 더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3. 1970년대 극장판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브이>와 어린이 잡지의 부록만화

<우주소년 아톰>뿐만 아니라 1970년대 극장판 만화영화 <로버트 태권브이>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20년대 계속해서 부활을 거듭하고 있다.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의 시대에 따른 부활과 소환은 1970년대 세대의 성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만화영화가 복고 열풍을 타고 소환되었을 때 대상은 70년대 안방극장의 개구쟁이였으며 <우주소년 아톰>과 <마징가 Z>의 텔레비전 만화영화를 보며 동심을 달랬던 20, 30대였다. 2000년대 그들은 다시 40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새 50대 60대가 되어 추억에 젖어 드는 나이가 되었다. 유년 시절을 함께 했던 1970년대 만화영화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공감하고 즐겼을까. 만화 주제가가 골목마다 떼창을 몰고 다닐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만화영화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 주었을까.

1) 1970년대 극장판 거대로봇 공상과학 만화영화 - <황금날개>와 <로보트 태권브이>

1970년대는 만화영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상과학 만화영화가 앞다투어 제작되었고, 극장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저녁 시간을 차지하며 방영되었다. <우주의 왕자 빠삐>(1971), <마징가 Z>(1975), <로보트 태권브이>(1976), <마루치 아라치>(1977) 라디오 방송극에서 만화영화로, <황금날개>(1978), <독수리 오형제>(1978), <메칸더 브이>(1979) 등 공상과학 만화영화의 전성기가 열렸다.[62]

세계정부의 야욕을 품고 있는 헬박사가 세계적인 과학자 슈타인박사를 죽이고 박사가 평생을 힘들여 발견한 새로운 원소 코레이늄과 광자력이라는 에너지를 빼앗는다./ 또한 헬박사가 거느리고 있는 로보트 동물군단은 세계평화를 완전히 뭉개버릴 기세로 덤빈다. 여기에 과감히 도전하는 숨진 슈타인박사의 손자 쇠돌이와 토니. 이들 두 소년은 박사가 남겨놓은 로보트 마징가 Z를 발견, 조종법을 배우고 세계평화의 파괴자 헬박사일당과 맞서 싸운다.(「흥미, 드릴 넘치는 공상과학 만화영화 마징가 Z」, 『경향신문』, 1975.8.7.)

사하라 사막에서 여객기가 괴로봇의 습격으로 납치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이 사건으로 윤박사도 실종된다. 오미크론이라는 1차 지구 침공 후, 지구에 남아 조사하고 있는 지구정복대가 바벨탑기지를 이용해 지구 주요인물과 정보를 모으는 중이었다. 이들은 변장술을 이용해 황금날개 3호 청동거인까지 훔치려 드는데 이를 황금날개 1호가 막는 일이 생긴다. 훈과 뚝심은 힘을 합쳐 바벨 기지를 공격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타이탄에게 청동거인이 파괴되는데.....(<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 마나문고 김형배 만화판 표지 해설)

62)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흥미와 지혜를 가져다주는 우주과학을 소재로 한 만화영화 1년동안 MBC TV에서 방영하다 - <우주의 왕자 빠삐>가 끝나고 11일부터 <마징가 Z>를 홍보하는 기사가 나가는 등 신문기사 곳곳에서 만화영화 방영 소식을 접할 수 있다.(「흥미, 드릴 넘치는 공상과학 만화영화 마징가 Z」, 『경향신문』, 1975.8.7.); 만화영화는 한마디로 단순한 선으로 주인공들의 동작을 그려내면서 실제 없는 상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신비를 안겨다주고 꿈과 지혜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어린이 만화영화 풍년」, 『동아일보』, 1979.7.5.)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우리들의 믿음직한 메칸더
지구를 노리는 악마의 그림자여 물러가거라
날아올라 무찔러라
메칸더의 용사들아
영광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메칸더 브이> 주제가)

달려라 마루치
날아라 아라치
태권 동자 마루치
정의의 주먹에
악의 무리 팔라팔라
납작코가 되었네(<마루치 아라치> 주제가) 1977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보트 마징가 Z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이
나타나면 모두모두 덜덜덜 떠네(1975 MBC 오프닝)
하늘을 기운 삼아 우뚝 서 있는 철권
슈퍼 로봇 마징가 Z
이 우주에 그를 탐할 로봇은 없다네
정의의 철권이다
불사조의 철권
날아라 태권 로켓트 펀치(<마징가 Z> 주제가)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보트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1976 극장판 김청기 감독)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을 날으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 브이 만만세
무적의 우주친구 태권브이(로보트 태권브이)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 세계 우주를 누벼라
씩씩하게 잘도 날은다 짱가짱가 우리들의 짱가 (1978 <짱가>)

슈파 슈파 슈파 슈파
우렁찬 엔젠 소리 독수리 오형제
쳐부수자 알렉터 우주의 악마를
불새가 되어서 싸우는 우리형제
태양이 빛나는 지구를 지켜라 정의의 특공대 독수리 오형제(1979)

1960년대와 1970년대 만화들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여 전투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종종 삽입된다. 1970년대는 전투작전의 무기, 즉 도구가 로봇과 초능력 에너지로 집중된다. 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영화들은 마치 기본적인 구성이 있는 틀에 넣어 캐릭터의 성격과 특징만 부여한 듯이 '로보트와 초능력 에너지로 악마의 적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찔러라, 납작코가 되었네, 정의의 사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불사조 등 싸움, 전투에서의 승리를 유도하는 용어가 정의와 평화라는 표어를 앞세우고 당당히 들어가 있다. 악당, 적진 등 적을 물리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애국심 고취의 주제가들은 1970년대 만화영화를 잠식했고 골목골목을 장악했다.

<우주소년 아톰>과 <마징가 Z>의 주제가를 갈아 치우고 1970년대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6년 김청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브이>이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비디오 테잎조차 어디에서 뒹구는지 제대로 보관되지 않다가 2007년 디지털 복원작업으로 가까스로 부활했다. 먼지 속에서 나뒹굴던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치 1970년대 다시 우뚝 일어서는 영웅처럼 2020년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1970년대 만화영화를 보며 과학자를 꿈꿨다고 하는 어린이 시청자와 독자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꿈 조사통계에 의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어린이의 꿈 1위가 과학자였다. 과학자 정재승 박사도 <로봇 찌빠>를 보고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로보트 태권브이와 같은 영웅이

아니라고 한 게 신기할 정도다. 어린이들의 영웅은 대통령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 아톰과 태권브이였다. 강한 영웅이 나타나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실제로 영웅이 되기는 꺼리는 이중적인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로버트 태권브이를 만들고 조종하는 것은 '박사'들이었으니 말이다. 훈이와 영희의 아버지도 박사, 황금날개 현이와 뚝심이를 지휘하는 이 역시 선우박사이다. 아버지를 모두 '박사'로 위치 지음으로써 가부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로보트 태권비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에서 뮤우탄트가 태권브이를 조종하며 훈이인 척하고 건물을 파괴하자 윤박사가 훈이에게 그만하라고 종용함에도 듣질 않자 "아니 쟤가 미쳤나?"라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 세대의 감정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세대의 감정이 강하게 표출되는 반면, 훈이 세대의 감정 표출은 찾아볼 수 없다. 훈이 자신의 의견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2010년대 <웹툰 V>에 이르러서이다. 1970년대 훈이 세대가 감정을 표출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태권도 선수 훈이를 닮은 태권도를 하는 로보트 태권브이를 훈이가 조종하여, 악당 카프 박사의 붉은 별 군단을 무찌르는 내용이다. 승리를 거두는 태권브이에 환호하는 군장관과 국군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1970년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만화영화도 그렇지만 <로보트 태권브이>는 한국 상황이 좀 더 녹아 있어서 붉은 별 군단이 북한을 묘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관객에게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1976년 <로보트 태권브이>(1976)의 승리는 곧 <로보트 태권브이 우주작전 편>(1976)을 연달아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어린이 잡지의 부록만화와 함께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로보트 태권브이 수중특공대 편>(1977)이 <마루치 아라치>(1977)와 붙으면서 흥행에서 참패를 하였다. 그래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다 내놓은 것이 <무적의 용사 황금날개 1, 2, 3>(1978)이었다. <무적의 용사 황금날개 1,2,3>(1978)은 국내에 필름이 분실되어 남아 있지 않아 희귀본이었다. 미국으로 나갔던 버전으로 겨우 복원하여 안 좋은 화질이나마 볼 수 있게 되었다. <로보트 태권브이> 역시 필름이 유실되었다가 먼지 더미에서 겨우 찾은 복사본으로 2007년 디지털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무적의 용사 황금날개 1,2,3>은 『새소년』에서 조항리 글, 김형배 그림의 부록만화로 나온 후 만화영화로 상영되어 히트를 친다. 연달아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1978)을 만들면서 황금날개와 로보트 태권브이는 어린이들의 영웅으로 자리잡았다.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전시된 <로보트 태권브이>의 설명에는 어린이들에게 반공정신과 계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반공영화라 한다. 실제로 어린이들은 로봇 태권브이를 보며 반공정신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들은 주로 '힘겨루기'에서 이기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신체적인 우월한, 강인한 신체[63]를 가진 남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아직 어린 소년들에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신체검사'로 신체의 정상, 합격을 판단하여 나약한 남성을 판별하던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 1965년 『완전인간』 우선구의 선발과정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우월한 신체를 소유한 자를 강조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남성들에게 신체조건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겸손한 태도와 건강한 체력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는 <로버트 태권브이>의 윤박사가 철이에게 훈계하는 말이다. <로보트 태권브이>에서

63) 1977년 12월호 『소년세계』 에는 「굳센 체력 알찬 전진」이라는 제목 하에 제 58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장면을 사진 이미지와 함께 싣고 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한국신기록이 대량 쏟아져 나왔고 대회신기록도 풍년을 이루었으며 또 7년패를 노리는 서울을 **물리치고** 경기도가 1위를 차지하였다./ 경기도는 대회사상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서울이 그다음, 전라북도가 3위를 했으며 경상북도, 부산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라고 대회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물리쳐야 하는 적을 상정하고 각 도마다 경쟁을 붙이는 체육대회는 '강인한 신체'의 대결로 국군 대열처럼 일렬로 서 있는 선서 장면과 함께 전투적인 투지를 불사르게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흥미로운 캐릭터는 깡통로봇 철이이다. 주전자를 일그러뜨려 깡통로봇을 만들고 골목에 나가 으스대거나 고춧가루 폭탄이라는 무기를 만든 철이는 당시 어린이들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이지만 자기도 태권브이와 함께 악당을 무찌를 수 있다고 용감하게 맞서는 모습은 1970년대 어린이들이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골목대장, 맞붙어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태권브이 같은 강인함이 아이콘이었던 시대에 나약하고 소심한 어린이들이 설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부활한다. 그러나 <84태권브이>, <태권브이 90>은 모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존의 <로보트 태권브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그쳐 흥행에서 고전했다. 태권브이의 성장은 2010년대 <웹툰 V>에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2010년대 <웹툰 V>에서 가장 변화 가 심하고 무리한 욕심을 놓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는 태권브이 조종사 훈이가 아니라 깡통로보트 철이다.[64] 이제 40대 아저씨가 된 훈이는 과거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회의감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웠는지에 대해 방황하고 더 이상 영웅이 되길 원치 않는다.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다시 일어서는 훈이는 1970년대에도 그것이 가족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었다고 믿었음을 말해준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나라의 부름에 응해서 군대에 가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줄 알았던 1970년대, 그때 멈춰 놓았던 생각과 방황이 시간을 201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겪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1990년대 태권브이의 흥행과 부활 실패에는 로보트 태권브이와 그 세대가 애국심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고민과 방황을 하지 않은 채 성장이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김청기 감독의 <황금날개>는 현이라는 인물이 겁많고 소심한데 황금날개 1호라는 사실이다. “사내자식이 저렇게 겁이 많아서야.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지.”(<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라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다. 현이는 황금날개 3호을 뚝심이와 함께 조종하라는 선우박사의 말에 겁난다고 자신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남자 녀석이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놀림을 받는다. 그러나 초능력자. 슈퍼맨도 평범한 인간인데 슈퍼맨 슈트를 입으면 영웅이 되는 것처럼 겁많고 소심한 현이는 황금날개로 변신하면 영웅이 된다. 로봇 태권브이보다 개인적으로 황금날개를 더 좋아했다고 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이런 캐릭터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한다. 태권브이처럼 원래 강인한 로보트가 아니라 원래는 독자인 나처럼 나약하고 소심하고 겁도 많은데, 그런 나도 황금날개처럼 용감해 질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가지도록 하지 않았을까. 1960년대 만화에 초인이나 초능력을 가진 소년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나약하고 여린 어린 소년 독자들이 거대 로보트와 싸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능력과 초인적임 힘을 꿈꾸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소년들은 일터에 나가 어린 나이에도 ‘초인적인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고 지키는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2) 어린이 잡지 『새소년』과 『소년세계』의 부록만화 <로보트 태권브이>와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

<로보트 태권브이>는 안방극장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만화영화보다 잊히기 쉬웠다. 그래서 김청기 감독은 같은 해에 시리즈물을 연달아 낸다. 잊을만하면 다시 어디서든 나타나는 무적의 용사 태권브이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로버트 태권브이>가 텔레비전 일본 만화영화의 틈바구니

64) 서은영, 「로버트 태권V 부활프로젝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44집, 2014.8, 195~196면 참조.

에서도 골목마다 주제가가 울려 퍼지고 어린이들에게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후속 버전이 나온 영향도 있지만 극장판 만화영화로 그치지 않고 어린이 잡지 부록만화로 연재되었기 때문이다. 만화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잡지 부록만화로 먼저 접하기도 하고 홍보지면을 보고 상영일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다. <로보트 태권브이>의 만화는 김형배 버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보트 태권브이> 만화를 가장 이른 연재는 『소년세계』의 김승무 버전이다. 김청기 감독의 극장판 <로보트 태권브이>(1976년 7월)가 상영되기도 전 1976년 5월부터 『소년세계』의 부록만화로 연재되기 시작한다. '만화영화가 상영되기도 전에 만화가 먼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홍보문구와 함께 설명이 들어 있다. 만화영화제작에 만화 작가들이 참여해서 이미 내용이 다 공개된 것이다. 『소년세계』는 <로보트 태권브이>의 우주작전부터 수중특공대까지 사이사이 홍보문구와 함께 꾸준히 부록만화로 연재하고 선점을 점유했음에도 독자에게 각인된 것은, 1978년 『새소년』 부록만화로 연재된 김형배 버전의 < 로버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이었다.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은 『새소년』 부록만화로 연재되어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들의 오락매체가 많이 없었던 시절, 만화에서 극장판 만화영화나 텔레비전 만화영화로, 라디오 방송극에서 극장판 만화영화나 텔레비전 만화영화로, 소설이나 만화에서 라디오 방송극으로 매체를 넘나들며 같은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시청자나 독자, 관객들은 만화방, 동네 친구집 등에 모여 같이 만화를 보며 주제가를 부르고 스포츠경기를 보듯 태권브이의 승리를 기원했다. "태권브이와 황금날개가 겨루면 어느 편이 더 셀까"라고 묻는 철이는 당시 어린이들의 심리를 대변해 준다. 태권브이와 마징가 Z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둘이 힘을 합쳐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목을 저렇게 둘이 대결하는 것처럼 단 이유는 당시 어린이들이 입버릇처럼 '누가 이길까'라는 호기심으로 실제로 대결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1970년대 어린이들에게 <로보트 태권브이>와 <항금날개>는 공상과학을 소재로 한 영웅물이었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마블사의 어벤져스 군단에 열광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로봇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에 열광했던 것이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만화영화로 먼저 상영된 후, 『새소년』에서 1978년 조항리 원작과 김형배 그림으로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이라는 부록만화로 나왔다. 클로버 문고로도 간행되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만화부록 때문에 『새소년』을 구독해 달라고 부모님께 졸랐다고 당시를 회상하는 독자가 여럿 있었다. 『새소년』에 <로버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이 실리기 전에, <황금날개>가 먼저 연재되었다. 『새소년』의 부록만화는 어린이들에게 잡지를 구독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1979년 1월에 <로버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의 마지막회가 부록이 아닌 잡지에 수록된다. 김형배의 태권브이 만화가 인기를 끌기 전에 『소년세계』에서 김승무의 부록만화가 먼저 연재되기 시작했다. 『소년세계』는 1977년 1월부터 <로버트 태권브이 우주작전>이 부록만화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어 5월부터 <태권브이 수중특공대편>이 부록만화로 연재된다. 선점을 장악하고도 김승무가 잊혀지고 김형배의 태권브이가 남은 것은 김형배의 버전이 클로버 문고의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65] <로보트 태권브이>는 텔레비전 만화영화가 매일 어린이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어린이 잡지 부록만화를 통해 매달 찾아가면서 극장판 만화영화의 일회성을 상쇄하여 인기를 끌고 있었다. 김형배 버전의 마나문고의 <로버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은 클로버 문고의 <로버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와

65) <로보트 태권브이>를 만화로 그린 작가는 김형배와 김승무 이외에도 차성진도 있었다. 만화영화가 만화로 제작되거나 소설이 만화로 제작되거나 하여, 어린이들 사이에서 만화의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동일한 버전이다. 『소년세계』에서는 한재규 버전으로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이 나왔다.

이정문, <설인 알파칸>(『새소년』, 1966년 1월~1967년 10월)
이정문, <철인 알파칸>(『새소년』, 1967년 11월~)
안동림, 「우주작전」 (『새소년』, 1966년 1월~)
장수철, 「악마의 위성 카리스트」(『새소년』, 1966년 1월~)
김삼, <우주에서 온 소년>(『새소년』, 1967년 1월~)
윤길영, <개조인간 S>(『새소년』, 1975년 1월~)
신종환, <철인 다이모스>(『새소년』, 1976.2월, 3월 별책부록, 4월부터 잡지에 수록)
정승, <메주터 공격개시>(『소년세계』, 1974년 3월~)
허봉조, <우주개척자>(『소년세계』, 1974년 5월~10월)
, <울트라맨>(『소년세계』, 1974년 9월~10월)
정남우, <마징거제트>(『소년세계』, 1975년 9월 별책부록, 1975년 10월부터 잡지 수록)
김승무, <태권브이 우주작전>(『소년세계』, 1977년 1월~1977년 4월)
김승무, <태권브이 수중특공대>(『소년세계』, 1977년 5월~)
이정문, <녹색별을 찾아라>(『소년세계』, 1977년 11월~) <철인 캉타우> 『어깨동무』에 연재.
이정문, <UFO에서 온 소년 루카>(『새소년』, 1979년 1월호부터)
고우영, <태권만화 대야망>(『새소년』, 1977년 6월~)
김왕근, <이상한 거인>(『소년세계』, 1976년 2월~1976년 12월)

거인, 특공대, 우주, 소년, 철인 등의 제목이 줄곧 달려 있다. 우주의 악당을 물리치는 지구의 거대로봇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주특공대, 수중특공대, 은하특공대 등 군대의 특공대 전사를 상기시키는 제목을 달고 있다. 알파칸, 마징가, 철인, 개조인간, 거인 등의 거대로봇을 앞세운 만화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 사이에 UFO에 대한 만화나 녹색별 등 다른 행성을 가정한 만화들이 눈에 보인다. 지금은 믿지 않는 공상과학의 세계를 그때는 마음껏 즐기며 상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UFO에 관한 소문도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SF의 소재로 활용하고 기사로도 내보내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초인, 초인간,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톰은 5만 마력 위력을 가지고 있고, <황금날개> 1호도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 어린 소년이 세상과 맞서고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육백만불의 사나이>, <소머즈>가 방영되던 때다. 『새소년』 1978년 3월호의 특별영화편으로 <초능력 공작원 소머즈>가 실려 있다. (『새소년』, 1978년 3월) 『소년세계』 1977년 10월호에는 <로보트 태권브이와 육백만불 사나이의 대결>이 실린다.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육백만불의 사나이>와 <소머즈> 역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의 대명사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육백만불의 사나이는 사이보그인데,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4. '과학자'의 꿈을 키우며 '공작' 기술을 익히는 어린이

공상과학만화영화를 보며 과학자 혹은 우주비행사의 꿈을 키우는 독자가 많았다. 현재 독

자 어린이는 우주비행사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자란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에서도 잡지에서도 신문에서도 늘 접하던 것이 우주과학이었다. 가장 인기를 끈 코너는 '공작'이었다. '공작' 코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비행기/ 로케트 만들기와 트랜지스터 라디오 만들기였다.

1) 과학자 꿈과 박사의 권위/ 무기 개발자(발명가)

『소년세계』 1974년 5월부터 10월까지 허봉조의 <우주개척자>라는 만화가 연재된다. 지금의 독자들은 '우주개척자'라는 직업에 대해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제목은 거창하게 '우주개척자'라고 달려 있지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다른 행성이나 운석과의 충돌을 피하는 내용이다. 1970년대는 우주비행사가 아니라 우주개척자라는 꿈을 꾸는 게 낯설지 않을 만큼, 어린이들이 우주개척, 우주비행, 우주정복에 대한 인류의 꿈을 담은 내용의 공상과학만화(영화), 공상과학소설을 대거 접했음을 알 수 있다. 『학생과학』 1968년 12월호에는 「나도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다」가 실려 있다. 우주비행사의 조건이라든가 우주비행사가 받는 훈련 등을 실으면서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의지를 강조한다. 17세 이상의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가 비행 훈련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덧붙인다. <로보트 태권브이>의 훈이도 태권브이 조종사(우주비행사)다.

신동우의 <5만 마력 차돌박사>에는 "1969년대만 해도 로켓트의 석기시대였었지!"(『학생과학』, 1969년 6월호 9회)라며, 그러나 만화 속 미래에서는 차돌이가 탄 우주선은 달에 수학여행 갔다 오는 졸업반 학생들을 만난다. 미래가 되면 자유롭게 달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1969년 당시에 우주여행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달에 수학여행을 가는 미래를 공상하며 즐거워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이 미래 현실로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여부는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었을 수 있다. 상상 자체의 즐거움이 주는 쾌감으로 별다른 놀이가 없었던 때 우주로 수학여행 가는 공상만큼 신나는 것이 있었을까.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주경쟁 과열시대였음에도 국내 로케트의 발명기술은 실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우주로 나가는 로케트보다는 전쟁에 실제 활용되는 전투기나 폭격기, 비행기가 훨씬 현실감이 있었다고 보인다. 1960년대부터 『학생과학』에 월남전 기사와 함께 등장하던 무기와 전투 폭격기[66]는 1977년 12월 『소년세계』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미래의 대형수송기 <메갈리프터>」에서 길이 약 200미터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메갈리프터는 다른 수송기(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의 사진과 함께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압도적으로 보이게 한다. 같은 호에 <세계 유명 전투 폭격기>도 함께 실리는데 제1, 2차 세계대전, 6·25 참전 유명기 시리즈 등 전쟁에서 실제 사용되어 승리를 이끌었던 유명기를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원폭소년 아톰>(아톰대사편 12회)에서도 우주인의 전투기가 나타나 과학성을 폭파하

66) 1966, 1967, 1968년 『학생과학』에는 무기에 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월남전에 사용된 과학발명품, 무기 소총-16의 성능(1968년 1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B-29란 비행기(1968년 1월), B-29란 비행기는?(1968년 2월) 『관제탑을 폭파하라』(글 서광운, 그림 송시원) 과학소설에서도 종종 로케트 전투기가 등장(화성호는 어디로, 1968년 1월 76면) 월남에서 활약하는 항공기들(1968년 2월) 신형전투기 F-4C 팬톰(남궁호, 1968년 4월) 미군기를 괴롭히는 월맹의 SA-2미사일(1968년 4월), 소련과 중공이 싸운다면?(1968년 4월) 「한국전투기 현대화」에서는 2, 3년 내 한국 전투기가 F-5-21로 대체될 것이라 한다.(1969년 6월 과학뉴스) 지금 보면 학생들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름도 모를 전투기와 폭격기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놀랍다. 학생 독자들은 이 많은 폭격기와 전투기를 다 외우고 있었을까도 궁금하다. 그러나 이 전투기, 폭격기, 비행기가 공작 코너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때 당시 『학생과학』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외울 정도로 눈에 익고 손에 익었을 수도 있다.

는 장면이 나온다. 잡지의 기사에서 접하는 전투기와 폭격기, 실제 전쟁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우주 배경의 공상과학 장면에서도 종종 삽입된다.[67] 우주를 배경으로 한 전투 만화(영화)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공상과학 만화(영화)들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서 어린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어른들의 우려와 멸시를 집중적으로 받았다.[68]

그러나 공상과학 만화(영화)를 보는 어린이들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어른들의 시선과 달리, 당시 어린이들은 공상과학을 보며 '과학자'를 꿈꾸었다고 한다.[69] 꿈을 물었을 때, 우주개척자, 우주비행사, 과학자가 1위였던 시절 혹은 반의 절반 이상의 소년들이 과학자라고 답했던 시절이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성적을 가진 소년도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과학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꿈은 높게 가져야 한다'가 좌우명이 되던 시절, '과학자'를 꿈꾸면서 공업(실업)고등학교를 다니며 기능공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꿈과 현실의 괴리는 '과학자'가 못 되는 좌절감으로 다가왔다기보다 그 모든 과정을 '과학자' 꿈을 향한 과정으로 여기고 인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세계』는 아이디어 회간의 에스에프전집의 홍보문구로 "과학자·발명가가 되려면 SF(에스에프)를 읽어야 한다!"를 내걸었다.(1976년 10월) 그러나 바로 앞면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세계 최고의 기능왕>에서 이용, 미용, 기구, 목공 등의 메달 선수들을 선전하고 있어서 아이러니하다. '과학자'와 '기능공'의 격차는 컸지만, 1970년대 소년들에게는 꿈은 과학자라고 말하면서 기능공 자격증을 따기 위해 기술학원을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훌륭한 기능공이 되려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서도 과학자를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처럼 보여서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그러나 1970년대는 꿈과 현실의 간격이 컸지만 꿈을 꿨다. 어른들이 허황된 공상이라고 비웃는 공상과학을 보며 과학자를 꿈꿨던 어린이들은 실제로 과학자가 되기도 했다.

『새소년』 1977년 6월호[70]에 고우영의 <대야망>이라는 만화에서 일본에서 부모를 잃고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란 한국소년이 태권도를 배우며 꿈을 키우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태권도를 배우며 꿈을 키우는 이야기는 당시 <로보트 태권브이>와 함께 강인한 신체를 얻기 위해서 태권도를 익히는 것이 소년들의 필수관문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더불어 태권도를 앞세워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유도하고 강인한 신체뿐만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을 길러 주려는 계몽 의도로

67) 최애순은 『학생과학』 과학소설이 종종 전투(전쟁)소설이나 방첩소설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에게 우주는 현실과 너무 먼 환상이었고 전쟁은 실제 겪었으며 가능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1960~1970년대 과학소설에 대한 인식과 창작 경향」, 『대중서사연구』 제23권 1호, 2017.2, 274~276면 참조; 「초창기 SF 아동청소년문학의 전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2017.12, 68면 참조) 『학생과학』의 SF 작가클럽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우주'로 넘어가면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증발해버리고 마치 6·25를 연상시키는 듯한 폭탄, 지뢰, 땅굴기지 등의 용어와 함께 전쟁소설로 흘러가 버려서 SF에서의 무한한 우주공간을 원했던 학생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8) 주부들의 좌담이 열린 자리에서 주부들은 어린이만화영화를 아이들이 하도 졸라서 보러 가긴 하지만 "로보트니 괴물이니 하는 엉터리 공상극 아니면 싸우고 부수는 내용뿐"이라는 불만을 토로한다. 허무맹랑한 TV의 만화영화부터 없애야 하며, 어린이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정중헌 정리, 「조선일보 좌담 주부끼리 얘기합시다」, 1978.8.10)

69) 로버트 태권브이, 우주소년 아톰을 보며 과학자를 꿈꾸었다고 한다.(

70) <황금날개>가 조항리 글, 김형배 그림으로 『새소년』 별책부록으로 연재가 시작된 호이다. <황금날개>는 조항리 글 김형배 그림으로 만화가 먼저 나오고 김청기 감독이 이것을 만화영화 <황금날개>로 만든다. 김형배가 로보트 태권브이의 만화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황금날개>를 먼저 연재하고 뒤이어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를 곧바로 연재했기 때문이다. <로보트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김청기 감독의 만화영화로 상영된다.

담겨 있었다. 김삼의 <우주에서 온 소년>[71]도 소년 007이 태권도로 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소년 007은 초능력이나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연마하여 모험을 펼치는 소년 주인공이다. <대야망>의 스승은 아리아께가 사관학교 생도처럼 예의와 절도가 있다고 혀를 내두른다. 비/고아/꿈이라는 작은 타이틀에 맞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꿈을 키우는 이야기에 종종 '고아'라는 설정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주소년 아톰>의 아톰도 텐마 박사가 서커스단에 팔아서 졸지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가 되었고, <황금날개>의 현이도 <로보트 태권브이>의 훈이도 모두 부모 잃은 고아 소년이다.[72] 만화뿐만 아니라 공상과학소설에도 고아의 성장담이 삽입된다. 1966년 1월 『새소년』에 연재된 장수철의 「악마의 위성 카리스트」에도 우주기 히비호의 기장이 칼 엑스트렘 박사로 나온다. "엑스트렘 박사와 그 일가는 저희 부친이 제 3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뒤 쭉 저를 키워 주셨읍니다!"(208면) 위험한 외계 비행체의 착륙 지점에 가보라는 출두명령을 내리면서 그레고리의 성장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어린 고아 소년에게 키워준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부담을 얹어 주는 장면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박사 아버지를 잃고 우주비행사가 된 소년들의 이야기가 1960년대와 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의 서두를 장식하는 단골 메뉴다. <로보트 태권브이>의 훈이는 태권브이 설계도를 적으로부터 지킨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태권브이 조종사(우주비행사)가 된다.

소년들의 모험에 늘 함께하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늘 박사로 등장한다. 1966년 1월부터 『새소년』에 연재된 「설인 알파칸」에도 한국의 천문학자 신경준 박사가 준이의 아버지로 등장한다. 살인광선과 무인로보트를 비밀연구소에서 만들다가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거의 완성중에 있던 비밀무기들을 히말라야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붉은별 군단'을 만들고 세계정복을 꿈꾸는 과학자 뜨베르 박사와 대립한다. 뜨베르 박사는 영국 그리닛치 천문대장 브라운 박사만 잡아 오면 세계정복을 손쉽게 할 수 있다며 설인 알파칸에게 명령한다. 1971년 8월호 『학생과학』에는 「과학추리소설 악마박사」가 연재된다. '악마박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박사가 넘친다. 박사가 연구소에서 고안한 설계도의 로보트가 완성되면 국가, 지구, 세계정복까지 꿈꿀 수 있다는 환상은 어린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꾸도록 하기에 충분히 매혹적이었다. '나는 착한 로보트를 만드는 착한 과학자가 되어야지' 하며 로봇을 설계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환상에 부풀었다. 그러나 '과학자'를 꿈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은 "로보트나 화약총을 들고 아파트 광장을 뛰어다니며 태권브이의 흉내를 내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과학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기보다 강인한 태권브이 행세를 하며 골목대장을 꿈꾼 게 아닐까.

박사는 과학자인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아버지이다. 게다가 키워준 은혜를 입은 경우에는 배반할 수 없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박사이다. <로보트 태권브이>, <황금날개>의 박사들은 강박사와 윤박사, 선우박사, 마징가 Z의 슈타인박사의 손자, 황금날개의 현이, 태권브이의 훈이까지 모두 아버지 박사와 죽은 고아 소년들이다.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지구(로보트 설계도)를 지키다 죽은 박사도 아니고 자신이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울 만큼 강인하지도 않다. 강인한 체력을

---

71) 『소년세계』에 연재된 <우주에서 온 소년>보다 『동아일보』에 15년 동안 연재되었던 김삼의 <소년 007>이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각인되었다. 두 작품 모두 소년 007이 주인공이다. 제임스 본드의 007을 연상시키는 소년 버전으로 보이나 배경이 올리브성이라는 우주에서 온 여왕과 미야를 돕고 초능력 그림자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다르다. <소년 007>은 15년 동안 연재되다가 1980년 만화영화로 제작되었다. 70년대 초등학생이었던 독자들은 "소년동아일보에 실린 학습문제와 퀴즈, 특히 <소년 007> 등 연재만화는 많은 급우들이 돌려가며 읽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 남성에게도 우상이었다. 「007 영화에 나오는 기기묘묘한 과학발명품들」(『학생과학』, 1966년 7월, 30~35면)

72) <엄마 없는 하늘 아래>는 1977년, 1978년 연이어 3까지 제작되어 인기를 누렸다. 주인공이 야구 선수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태권도를 연마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길러 아버지 박사의 권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사명감과 부담감이 어린 소년들을 지탱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고아'가 '우주비행사'가 되는 공상과학 만화의 도식적인 설정은 초라하고 남루하고 별 볼 일 없는 현실의 당시 어린이 독자에게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도 했다. 어른들에게 허무맹랑한 공상에 싸우기만 하여 폭력적으로만 보였던 공상과학 만화(영화)는 아이들에게는 고아가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다는 환상, 초라한 현실에서도 원대한 꿈을 꾸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과학자는 로보트(무기)를 발명한 영웅이지만,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였다. 과학자 꿈을 키우는 소년들도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된다. 권위있는 아버지의 모습, 로보트를 조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어느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몸에 배이게 된다. 나도 가족을 이끄는 아버지가 되어야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무를 불평 없이 성실히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가장의 무게는 컸지만, 무게만큼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직장에서 어떤 수모를 겪어도 집에서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당대 소설들(성인대상)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직장의 말단사원일 뿐인 현실을 그린 '소시민'은 영웅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지구의 영웅은 너무 멀리 있어 가족을 지키고 부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아버지의 힘겨운 삶이 겹쳐지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받았지만 절대 불평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던 세대에 대한 중압감에 대한 이해이다. 이처럼 <로보트 태권브이>의 과학자 박사는 애국심을 통해 가족을 소환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그토록 꿈꿨던 과학자 박사가 사실은 정부의 조종을 받는 무기 개발자라는 사실을 안 2010년대 <웹툰 V>의 훈이는 영웅이 되길 거부한다.

2) 공작 코너의 인기와 공업(실업)고등학생 현실의 기능공

공상과학 만화와 함께 어린이 잡지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너는 바로 '공작'이다. 전투기, 폭격기, 비행기 기사와 함께 그것을 실제 만들어보는 공작 코너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가 마치 전투기 조종사나 과학자가 된 것과 같은 만족감과 성취감으 느낄 수 있었다. 『학생과학』에는 공작 코너가 상당한 분량의 지면을 차지할 정도로 매호 가득 실려 있다. 1969년 6월호 『학생과학』에는 「만능전폭기 F-111 만들기」(1969년 6월, 100~103면), 「쌍발비행기」, 「049 엔진을 사용한 U/C 오토자이로」(108~111면) 만들기 등이 공작 코너를 채우고 있다. 어린이 공작 코너라고 하기에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의 어린이 독자가 이때의 설계 도면을 보고 이 비행기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복잡하고 세밀하다. 비행기와 전투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소형 라디오, 배 만들기 등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생 독자가 직접 만들기 코너에 참여해서 순서와 방법, 구조를 그려서 응모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호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만들기 공작 코너와 함께 기능공 대회가 심심치 않게 실려 있다. 1966년 12월 제1회 전국기능경기 대회가 열린다.[73] 도자기, 나전칠기, 선반공, 금은세공, 도장공, 목형부, 라디오와 TV 수리공, 옥내배선, 동력배선 등의 기능공을 양성하는 대회가 열리고 학생들에게 장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공업) 중고등학교의 탐방 기사가 종종 실려 있다. 전기과, 기계과, 건축과, 광산과, 야금과 등으로 구성된 실업(공업)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생활전선에

73) 「카메라에 비친 솜씨의 절정」, 『학생과학』, 1966년 12월.

뛰어드는 학생이 더 많은 형편이므로 기술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한다.[74] 사이사이 실려 있는 기술자 양성 학원의 홍보지면[75]은 앞의 우주과학소설이나 공상과학 만화와 전혀 다른 세계인 것처럼 생뚱맞아 보인다. 그러나 그 모순된 두 세계가 공존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60~1970년대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실업학교를 다니며 졸업하자마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꿈만큼은 비록 허황되어 보일지라도 '과학자'로 원대하게 거대하게 꿀 수 있었던 때이다. 그것이 나약함을 감추고 용기와 패배로 무장했던 1960·70년대 세대의 생존 무기였다. 우주 공상과학 만화와 만화영화를 보며 우주비행사와 과학자를 꿈꾸지만, 실제 학생 독자들이 택한 직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능공'이었다.

『학생과학』에 실려 있던 서광운의 『해류 시그마의 비밀』(1967년 1월부터 연재)은 학생 독자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76] 공상과학에서 마음껏 누비던 상상의 나래보다는 현실의 지루한 설명이나 어른의 연설이 장황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상과학에서 접할 수 없었던 당대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지표가 된다. 목표해양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진서 학생은 해양탐사 프로젝트의 명목으로 박사와 대학생들이 연구를 위해 떠나는 충무호에 식당 보이로 탑승할 기회를 얻는다. 충무호에 승선하게 된 박진서 소년은 운이 좋았다고 기뻐하며 누나, 매부, 여자친구의 환송을 받는다. 그러나 식당 보이로 선원이 되어 승선하는 것은 고생길이 훤하다. 누나와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의 무게를 어린 소년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것이다.

"옷을 벗고 모포를 덮은 박진서의 가슴은 아직도 감격에 부풀어 좀처럼 잠들지 못할 것만 같았다."라는 소년의 호기심과 설렘의 감정과 "출항하는 날 누나도 매부도 나와서 함께 자기를 비켜보고 있는 세 사람이, 이 순간에는 자기의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삶의 배경인 듯 느껴졌다."라는 장면으로 전해지는 뿌듯함 사이에서 부담감과 압박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식당 보이로 승선한 진서와 대학생들 사이의 충돌 역시 당시의 고졸과 대학생 사이의 차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이중적이고 모순된 감정은 시그마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계획 아래에 억눌리게 된다. 한낙원의 『금성탐험대』의 고진 소년이나 오민영의 『화성호는 어디로』의 잭크 역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우주대학 특별생이라는 신분을 얻어 탑승한다. '특별생'이라는 명칭이 붙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나이에 취업하여 고된 훈련도 참고 견디며 어른처럼 굴어야 했던 소년들의 처절한 생존이 숨어 있었다.

군대의 징집이 필요하고 산업화로 기능공이 필요했던 시대에 어린이들은 기능공이나 기술자 되는 것을 과학자의 꿈을 키우며 준비하고 있었다.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소년들은 좌절하기보다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가족 부양의 의무와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마치 지구를 지키는 사명감처럼 여겼다. 아직 어린 소년들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나이라는 것과 울어도 되고 떼써도 되는 어린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소년은 미성숙한 상태로 성큼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1970년대 남성들은 공상과학을 어린이의 것으로 치부하면서도 로보트가 악당을 물리치는 공상과학만화를 읽고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마치 어린이들만 즐겼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최인호의 소설 한 장면을 채울 정도로 흔한 풍경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공상과학만화는 남자 어린이와 어린이 시기를 건너뛴 어른 남성들의

74)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 전문교 탐방- 전기과, 기계과, 공업화학과, 광산과, 야금과, 건축과 등」, 『학생과학』, 1966년 12월; 「청주 공업고등학교 과학반」, 『학생과학』, 1967년 1월. 매호 학교탐방이 실려 있는데 공업(실업) 중고등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75) 『학생과학』을 비롯하여 『새소년』, 『소년세계』의 어린이 잡지에는 문화 텔레비 학원의 <라디오 TV 기술자 양성> 광고가 종종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국제 TV기술학원의 <기술은 무한한 자본이다>의 반복적인 홍보문구도 눈길을 끈다.

76) 최애순, 「초창기 SF 아동청소년문학의 전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1호, 2017.12, 71~72면.

성장통과 같은 것이었다.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지만, 태권브이와 함께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며 강인한 남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지구를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소년들에겐 짊어져야 할 가족이 있었다. 이런 부담감과 책임감은 소년들이 일터로 나가 기능공이나 기술자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사명처럼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소년들은 힘들어도 울지 못하고 나약해서 포기하거나 쉽게 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가는 1970년대 어린이가 짊어진 압박감과 무게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참았던 울음, 슬픔, 눈물은 2000년대 이후 40·50대 아저씨가 되어서야 터지게 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과학자 꿈(이상)과 기능공의 현실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컸다. 공상과학 만화(영화)에서 접했던 강인한 로보트와 철인들은 실제로는 <황금날개>의 현이처럼 겁많고 소심한 어린아이일 뿐이거나, 황금날개나 태권브이를 조종하는 국민 영웅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으로 유년기에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했던 고된 훈련과 채찍에 지친 힘없는 소년일 뿐이었다. 이들이 어른이 되고 독립하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취직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길이었다. 이렇게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꿈이 저 멀리 있을 때, 내 능력이 보잘것없고 불가능해 보이면 보일수록 초능력이나 강력한 무기, 무장할 수 있는 거대로보트를 열망하게 된다. 로보트 공상과학만화는 바로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이라도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나에게도 초능력이 있다면, 나도 로보트를 조종할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 강인해지고 남에게도 얕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만화가 어린이들에게 허황된 망상과 저급한 상상을 불어넣는다고 불량도서 목록에 오르고 금지한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어른의 시선은 공상과학 만화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하고, 1970년대 공상과학 필름의 보존을 소홀히 하여 먼지 더미에 파묻혀 있도록 만들었다. 화성과 금성에 우주인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요즘 아이들은 더 이상 우주인이나 UFO를 상상하지 않는다. ‘우주인이 지구를 습격한다면’이라는 ‘공상과학’을 품을 수 있었던 때는 꿈과 현실의 괴리가 크긴 했지만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어린이들의 꿈은 무엇일까?

5. 공상과학 만화(영화)의 소멸과 어린이의 사라진 ‘꿈’

공상과학 만화가 사라짐과 동시에 ‘과학자’의 꿈도 사라졌다. 비록 허황되고 무모할지라도 현실과 괴리를 빚어내더라도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너무나 현실적인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허황된 꿈을 꾼다고 비판받았던 ‘공상과학’이 그리워진다. 어른들의 눈으로 공상과학에 부정적 혐의를 씌우고, 어린이들만 보는 허황된 것으로 여긴 결과 공상과학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공상과학이 자취를 감추면서 어린이들의 꿈도 사라졌다. 지금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꿈을 꾸거나 원대한 포부를 꿈꾸는 어린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원래부터 꿈은 현실과 멀면 멀수록 이루어질 가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보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꿈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다시 공상과학이 소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1960년대~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영화)와 어린이의 '과학자'꿈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중심으로」에 토론문

장수경(목원대)

이 연구는 1960년대~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영화) 중에서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브이>를 중심으로 공상과학 만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중요성은 그동안 한국문학사에서 '아동문학', '대중문학' 등으로 폄훼되어온 1960-70년대 만화영화에 대한 실증 자료를 복원해 검토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비어있던 한국문학사를 보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애순 선생님의 연구성과가 앞으로 한국아동청소년문학뿐 아니라 한국문학사를 보완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고 보충 설명을 듣는 것으로 본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애순 선생님은 이 논문에서 '과학소설'과 다른 의미로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SF는 식민지 시기 '공상'과 '과학'의 결합어로 사용되었고, 이는 195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잡지 등에서 우주나 로봇을 다루는 서사에서 주로 '공상과학'이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물론 서론에서 밝히고 계시지만 '공상과학'이 현재의 시공간에서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한 영역으로 꿈꾸게 한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상과학'을 '과학소설'과 다른 의미로 정의해서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먼저, 1960-70년대 <우주소년 아톰>과 <로보트 태권V>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두 작품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확인이 어려운 까닭에 자료에 대한 정리만으로도 향후 후속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1960-1970년대 두 텍스트에 대한 서지정리 차원에서 <학생과학>, <새소년>, <소년세계> 등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서지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제목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공상과학 만화(영화)와 '어린이의 과학자의 꿈'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서 한 편의 논문으로 완성한다면 1960-70년대 공상과학만화(영화)가 당대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문화적 의미를 형성하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면밀히 연구가 진행된다면 1960-70년대 공상과학소설과 당대 대표적인 잡지에서 추구했던 이상적인 어린이, 청소년의 이미지와 현실의 문제, 공상과학 소설의 한계 등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해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